

셜록 홈즈의 마지막 인 사

His Last Bow

아서 코난 도일 (1859-1930)

1917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10-09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Arthur Conan Doyle, "His Last Bow" (The Strand Magazine 1908-17)

저자

아서 코난 도일 (Sir Arthur Conan Doyle, 1859-1930)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2350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10-09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빅토리아 시대 추리소설 특유의 격조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웁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
시면 좋겠습니다.

위스테리아 로지

존 스콧 에클스 씨의 기이한 경험: 산 페드로의 호랑이

1. 존 스콧 에클스 씨의 기이한 경험

내 수첩을 확인해 보니, 1892년 3월 말의 어느 쓸쓸하고 바람 부는 날이었다. 점심을 먹던 중 홈즈에게 전보 한 통이 도착했고, 그는 곧바로 답장을 휘갈겨 썼다. 홈즈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일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듯했다. 식사 후 그는 벽난로 앞에 서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고, 이따금 전보 내용을 다시 확인하곤 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눈을 장난스럽게 반짝이며 나를 돌아보았다.

“왓슨, 자네를 이제 문필가라고 불러야 할 것 같군.” 홈즈가 말했다.
“자네는 ‘그로테스크(grotesque)’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나?”

“기묘하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말했다.

내가 내린 결론을 듣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분명 그 이상의 무언가가 더 있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건을 암시하는 근거의 기운 같은 것 말입니다. 그동안 인내심 강한 대중을 괴롭히며 써 내려간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괴한 사건이 얼마나 자주 끔찍한 범죄로 심화되었는지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그 빨간 머리 사내들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시작은 충분히 기괴했지만, 결국 필사적인 강도 미수로 끝맺음했지요. 아니면 그 다섯 개의 오렌지 씨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아주 기괴한 사건이었지만, 결국 살인 음모로 직결되지 않았습니까. ‘기괴하다’는 그 단어가 제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군요.”

“그거 거기 있나?” 내가 물었다.

그는 전보를 소리 내어 읽었다.

“방금 믿기지 않을 만큼 기괴한 일을 겪었습니다.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스콧 에클스, 차링 크로스 우체국 앞으로.”

“남자인가, 여자인가?” 내가 물었다.

“아, 당연히 남자겠죠. 여자가 답신 요금을 지불하는 전보를 보낼 리가 없으니까요. 여자였다면 벌써 찾아왔을 겁니다.”

“그를 좀 만나주시겠습니까?”

“여보게, 왓슨. 캐리더스 대령을 가둔 뒤로 내가 얼마나 무료했는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내 머릿속은 마치 공회전하는 엔진 같네. 원래 작동해야 할 일에 연결되지 못해 스스로를 갇아먹으며 파괴될 지경이란다. 삶은 평범하기 짝이 없고, 신문 기사들은 아무런 자극도 주지 못하는군. 범죄의 세계에서 대담함과 낭만은 영영 사라져 버린 것 같아. 그러니 내게 물어보게나.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새로운 문제를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일세. 아, 그런데 내 착각이 아니라면, 저기 우리 의뢰인이 오고 있군.”

계단을 오르는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체격이 건장하고 키가 큰 남자가 방 안으로 안내되었다. 그는 회색 구레나룻을 기른, 아주 점잖고 품위 있는 인상이었다. 목직한 이목구비와 거드름 피우는 태도만 보아도 그가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스페츠를 신은 발끝부터 금테 안경에 이르기까지, 그는 보수당원이며 독실한 신자이자 모범적인 시민이었다.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통과 관습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놀라운 경험을 겪은 듯, 본래의 침착함은 흐트러져 있었다. 곤두선 머리카락과 붉게 달아오른 뺨, 그리고 당황하여 들뜬 기색이 그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흠즈 씨, 정말 기가 막히고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살면서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부적절하고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는 분노로 몸을 부풀리며 씩씩거렸다.

“자, 앉으시지요, 스콧 에클스 씨.” 홈즈가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애초에 어찌하여 저를 찾아오게 되셨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선생님. 딱히 경찰이 나설 일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듣고 나니, 이대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더군요. 제가 사립 탐정이라는 부류를 결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선생님의 성함을 듣고 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왜 곧장 오지 않으셨습니까?”

홈즈가 시계를 슬쩍 확인했다.

“지금은 2시 15분입니다.” 그가 말했다. “전보를 보내신 건 1시쯤이었겠군요. 하지만 당신의 옷차림과 매무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크게 동요하신 시점이 잠에서 깨어난 직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의뢰인은 빗질하지 않아 형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더니, 수염이 거칠게 자란 턱을 만져 보았다.

“홈즈 씨, 말씀이 옳습니다. 제 몸단장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런 집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을 찾아오기 전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조사를 좀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도 가 보았는데, 그들의 말로는 가르시아 씨의 임대료는 밀린 것 없이 잘 납부되었고 위스테리아 로지의 모든 상황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자자, 진정하십시오.”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마치 내 친구 왓슨 박사 같군요. 그 친구는 이야기를 앞뒤가 바뀌게 늘어놓는 나쁜 버릇이 있거든요. 그러니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지요. 조언과 도움을 구하겠다고, 옷차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구두와 조끼 단추까지 어긋나게 채우고 급히 달려오게 만든 그 사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뢰인은 자신의 남루하고 특이한 차림새를 내려다보며 몹시 송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홈즈 씨, 분명 상황이 아주 나쁘게 보이리라는 걸 압니다. 제 평생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 기묘한 사건의 전말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분명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채 시작되기도 전에 끊기고 말았다.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허드슨 부인이 문을 열었다. 긴장한 체격에 관료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두 남자가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스코틀랜드 야드의 그렉슨 경위였다. 그는 활기차고 용기 있으며, 능력의 한계는 있을지언정 유능한 경찰관이었다. 그는 홈즈와 악수를 나누고는, 함께 온 동료인 서리 경찰청의 베인스 경위라고 소개했다.

“우리는 함께 사냥 중입니다, 홈즈 씨. 우리가 쫓는 흔적은 바로 이 쪽으로 이어져 있군요.” 그는 불독 같은 눈을 돌려 우리 앞에 선 방문

객을 쏘아보았다. “당신이 리의 포팜 하우스에 사는 존 스콧 에클스 씨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침 내내 당신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전보를 추적해서 그를 찾아낸 게 분명한군.” 홈즈가 말했다.

“정확합니다, 홈즈 씨. 저희는 채링 크로스 우체국에서 단서를 포착한 뒤 이곳까지 쫓아왔습니다.”

“대체 왜 나를 따라오는 겁니까?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스콧 에클스 씨, 어젯밤 에서 인근 위스테리아 로지의 알로이시우스 가르시아 씨가 사망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눈을 부릅뜬 채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다. 경악에 찬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서 있었다.

“죽었다고요? 그가 죽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 선생님. 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입니까? 사고였단 말입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끔찍한 살인이 어디 있겠나.”

“세상에! 이럴 수가! 설마—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죽은 이의 주머니에서 당신이 보낸 편지가 한 통 발견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 당신이 어젯밤 그 집에서 목을 계 획 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더군요.”

“정말 그랬지.”

“오, 그러셨단 말입니까?”

공식 수첩이 모습을 드러냈다.

“잠시만 기다리게, 그렉슨 경.” 셜록 홈즈가 말했다. “자네가 원하는 건 그저 명확한 설명뿐 아닌가?”

“그리고 스콧 에클스 씨에게 경고하는 것이 제 의무이기에 말씀드립니다. 이 사실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에클스 씨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던 참이었소. 왓슨, 에클스 씨에게 브랜디 소다 한 잔을 내오는 게 좋겠군. 자, 선생님, 방금 새로 합류한 청중은 신경 쓰지 마시고, 방해받기 전처럼 하던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지요.”

방문객은 브랜디를 단숨에 들이켰고, 그러자 안색에 다시 생기가 돌았다. 그는 경위의 수첩을 의구심 가득한 눈초리로 슬쩍 훑어보더니, 곧바로 자신이 겪은 기이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저는 미혼입니다.” 그가 말했다. “성격이 사교적인 편이라 친구를 아주 많이 두고 있지요. 그중에는 켄싱턴의 애버마를 저택에 사는 멜빌이라는 은퇴한 양조업자 가족도 있습니다. 몇 주 전, 그 집 식탁에서 가르시아라는 젊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듣기로는 스페인계 혈통이고 대사관 쪽과도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더군요. 영어는 완벽하게 구사했고 매너도 아주 좋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평생 본 사람 중 가장 잘생긴 남자였지요.”

“그 젊은 친구와 나는 어떤 계기로 꽤 친해졌습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였죠. 만난 지 이틀도 안 되어 그는 리(Lee)에 있는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이어지더니, 결국 그는 에셔(Esher)와 옥스숏(Oxshott) 사이에 있는 자신의 저택, 위스테리아 로지(Wisteria Lodge)로 며칠 머물다 가라는 초대를 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에셔로 향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곳으로 떠나기 전, 자신의 집안 형편에 대해 미리 설명해 주었다. 그는 고향 출신의 충직한 하인 한 명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하인은 그의 모든 필요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었다. 이 친구는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고 집안 살림도 도맡아 했다. 또한 그는 여행 중에 만난 혼혈인 요리사가 있는데, 그 실력이 아주 뛰어나서 훌륭한 저녁 식사를 차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서리(Surrey)의 중심부에서 그런 기묘한 가정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드문 일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기억한다. 나 역시 그 말에 동의했으나, 실제로 겪어보니 그 집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한 곳이었다.

나는 마차를 몰아 에서 남쪽으로 2마일쯤 떨어진 그곳으로 향했다. 집은 제법 규모가 컸는데,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집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굽어 있었고, 길 양옆으로는 키 큰 상록 관목들이 독처럼 둘러싸고 있었다. 건물은 오래 되어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고, 관리 상태도 엉망이었다. 얼룩지고 비 바람에 색이 바랜 문 앞, 잡초가 무성한 진입로에 마차를 세웠을 때, 나는 내가 왜 이토록 면식이 없는 사람을 찾아왔는지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직접 문을 열고 나와 아주 친절하게 나를 맞이했다. 곧이어 그는 나를 하인에게 인도했다. 그는 어둡고 칙칙한 인상의 검은 피부를 가진 사내였는데, 내 가방을 손에 들고 침실까지 앞장서서 안내했다. 집 전체의 분위기가 무척이나 우울했다. 저녁 식사는 단둘이 마주 앉아 하는 자리였다. 주인은 나를 즐겁게 해주려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생각은 자꾸만 딴 데로 흐르는 듯했다. 게다가 그는 너무나 모호하고 횡설수설하며 말을 이어갔기에 도무지 알아듣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는 식사 내내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고 손톱을 깨물며, 초조함과 불안함을 숨기지 못했다. 음식조차 제대로 차려지지 않았고 맛도 없었으며, 말수 적은 하인이 곁을 지키는 칙칙한 분위기 탓에 식사 자리는 더욱 가라앉았다. 저녁 내내 나는 리(Lee)로 돌아갈 수 있는 핑계라도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두 분께서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하인이 쪽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주인분이 그 쪽지를 읽

고 나더니, 이전보다 훨씬 더 정신이 없고 이상해 보이는 것을 저는 눈여겨보았습니다. 주인분은 대화를 이어가려는 시도조차 포기한 채, 끝도 없이 담배만 피워대며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쪽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11시쯤 되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르시아가 제 방 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시 방 안은 어두운 상태였는데, 그는 제가 벨을 눌렀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누르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벌써 새벽 1시가 다 되었다며, 이 늦은 시간에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곧 잠이 들었고, 밤새 깊게 잤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대낮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거의 9시가 다 되었던군요. 분명 8시에 깨워달라고 특별히 부탁했기에, 이런 망각에 저는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하인을 부르려고 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벨을 눌러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벨이 고장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옷을 서둘러 껴입고는, 뜨거운 물을 좀 가져오라고 시키기 위해 몹시 불쾌한 기분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홀에서 소리를 질러 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방마다 뛰어다녔습니다. 모든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전날 밤 자신의 침실이 어디인지 제게 알려주었기에 그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역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돌려 안으로 들어갔습

니다. 방은 비어 있었고, 침대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듯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주인도, 외국인 하인도, 외국인 요리사도, 모두 밤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위스테리아 로지에서의 체류는 끝이 났습니다.”

셜록 홈즈는 이 기이한 사건을 자신의 기묘한 사건 수집 목록에 새로 추가하며, 손을 비비고 낄낄거리며 웃었다.

“제가 알기로 당신의 경험은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가 말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그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벌인 터무니없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짐을 챙겨 들고 현관문을 쾅 닫은 뒤, 가방을 손에 든 채 에셔로 향했습니다. 마을의 주요 부동산 중개업소인 앨런 브라더스에 들러 확인해 보니, 그 빌라를 임대한 곳이 바로 그 업체였습니다. 문득 이 모든 소동이 나를 놀리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임대료를 가로채려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은 3월 말이라 분기별 임대료를 내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가설도 맞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은 내 경고에 고마워하면서도, 임대료는 이미 선불로 지급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다음 나는 런던으로 가서 스페인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그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전에 가르시아를 처음 만났던 멜빌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는 내가 아는 것보

다 그에 대해 훨씬 더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당신의 전보 답신을 받고 나서야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어려운 사건에 조언을 해주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위님, 방금 들어오시며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며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모양이군요. 제가 드린 말씀은 모두 사실임을 보증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이 남자의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의 유일한 바람은 법의 집행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돕는 것뿐입니다.”

“확신합니다, 스콧 에클스 씨. 정말 확신해요.” 그렉슨 경위가 아주 상냥한 말투로 말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저희가 파악한 사실과 아주 밀접하게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군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중에 도착했던 그 쪽지 말입니다. 혹시 그 쪽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셨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가르시아가 그걸 말아서 불속으로 던져버렸거든요.”

“베인스 씨, 그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골 경위는 체격이 건장하고 얼굴이 붉게 부어오른 사내였다. 뺨과 눈썹 사이에 깊게 파인 주름 때문에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 주름 사이로 번뜩이는 두 눈만큼은 유독 형형하여 투박한 인상을 겨우 면하고 있었다. 그는 느긋하게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빛바랜 종이 조각 하나를 꺼냈다.

“그건 개살대 벽난로였거든요, 홈즈 씨. 그런데 그자가 쪽지를 너무 세게 던지는 바람에 불 너머로 넘어가 버렸지 뭐니까. 저는 그 뒤쪽에 서 타지 않은 이 조각을 집어냈습니다.”

홈즈가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 지었다.

“종이 조각 하나를 찾아내다니, 집 안을 아주 샅샅이 뒤져본 모양이군요.”

“그랬습니다, 홈즈 씨. 제 방식이 그렇거든요. 그렉슨 경위님, 제가 읽어 드릴까요?”

런던 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쪽지는 워터마크가 없는 평범한 크림색 무늬 종이에 적혀 있습니다. 크기는 종이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군요. 짧은 날의 가위로 두 번 싹둑 잘라낸 듯한 모양입니다. 종이는 세 번 접혀 있고, 보라색 밀랍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봉인한 탓에 납작하고 타원형인 물건으로 꼭 눌러 찍은 자국이 남아 있군요. 수신인은 위스테리아 로지의 가르시아 씨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팀의 색깔은 초록색과 흰색이다. 초록색은 열려 있고, 흰색은 닫혀 있다. 본관 계단을 올라가 첫 번째 복도에서 오른쪽으로 일곱 번째, 초록색 천이 깔린 문이다. 행운을 빈다. D.”

“여자가 쓴 글씨군요. 끝이 날카로운 펜을 사용했고요. 하지만 주소 부분은 다른 펜으로 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겁니다. 보시다시피 글씨체가 더 굵고 힘이 넘치니까요.”

“아주 놀라운 쪽지군요.” 홈즈가 쪽지를 훑어보며 말했다. “베인스 씨, 이 쪽지를 조사하면서 세부 사항까지 놓치지 않은 점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소한 점을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타원형 인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평범한 소맷단 단추입니다. 이런 모양의 인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위는 끝이 굽은 손톱깎이용 가위였습니다. 잘려 나간 두 조각이 아무리 짧아도, 각각의 단면에 똑같이 미세한 곡선이 남아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골 경위가 껄껄 웃었다.

“모든 걸 다 짜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남은 게 있었나 보군요.” 그가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메모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그저 무언가 준비된 것이 있었다는 점과, 늘 그렇듯 그 뒤에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 뿐입니다.”

스콧 에클스 씨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자리에서 안절부절못하며 몸을 뒤척였다.

“그 쪽에서 쪽지를 찾아내니 다행이군요. 제 이야기가 사실임을 뒷받침해 주니까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가르시아 씨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가르시아에 대해서라면,” 그렉슨이 말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오늘 아침, 집에서 거의 1마일 떨어진 옥쇼트 커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모래주머니나 그와 비슷한 도구로 머리를 심하게 내리친 듯했습니다. 상처를 입히기보다는 으깨버린 수준이었죠. 그곳은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라, 현장에서 4분의 1마일 이내에는 집 한 채 없습니다. 정황상 범인이 먼저 뒤에서 습격한 것 같지만, 범인은 그가 숨을 거둔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계속해서 매질을 했습니다. 아주 격렬한 공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범인의 발자국이나 단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도라니요?”

“아니요, 강도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이에요.” 스콧 에클스 씨가 불평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건 정말이지 저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제 집주인이 밤중에 외출했다가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일에 제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어째서 제가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아주 간단합니다, 선생님.” 베인스 경위가 대답했다. “고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서류라고는 귀하가 그날 밤 고인과 함께 있겠다고 적은 편지 한 통뿐이었습니다. 그 편지 봉투 덕분에 고인의 성함과 주소를 알 수 있었지요. 오늘 오전 9시가 넘어서야 저희가 그 저택에 도착했는데, 안에는 귀하도, 다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스테리아 저택을 조사하는 동안 그렉슨 씨에게 전보를 보내 런던에서 귀하를 찾

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 제가 시내로 나와 그렉슨 씨와 합류하여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렉슨 경위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스콧 에클스 씨,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시죠. 진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셔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하지만 홈즈 씨, 당신의 도움을 끝까지 받겠습니다. 비용이나 수고를 아끼지 않을 테니,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내 친구는 시골 경위 쪽으로 몸을 돌렸다.

“베인스 씨, 제가 당신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으시겠지요?”

“참으로 영광입니다, 선생님. 정말이지요.”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에서 아주 신속하고 사무적인 태도를 보여주셨군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그 남자가 정확히 몇 시에 사망했는지 알 수 있는 단서라도 있었습니까?”

“그는 1시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비가 내렸으니, 그가 사망한 시점은 분명히 비가 오기 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인스 씨,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뢰인이 외쳤다. “목소리는 틀림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내 침실에서 나에게 말을 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놀랍긴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군요.”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단서라도 찾았나?” 그렉슨이 물었다.

“겉보기에는 그리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물론 새롭고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의견을 내놓기에는 아직 사실 관계를 더 파악해야겠습니다. 그나저나 베인스 씨, 집 안을 조사하면서 이 쪽지 말고 또 눈에 띄는 건 없었습니까?”

그 경위는 기이한 눈빛으로 내 친구를 바라보았다.

“아주 기이한 점이 한두 가지 있었네.” 그가 말했다. “경찰서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자네가 나와서 그 점들에 대해 의견을 좀 들려주었으면 좋겠군.”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기꺼이 돕겠습니다.” 설록 홈즈가 벨을 누르며 말했다. “허드슨 부인, 이 신사분들을 배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전보를 들고 저 아이를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답장 비용으로 5실링을 지불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손님들이 떠난 뒤,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흠즈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늘게 뜨고 미간을 찌푸린 채 독한 담배를 피워댔다. 그는 특유의 열띤 모습으로 고개를 앞으로 쭉 내밀고 있었다.

“자, 왓슨.” 그가 갑자기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자네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스콧 에클스의 이 수수께끼 같은 행동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군.”

“하지만 범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그 남자의 동료들이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법의 심판을 피해 도망쳤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이상한 일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하필 손님이 찾아온 바로 그날 밤에, 하인 두 명이 공모하여 주인을 공격하다니 말입니다. 그들은 일주일 중 다른 날이면 언제든지 주인을 홀로 두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도망친 겁니까?”

“맞습니다. 그들이 왜 도망쳤을까요? 거기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의뢰인인 스콧 에클스 씨가 겪은 놀라운 경험이지요. 자, 친애하는 왓슨, 이 두 가지 커다란 사실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세우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 불가능한 일일까요? 만약 그 가설이 아주 기묘한 문구로 쓰인 그 의문의 쪽지 내용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면, 임시 가설로서 받아들일 가치가 충분할 겁니다. 새로 밝혀지는 사실들이 모두 이 계획 안에 맞아떨어진다면, 우리의 가설은 점차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설은 무엇입니까?”

홈즈는 눈을 반쯤 감은 채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이보게, 왓슨. 농담이라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네. 후속 사건이 보여주었듯 당시엔 아주 중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스콧 에클스를 위스테리아 로지로 달래서 데려간 것도 그 사건들과 분명히 연관이 있었네.”

“하지만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봅시다. 젊은 스페인 신사와 스콧 에클스의 이 기묘하고 갑작스러운 친분은 겉보기에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습니다. 관계의 속도를 몰아붙인 쪽은 스페인 신사 쪽이었죠. 그는 처음 만난 바로 다음 날, 런던 반대편에 있는 에클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에클스를 에서까지 데려갈 때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지요.

자, 그렇다면 그는 에클스에게서 무엇을 원했을까요? 에클스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이였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에게는 딱히 매력적인 구석이 없습니다. 특별히 지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눈치 빠른

라틴계 사람과 마음이 잘 맞을 법한 성격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가르시아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에클스를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상대로 낙점했을까요? 그에게 무슨 특별한 자질이라도 있는 걸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는 전형적인 영국식 신사의 품격을 갖춘 인물입니다. 다른 영국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증인으로서 아주 완벽한 표본이죠. 경위들이 그의 진술이 아무리 비상하더라도 감히 의심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당신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가 대체 무엇을 목격했다는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다르게 흘러갔더라면 모든 것이 바뀌었을 거야. 나는 이 사건을 그렇게 읽고 있네.”

“그렇군요. 그가 알리바이가 되어줄 수도 있었겠네요.”

“정확하네, 여보게 왓슨. 그가 알리바이가 되어줄 수도 있었지. 논의를 위해 가정해 보세나. 위스테리아 로지의 가솔들이 어떤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고 치자고. 그 음모가 무엇이든 간에, 적어도 1시 전에는 실행되어야 한다고 가정해 보세. 시계를 조작한다면 스콧 에클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게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테니까. 하지만 어쨌든 가르시아가 굳이 애써서 그에게 1시라고 말했을 때, 실제 시간은 12시를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네. 가르시아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언급된 시간까지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는 어떤 비난에도 맞설 강력한 답변을 갖게 되는 셈이지. 결점 하나 없는 이 영국

신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내 집에 있었다고 증언해 줄 테니까 말이야. 최악의 상황을 막아줄 보험이었던 셈이지.”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라진 겁니까?”

“아직 사실관계를 전부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결하지 못할 난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군요. 그래도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을 제멋대로 비틀어 자신의 이론에 끼워 맞추게 되니까요.”

“메시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쪽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지? ‘우리 팀 색깔, 초록색과 흰색.’ 경마 이야기처럼 들리는군. ‘초록색은 열려 있고, 흰색은 닫혀 있다.’ 이 건 분명한 신호야. ‘본관 계단, 첫 번째 복도, 오른쪽으로 일곱 번째, 초록색 천.’ 이 건 밀회 장소를 알려주는 거군. 이 모든 일의 끝에는 질투에 눈먼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분명 위험한 임무였을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가 ‘행운을 빌며(Godspeed)’라는 말을 남기지는 않았겠지. ‘D’—이 글자가 길잡이가 될 거야.”

“그 남자는 스페인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D’는 돌로레스라는 이름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서 흔히 쓰이는 여자 이름이지요.”

“좋네, 왓슨. 아주 훌륭한 추리였어.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네. 스페인 사람이라면 스페인 사람에게 스페인어로 편지를 썼겠지. 이 쪽지

를 쓴 사람은 분명 영국인이네. 뭐, 이 유능한 경위가 돌아올 때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군. 그동안은 우리를 구원해 준 운명에 감사해야겠어. 지루함이 주는 참을 수 없는 피로로부터, 우리를 몇 시간 동안이나 해방해 주었으니 말이야.”

서리에서 온 경위가 돌아오기도 전에 홈즈가 보낸 전보에 답장이 도착했다. 홈즈는 답장을 읽고 나서 수첩에 끼워 넣으려 했다. 그러다 내 얼굴에 서린 기대감을 눈치챘는지,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내 쪽으로 답장을 휙 던졌다.

“우리가 꽤 높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군.” 그가 말했다.

전보에는 이름과 주소가 적힌 명단이 담겨 있었다.

해링비 경, 딕글; 조지 포리엇 경, 옥쇼트 타워; 하인스 하인스 치안 판사, 퍼들 플레이스; 제임스 베이커 윌리엄스 씨, 포튼 올드 홀; 헨더슨 씨, 하이 게이블; 조슈아 스톤 목사, 네더 윌슬링.

“우리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아주 명백한 방식이군요.” 홈즈가 말했다.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베인스라면, 틀림없이 이미 이와 비슷한 계획을 세워두었을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군요.”

“자, 이보게. 가르시아가 저녁 식사 중에 받은 메시지는 만남을 약속하는 암호라는 결론에 이미 도달했네.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본관 계단을 올라 복도에 있는 일

곱 번째 문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지. 그렇다면 그 집은 아주 커야만 하네. 또한 그 집은 옥쇼트에서 1, 2마일 이내에 있을 것이 분명해. 내가 파악한 사실에 따르면, 가르시아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거든. 게다가 그는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해 위스테리아 로지로 제시간에 돌아오길 바랐네. 그 알리바이는 1시까지만 유효했으니까 말이야. 옥쇼트 근처에 대저택이 그리 많지 않을 테니, 나는 스콧 에클스가 언급한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연락해 명단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했네. 여기 전보에 그 명단이 있네. 우리가 얹혀 있는 실타래의 끝은 분명 이들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있을 거야.”

베인스 경위를 동행하여 서리주의 아름다운 마을 에서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6시가 다 된 시각이었다.

홈즈와 나는 그날 밤 머물 곳을 정했고, 불(Bull) 호텔에서 편안한 숙소를 구했다. 마침내 우리는 경위와 동행하여 위스테리아 로지로 향했다. 3월의 저녁은 차갑고 어두웠다. 매서운 바람과 함께 가랑비가 얼 굴을 때렸다. 그 황량한 황무지를 가로질러 비극적인 목적지로 향하는 우리의 길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날씨는 없을 듯했다.

2. 산 페드로의 호랑이

한두 마일가량을 걷는 동안 날씨는 춥고 분위기는 우울했다. 마침내 우리는 높은 나무 대문에 다다랐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밤나무가 늘 어선 어두운 가로수길이 나타났다. 굽이진 길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길 끝에는 낮고 어두운 집 한 채가 있었다. 낡은 하늘을 배경

으로 서 있는 집은 마치 칠흑처럼 검게 보였다. 문 왼쪽의 앞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가냘프게 새어 나오고 있었다.

“순경 한 명이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베인즈가 말했다. “제가 창문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그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더니 유리창을 손으로 툭툭 두드렸다. 뿌영게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벽난로 옆 의자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어 방 안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잠시 후, 창백한 얼굴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경찰관이 문을 열고 나타났다. 떨리는 손에 들린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월터스?” 베인즈가 날카롭게 물었다.

남자는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내더니,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와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선생님. 긴 밤을 보냈더니 이제는 기운이 다 빠져서, 예전만큼 담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군요.”

“월터스, 배짱도 좋군. 자네에게 그런 배짱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게 말입니다, 선생님. 이 적막하고 고요한 집 분위기에, 주방에서 일어난 그 기묘한 일까지 겹치니 말이죠. 그러다 선생님께서 창문을 두드리시기에, 그놈이 다시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그게 또 다시 찾아왔단 말인가?”

“제가 알기로는 악마였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창가에 있었거든요.”

“창가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히 두 시간 전쯤이었습니다. 빛이 막 사그라들 무렵이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개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문 아래쪽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의 얼굴이 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선생님, 정말이지 끔찍한 얼굴이었습니다! 꿈에 나올까 무섭습니다.”

“이보게, 월터스. 순경이 할 법한 말은 아니지 않은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압니다. 하지만 너무 놀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정해도 소용없겠지요. 그건 검은색도 아니었고, 흰색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색 중에는 없었습니다. 마치 진흙에 우유를 한 방울 섞은 듯한 기묘한 색이었습니다. 크기도 엄청났습니다. 선생님 것보다 두 배는 더 컸단 말입니다. 게다가 그 모습은 또 어땠고요. 커다란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는데, 굵주린 짐승처럼 하얀 이빨이 줄지어 보였습니다. 정말이지, 그놈이 획 사라져 버릴 때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놈이 사라지자마자 덩불 사이를 뚫고 정신없이 뛰쳐나왔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아무도 없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월터스, 자네가 선량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이번 일로 자네를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찍었을 걸세. 설령 상대가 악마

라 할지라도, 근무 중인 경찰관이라면 그를 붙잡지 못한 것을 두고 결코 신께 감사해서는 안 되는 법이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게 환각이나 단순한 신경쇠약 때문은 아니겠지?”

“그건 적어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군.”

홈즈가 작은 휴대용 랜턴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그는 폴밭을 잠시 살피더니 이내 보고하듯 덧붙였다.

“그래, 이건 12사이즈 구두야. 만약 이 사람의 신체 비율이 발 크기에 맞춰져 있다면, 분명 거인임이 틀림없겠어.”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목 숲을 헤치고 나와 도로 쪽으로 달려간 모양이군.”

“글쎄요.” 경위가 엄숙하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자가 누구였든, 무엇을 원했든 간에 일단 지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처리해야 할 급한 일들이 더 많고요. 자, 홈즈 씨, 괜찮으시다면 제가 집 안을 안내해 드리지요.”

여러 침실과 거실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세입자들은 짐을 거의, 혹은 아예 가져가지 않은 듯했다. 아주 작은 소품부터 가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기류는 집과 함께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하이 홀본에 있는 '마르크스 상점'의 낙인이 찍힌 옷가지들도 꽤 많이 남아 있었다. 전보를 보내 문의해 보니, 마르크스 측에서는 그 고객이 대금을 잘 치르는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개인 소지품으로는 잡동사니 몇 가지와 파이프, 소설책 몇 권(그중 두 권은 스페인어였다), 구식 편파이어 권총 한 자루, 그리고 기타 한 대가 발견되었다.

“이 모든 것 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인즈가 촛불을 손에 들고 방마다 성큼성큼 드나들며 말했다. “하지만 흠즈 씨, 이제 주방을 한번 봐 주시지요.”

집 뒤편에 자리한 그 방은 천장이 높고 침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한쪽 구석에는 짚을 깔아 만든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요리사가 잠을 자는 용도로 쓰는 듯했다. 탁자 위에는 어젯밤 저녁 식사가 남긴 흔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먹다 남은 음식과 지저분한 접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것 좀 보게.” 베인즈가 말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는 찬장 뒤편에 놓인 기이한 물건 앞으로 촛불을 가져갔다. 그것은 너무나 주름지고 찌그러든 데다 말라비틀어져 있어서, 원래 무엇이었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웠다. 그저 검고 가죽 같은 질감이며, 난쟁이 같은 사람 형상을 닮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다. 처음 그것을 살펴보았을 때 나는 미라가 된 흑인 아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이내 뒤틀린 모습의 아주 오래된 원숭이처럼 보이기도 했다. 결국 그것이 동물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물건의 중앙에는 흰 조개껍데기가 두 줄로 엮여 있었다.

“아주 흥미롭군. 정말이지 아주 흥미로워!” 홈즈가 그 불길한 유물을 유심히 살피며 말했다. “더 볼 건 없나?”

베인즈는 말없이 싱크대 쪽으로 앞장서며 촛불을 내밀었다. 싱크대 주변에는 깃털이 채 다 빠지지도 않은 커다란 흰 새의 사체가 처참하게 찢긴 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홈즈는 잘려 나간 머리에 달린 육수(肉垂)를 가리켰다.

“흰 수탉이라니요.” 그가 말했다. “정말 흥미롭군요! 참으로 기묘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베인즈 씨는 가장 불길한 증거물을 마지막까지 아껴두고 있었다. 그는 싱크대 밑에서 피가 담긴 아연 양동이를 꺼내 왔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놓인 쟁반을 집어 들었는데, 그 위에는 검게 탄 작은 뿔조각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무언가가 죽었고, 무언가가 타버렸습니다. 저희가 불 속에서 이것들을 다 긁어모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 말로는 이것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맞비벼 문질렀다.

“경위님, 이토록 독특하고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을 해결하셨으니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경위님의 능력은 현재 말고 계신 직무보다 훨씬 뛰어나 보입니다.”

베인즈 경위의 작은 눈이 즐거운 듯 반짝였다.

“흠즈 씨,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변두리에서 정체되어 있어요. 이런 사건이야말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법이지요. 저도 그 기회를 꼭 잡고 싶군요. 그런데 이 뼈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린 양이나, 아니면 새끼 염소라고 해야겠군.”

“그럼 흰 수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흥미롭군요, 베인즈 씨. 아주 흥미로워요.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 집에는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는 괴상한 사람들이 살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중 한 명은 죽었고요. 동행했던 이들이 그를 뒤쫓아 살해한 걸까요? 만약 그랬다면 범인들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모든 항구가 감시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네, 선생님. 제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그렇다면, 가설이라도 세운 건가?”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흠즈 씨. 그래야 제 공으로 온전히 남을 테니까요. 당신의 명성은 이미 자자하지만, 제 이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시다. 나중이라도 당신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사건을 풀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흠즈가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자, 경위님.” 그가 말했다. “경위님은 경위님의 길을 가십시오. 저 도 제 길을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결과물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기꺼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보고 싶은 건 다 본 것 같군요. 이제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유익할 듯합니다. 그럼, 또 만납시다. 행운을 빕니다!”

나 말고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을 법한 수많은 미세한 징후를 통해, 나는 홈즈가 결정적인 단서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평소처럼 무심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반짝이는 눈빛과 평소보다 기민해진 태도에는 억눌린 열정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분명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내게 알려주는 신호였다.

홈즈는 평소 습관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내 습관에 따라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 집중력 높은 두뇌를 불필요한 방해로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이 흥미진진한 추적에 동참하고 미천한 도움이라도 보태는 것으로 충분했다. 모든 사실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게 밝혀질 터였다.

나는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실망감만 깊어질 뿐,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하루하루가 지나갔지만 내 친구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시내에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나가는 말로 듣기로는 그가 대영박물관에 다녀왔다고 했다. 그 한 번의 외출을 제외하면, 그는 주로 홀로 긴 산책을 즐기거나 그가 알고 지내는 마을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왔슨, 자네에게는 시골에서의 일주일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걸세.”
홈즈가 말했다. “울타리 사이로 돌아나는 첫 초록 싹과 개암나무에 다시 피어난 꽃차례를 보는 건 아주 즐거운 일이지. 작은 삽과 통 하나, 그리고 식물학 입문서만 있으면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네.”
홈즈 자신도 직접 이런 장비들을 챙겨 들고 돌아다니곤 했지만, 저녁 무렵 그가 가져오는 식물들은 늘 보잘것없는 수준이었다.

산책을 하던 중 베인즈 경위를 가끔 마주치기도 했다. 그는 내 동행인에게 인사를 건네며 탐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럴 때면 살집 있는 붉은 얼굴이 웃음으로 가득 찼고 작은 눈은 번뜩였다. 그는 사건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그 역시 상황이 돌아가는 모양새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범죄가 발생하고 닷새쯤 지났을 때, 나는 아침 신문을 펼쳐 들고는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신문에는 커다란 활자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옥스훗의 미스터리: 해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체포

내가 신문 헤드라인을 읽어 내려가자, 홈즈는 마치 벌에 쏘인 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세상에!” 그가 외쳤다. “설마 베인스가 그를 붙잡았다는 말인가?”

“겉보기에는 그렇군요.” 나는 뒤이어 나오는 보고서를 읽으며 말했다.

어젯밤 늦게 옥쇼트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에셔와 인근 지역은 큰 술렁임에 휩싸였다. 기억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위스테리아 저택의 가르시아 씨가 옥쇼트 공유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바 있다. 그의 시신에는 극심한 폭행을 당한 흔적이 역력했다. 사건 당일 밤, 그의 하인과 요리사가 도주했는데, 이는 그들이 범행에 가담했음을 시사하는 듯 보였다. 고인이 저택에 귀중품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를 훔치려다 범행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제기되었으나 증명되지는 않았다.

사건을 맡은 베인스 경위는 도망자들이 숨어든 곳을 찾아내려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도망자들이 멀리 가지 않고, 미리 준비해 둔 은신처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덤미를 잡힐 것이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자명했다. 창문을 통해 요리사를 언뜻 본 한두 명의 상인들에 따르면, 그 요리사는 매우 눈에 띄는 외모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는 황색 빛이 도는 전형적인 흑인 형질의 이목구비를 가진, 거구의 흥측한 혼혈인이었다.

이 남자는 범행 이후에도 목격되었다. 사건 당일 저녁, 그가 뻔뻔하게도 위스테리아 저택을 다시 찾아왔다가 월터스 순경에게 발각되어 추격당했기 때문이다. 베인스 경위는 그가 다시 저택을 방문하는 데 분명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저택을 비워두는 대신 관목 숲에 매복 명령을 내렸다. 남자는 결국 함정에 빠졌다. 어젯밤, 그는 격렬히 저항했으나 붙잡히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다우닝 순경이 이 야만적인 남성에게 심하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치안 판사 앞에 세울 때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번 체포로 사건이 크게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당장 베인스 경위를 만나야 하네.” 홈즈가 모자를 집어 들며 외쳤다. “그가 출발하기 전에 서둘러야 해.” 우리는 마을 거리를 따라 서둘러 달려갔다. 예상대로, 경위는 막 숙소를 나서려던 참이었다.

“홈즈 씨, 신문 보셨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신문 한 부를 내밀며 물었다.

“그렇네, 베인스. 나도 봤네. 친구로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하나 하려는 것이니, 결례라고 생각하지 말아주게.”

“경고라니요, 홈즈 씨?”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지만, 당신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군요. 확실하지 않다면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홈즈 씨.”

“정말이지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베인스 씨의 그 작은 눈 중 하나가 아주 잠깐, 마치 윈크라도 하듯 파르르 떨린 것 같았다.

“우리는 각자 맡은 방식대로 일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홈즈 씨. 지금 저는 그저 제 방식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 아주 좋군요.” 홈즈가 말했다. “제 탓을 하지는 마십시오.”

“아닙니다, 선생님. 저를 해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홈즈 씨, 사람마다 각자 자신만의 방식이 있는 법이지요. 선생님께서 선생님만의 방식이 있듯, 저에게도 저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일은 이제 그만 이야기합시다.”

“제 소식은 언제든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 친구는 그야말로 야수예요. 짐마차 끄는 말처럼 힘이 장사인 데다 악마처럼 사납기까지 하지요. 사람들이 그를 제압하기도 전에 다우닝의 엄지손가락을 거의 물어 뜯어 놓을 정도였습니다. 영어는 거의 한마디도 못 해서, 끔끔거리는 신음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캐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죽은 주인을 살해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홈즈 씨.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방식이 있는 법이지요. 당신은 당신의 방식을 쓰고, 나는 내 방식을 쓰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함께 걸음을 옮길 때, 홈즈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 마치 스스로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같아. 뭐, 본인 말대로 각자 방식대로 해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베인스 경위에게는 내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

“자, 왔슨, 저 의자에 앉게나.”

불(Bull) 호텔의 우리 숙소로 돌아왔을 때, 설록 홈즈가 말했다.

“오늘 밤 자네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니, 현재 상황을 미리 알려 주고 싶네. 내가 지금까지 파악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설명해 주겠네. 사건의 주요 줄거리는 단순하지만,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네. 아직 메워야 할 공백이 남아 있는 셈이지.”

“가르시아가 사망하던 날 저녁, 그에게 전달된 쪽지로 다시 눈을 돌려봅시다. 가르시아의 하인들이 이 일에 연루되었다는 베인스의 가설은 일단 접어두기로 하죠. 그 주장이 틀렸다는 증거는 명확합니다. 스콧 에클스를 불러오도록 미리 손을 써둔 사람이 바로 가르시아 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서야 그런 행동을 했을 리 없습니다. 결국 그날 밤, 죽음을 맞이하게 된 위험한 계획, 아니 범죄에 가까운 일을 꾸민 당사자는 가르시아 본인이었습니다. 제가 ‘범죄’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은 오직 범죄를 계획 중인 자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의 목숨을 앗아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당연히 그 범죄의 표적이 되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제 추론이 확실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가르시아의 가솔들이 왜 사라졌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군요. 그들은 모두 정체를 몰래 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이었습니다. 만약 가르시아가 돌아온 뒤에 범행이 성공했다면, 영국인이 제공한 증거 덕분에

에 의심을 피하고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만약 가르시아가 정해진 시간까지 돌아오지 못했다면, 아마 가르시아 본인의 목숨이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겠지요. 그래서 만약 그런 상황이 닥칠 경우를 대비해, 그의 부하 두 명은 미리 약속한 장소로 도망치기로 계획했던 겁니다. 그곳이라면 조사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범행을 시도할 수 있는 위치였을 테니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모든 사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설명할 길 없는 그 모든 엉킨 실타래가 내 눈앞에서 일순간 풀리는 듯했다. 나는 늘 그렇듯, 왜 진작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졌다.

“그런데 왜 하필 하인 한 명만 돌아온 겁니까?”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차마 두고 갈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매달리는지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다음 단계는 가르시아가 만찬 중에 받은 쪽지입니다. 이 쪽지는 상대방에게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다면 그 상대방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이미 그곳이 대저택일 수밖에 없으며, 그런 대저택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마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식물학 연구를 병행하며 마을 곳곳을 산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대저택을 정찰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가게까지 낱낱이 조사했지요. 그러던 중 단 한 곳, 오직 한 저택만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하이 게이블에 있는 유명한 야코비안 양식의 오래된 농가입니다. 옥쇼트 너머로 1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비극이 일어난 현장에서는 0.5마일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있지요.

다른 저택들은 낭만과는 거리가 먼, 평범하고 점잖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이 게이블의 헨더슨 씨는 세간의 평에 따르면 기이한 인물이었고, 그에게는 기묘한 사건이 닥칠 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그의 집안에 모든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부류의 사람들이네, 왓슨. 그중에서도 그 사내만큼은 단연 독보적일 정도로 기이해. 그럴싸한 구실을 대서 겨우 만날 수 있었지만, 그 검고 깊게 파인 우울한 눈빛을 보니 내 진짜 목적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네. 그는 쉰 살 정도 되어 보이는 강건하고 활동적인 사내로, 철빛이 도는 회색 머리에 질고 뭉쳐 있는 검은 눈썹을 가졌더군. 사슴처럼 가벼운 발걸음과 황제 같은 풍채를 지녔는데, 마치 양피지처럼 메마른 얼굴 뒤에 불꽃 같은 기질을 숨긴 사납고 위엄 있는 인물이었네. 피부색이 노랑고 생기가 없어 보이는 걸 보니 외국인이거나 열대 지방에서 오래 살았던 모양인데, 채찍 줄처럼 아주 질긴 사람 이야. 그의 친구이자 비서인 루카스 씨는 의심할 여지 없이 외국인이네. 초콜릿빛 피부에 교활하고 매끄러운 태도를 지녔는데, 마치 고양이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독을 품은 듯한 말투를 쓰더군. 자네도 알다시

피 왓슨, 우리는 이미 위스테리어 저택과 하이 게이블에서 두 부류의 외국인 집단을 마주쳤네. 이제 퍼즐의 빈틈이 메워지기 시작하고 있어.”

"이 두 남자는 매우 가깝고 신뢰하는 사이로, 이 집안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대상은 이들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입니다. 헨더슨에게는 열한 살과 열세 살 된 두 딸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가정교사는 마흔 살쯤 된 영국인 버넷 양입니다. 또한 신뢰를 받는 개인 하인도 한 명 있습니다. 이 작은 무리가 사실상 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은 늘 함께 여행을 다니는데, 헨더슨은 항상 이동하며 생활하는 대단한 여행가이기 때문입니다. 헨더슨이 1년 동안 집을 비우다 하이 게이블로 돌아온 것은 불과 몇 주 전의 일입니다. 덧붙이자면 그는 엄청난 자산가로, 어떤 번덕을 부리더라도 아주 손쉽게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그의 저택에는 집사, 하인, 하녀들이 가득하며, 영국의 대저택에서 흔히 볼 수 있듯 일은 적게 하고 먹기만 잘하는 직원들이 즐비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뒷소문과 제 관찰을 통해 얻은 정보가 꽤 됩니다. 원한을 품고 해고된 하인들만큼 훌륭한 정보원은 없지요. 다행히 저는 그런 사람을 찾아낼 운이 있었습니다. 운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제가 미리 주의를 기울여 찾고 있지 않았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정보입니다. 베인즈가 말했듯, 사람마다 저마다의 방식이 있는 법이니까요.

하이 게이블의 전직 정원사였던 존 워너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저만의 방식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오만한 고용주에게 화김에 해고당한 처지였죠. 워너에게는 주인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공유하는 집안 하인들이 친구로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저택의 비밀을 파헤칠 열쇠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사람들이네, 왓슨! 아직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주 기묘한 사람들이야. 집은 날개 모양으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한쪽에는 하인들이 살고 다른 한쪽에는 가족들이 살고 있네. 헨더슨의 개인 하인이 가족들의 식사를 챙기는 것 말고는 두 구역을 잇는 통로가 전혀 없어. 모든 물건은 특정 문 하나를 통해서만 전달되는데, 그 문이 유일한 연결 통로라네. 가정교사와 아이들은 정원에 나가는 것 외에는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지. 헨더슨 역시 절대로 혼자 걷는 법이 없네. 그의 검은 머리 비서가 마치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니거든. 하인들 사이에서는 주인님이 무언가를 몹시 두려워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네. 워너의 말에 따르면, ‘돈을 대가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고, 이제 채권자가 나타나 값을 치르라고 할까 봐 겁에 질려 있다’더군.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이야. 헨더슨은 벌써 두 번이나 사람들을 개채찍으로 휘둘렀는데, 두툼한 지갑과 막대한 보상금 덕분에 겨우 범망을 피하고 있는 상태라네.”

“자, 왓슨. 이제 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해 보세. 이 편지는 그 기묘한 집안에서 나온 것이고, 가르시아에게 이미 계획된 어떤 시도를 실행하라는 초대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 그럼 이 쪽

지를 누가 썼을까? 성채 안의 누군가, 그것도 여성이었네. 그럼 가정교사인 버넷 양 말고 또 누가 있겠나? 우리의 모든 추론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네. 어쨌든 이것을 하나의 가설로 세워두고, 이 가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지켜보도록 하세. 덧붙이자면, 버넷 양의 나이와 성품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연애 감정이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나의 첫 번째 생각은 애초에 고려할 가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네.”

“만약 그녀가 그 쪽지를 썼다면, 가르시아의 친구이자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그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가 어떤 불법적인 일을 벌이다 죽었다면,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를 죽인 자들에 대한 원한과 증오를 품고 있을 것이고, 아마도 복수를 돕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녀를 찾아내어 이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이 제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길한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버넷 양은 살인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이후로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습시다. 그날 저녁 이후로 그녀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시다. 그녀는 살아 있을까요? 어쩌면 그녀가 불러낸 그 친구와 같은 날 밤에 목숨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아직 결론을 내려야 할 핵심입니다.”

“왔슨, 상황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자네도 알게 될 걸세. 영장을 신청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거든. 치안 판사에게 이 계획을 그대로 말한다

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치부할 게 분명해. 여인이 사라진 것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네. 그 기묘한 저택의 분위기를 보면, 구성원 중 누군가가 일주일 동안 종적을 감춘다 해도 이상할 게 없으니까. 하지만 그 여인이 지금 이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저택을 감시하면서, 내 요원인 워너를 대문에 배치해 경계를 서게 하는 것뿐이라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 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직접 위협을 무릅써야 하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녀의 방이 어디인지 압니다. 바깥 창고 꼭대기를 통해 들어갈 수 있더군요.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직접 가서 이 미스터리의 핵심을 꿰뚫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리 달가운 전망은 아니었다. 살인 사건의 기운이 감도는 낡은 저택, 기이하고도 위압적인 거주자들, 접근하는 길목에 도사린 알 수 없는 위험들까지. 게다가 우리가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사실도 내 의욕을 꺾어 놓았다. 하지만 홈즈의 얼음처럼 차가운 논리에는, 그가 원하는 모험이라면 그 무엇이랄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오직 그런 방식만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침묵 속에 그의 손을 맞잡았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지만 우리의 조사가 이토록 모험적인 결말을 맞이할 운명은 아니었다. 3월의 어느 저녁, 다섯 시쯤 되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

작할 무렵이었다. 한 흥분한 기색의 시골 사람이 우리 방으로 급히 뛰어 들어왔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홈즈 씨. 마지막 열차를 타고 갔어요. 부인께서는 급히 자리를 뜨셨고, 지금은 제가 부인을 모시고 아래층 마차에 있습니다.”

“훌륭해, 워너!” 홈즈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왓슨, 빈틈이 빠르게 메워지고 있어.”

마차 안에는 신경쇠약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인이 타고 있었다. 매부리코에 수척한 그녀의 얼굴에는 최근 겪은 비극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는 힘없이 가슴팍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흐릿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는데, 넓고 회색빛인 홍채 한가운데에 검은 눈동자가 점처럼 박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아편에 취해 있었다.

“홈즈 씨, 조언하신 대로 대문 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해고된 정원사인 우리의 전령이 말했다. “마차가 나오길래 역까지 뒤를 쫓았지요. 여인은 마치 잠결에 걷는 사람처럼 멍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녀를 기차에 태우려 하자,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격렬히 저항하더군요. 사람들이 그녀를 억지로 마차 안으로 밀어 넣었지만, 그녀는 다시 몸부림치며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를 도와 택시에 태워 이곳까지 모셔왔습니다. 그녀를 데리고 떠날 때 마차 창문 너머로 보았던 그 남자의 얼굴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놈 뜻대로만 됐다

면 제 명은 아주 짧았을 겁니다. 검은 눈에 험상궂은 표정을 지은, 그 노란 얼굴의 악마 같은 놈 말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부축해 위층으로 옮긴 뒤 소파에 눕혔다. 곧이어 아주 진하게 탄 커피를 두어 잔 마시게 하자, 약 기운에 몽롱했던 정신이 서서히 돌아왔다. 홈즈가 불러온 베인즈가 도착했고, 우리는 그에게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다.

“아니, 선생님! 바로 제가 찾던 증거를 가져다주셨군요.” 경위는 내 친구의 손을 맞잡으며 반갑게 말했다. “처음부터 저도 선생님과 같은 단서를 쫓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헨더슨을 쫓고 있었다고요?”

“아니, 홈즈 씨. 당신이 하이 게이블의 관목 사이를 기어 다닐 때, 나는 저기 숲속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래에 있는 당신을 보고 있었다고요. 그저 누가 먼저 증거를 확보하느냐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혼혈인을 체포한 겁니까?”

베인즈가 껄껄 웃었다.

“본인이 헨더슨이라고 자칭하는 그자가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고 느꼈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몸을 낮추고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저는 그자가 우리 눈을 피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려고 일부러 엉뚱한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

렇게 하면 그자가 방심하고 자리를 뜨려 할 것이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버넷 양에게 접근할 기회가 될 거라 판단했으니까요.”

홈즈가 경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네는 직업적으로 크게 성공할 거야. 본능과 직관이 아주 뛰어나거든.” 그가 말했다.

베인스는 기쁨으로 얼굴을 붉혔다.

“일주일 내내 사복 형사를 역에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하이 게이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눈앞에서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버넷 양이 도망쳤을 때는 형사도 꽤 애를 먹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당신이 보낸 사람이 그녀를 찾아냈으니,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된 셈이지요. 그녀의 증언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 가능한 한 빨리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운을 차리는군요.” 홈즈가 가정교사를 힐끗 보며 말했다. “그건 그렇고 베인스 씨, 이 헨더슨이라는 남자는 대체 누구입니까?”

“헨더슨은 돈 무리요입니다.” 경위가 대답했다. “한때 산 페드로의 호랑이라 불리던 자지요.”

산 페드로의 호랑이! 그 남자에 관한 모든 내력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문명국이라는 허울을 내세우며 나라를 다스린 통치자 중 가장 음탕하고 잔인한 폭군으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었다. 그

는 강인하고 두려움이 없었으며 추진력도 대단했다. 덕분에 그는 10년에서 12년 동안이나 겁에 질린 백성들에게 자신의 혐오스러운 악습을 강요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중앙아메리카 전역에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 통치 기간이 끝날 무렵, 그를 몰아내려는 거대한 봉기가 일어났다. 하지만 그는 잔인한 만큼이나 교활했다. 불길한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자마자, 그는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이 탄 배에 자신의 보물을 몰래 실어 옮겼다. 다음 날 반란군이 습격한 곳은 텅 빈 궁전뿐이었다. 독재자와 그의 두 자녀, 비서, 그리고 막대한 재산은 모두 반란군의 손을 빠져나갔다. 그 순간부터 그는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그의 정체는 유럽 언론에서 자주 회자되는 화젯거리가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산 페드로의 호랑이라 불리는 돈 무리요입니다.” 베인즈가 대답했다. “직접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산 페드로의 상징색은 초록색과 흰색입니다. 흙즈 씨, 메모에 적힌 색깔과 똑같지요. 그자가 스스로를 헨더슨이라고 불렀지만, 제가 그 뒤를 쫓아 파리와 로마, 마드리드를 거쳐 바르셀로나까지 찾아냈습니다. 86년에 그자의 배가 바르셀로나에 들어왔더군요. 그들은 복수를 위해 줄곧 그자를 찾아 헤맸지만, 이제서야 겨우 그자의 정체를 밝혀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를 찾아낸 건 1년 전이었어요.”

대화에 집중하며 몸을 일으켜 앉은 버넷 양이 말했다.

“이미 한 차례 목숨을 노린 자가 있었지만, 어떤 악령이 그를 지켜준 덕분에 살아남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 고결하고 기사도 정신이 투철했던 가르시아가 쓰러지고, 정작 그 괴물 같은 자는 유유히 빠져나갔군요. 하지만 또 다른 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다음에도 또 다른 자가 나타날 겁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만큼이나 그건 확실한 일입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이 짝 맞물렸고, 수척한 얼굴은 증오에 찬 격정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런데 버넷 양, 어쩌다 이 일에 휘말리게 된 겁니까?” 홈즈가 물었다. “영국 여성이 이런 살인 사건에 어떻게 연루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이 일에 동참하는 이유는, 이것 말고는 세상 어디에도 정의를 실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 법이 산 페드로에서 수년 전 흘러진 피의 강을 알게 됩니까? 이자가 훔쳐 간 보물선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당신들에게 그 사건들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일어난 범죄처럼 생소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후안 무리요는 지옥의 악마보다 더한 존재이며, 그의 희생자들이 여전히 복수를 외치고 있는 한 우리에게 평화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군요.” 홈즈가 말했다. “당신 말대로 그런 사람이 있겠지요. 아주 지독한 인물이었다는 이야기는 나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일과 어떻게 얽히게 된 겁니까?”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악당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장차 자신에게 위협적인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인물이라면 누구든 살해하는 것이죠. 제 남편 말입니다. 아, 제 본명은 시노라 빅토르 두란도예요. 남편은 런던 주재 산 페드로 공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만나 결혼했지요. 세상에 그보다 더 고결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무리요가 남편의 훌륭함을 시기해 어떤 핑계를 대고 그를 소환하더니, 결국 총살해 버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는지, 저를 데려가기를 거부했었지요. 남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저는 쥐꼬리만 한 돈과 부서진 마음만을 안고 남겨졌습니다.”

“그 뒤에 폭군이 몰락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설명한 대로 그는 도망쳤지요. 하지만 그에게 삶을 망가뜨린 수많은 사람, 그의 손에 가장 가까운 이들이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이들은 결코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결코 해체되지 않을 비밀 결사를 조직했습니다.

변장한 헨더슨의 모습 뒤에 숨은 몰락한 독재자를 찾아낸 뒤, 저는 그의 저택에 잠입해 다른 단원들에게 그의 동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그 집의 가정교사 자리를 얻어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었지요. 매 끼니 식탁에서 마주하는 여자가, 자신의 손으로 한 시간 만에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남편을 둔 여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아이들을 돌보는 본분을 다하면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파리에서 한 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유럽 전역을 이리저리 빠르게 가로질러 다녔고, 마침내 그가 영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머물렀던 이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정의를 집행하려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산 페드로의 전직 최고 권력자의 아들인 가르시아는 그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가르시아는 신분이 낮은 충직한 동료 두 명과 함께 그를 기다렸는데, 세 사람 모두 복수심이라는 같은 목적을 품고 있었다. 낮 동안에는 가르시아가 손을 쓰기 어려웠다. 무리요가 모든 예방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 같은 루카스, 즉 그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로페즈라 불렸던 자와 동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밖을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혼자 잠을 잤고, 복수자는 그 틈을 노릴 수 있었다.

미리 약속해 둔 어느 저녁, 나는 친구에게 마지막 지시를 전달했다. 무리요는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머무는 방도 끊임없이 바꾸었기 때문이다. 내가 할 일은 문을 열어두는 것이었고, 진입로를 마주 보는 창문에 초록색이나 흰색 불빛을 비추어 모든 상황이 안전한지 아니면 시도를 미루는 편이 나은지를 알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비서인 로페즈의 의심을 샀습니다. 제가 막 쪽지를 다 썼을 때, 그가 제 뒤로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저를 덮쳤습니다. 그와 그의 주인은 저를 방으로 끌고 가서는, 마치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배신자처럼 저를 몰아세웠습

니다. 만약 그들이 범행의 뒷감당을 피할 방법만 알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제 몸에 칼을 꽂았을 겁니다. 한참을 논쟁한 끝에, 그들은 저를 죽이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가르시아를 영원히 제거하기로 결심했지요. 그들은 제 입을 막았고, 무리요는 제가 주소를 말할 때까지 제 팔을 비틀었습니다. 만약 제가 제 행동이 가르시아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알았더라면, 그는 제 팔을 아예 뽑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로페즈는 제가 쓴 쪽지에 주소를 적고 자신의 소매 단추로 봉인한 뒤, 하인 호세에게 시켜 보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를 죽였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로페즈가 저를 감시하느라 남겨져 있었으니, 그를 쓰러뜨린 건 분명 무리요의 손길이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그는 굽이진 길을 따라 자란 가시덤불 사이에 숨어 있다가, 가르시아가 지나갈 때 그를 덮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집 안으로 들여보낸 뒤 들통난 빈집털이범처럼 죽일 생각이었지만, 수사에 휘말리게 되면 자신들의 정체가 즉시 세상에 드러나고 더 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가르시아가 죽으면 다른 이들도 겁을 먹고 일을 포기할 테니, 추적도 멈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들이 저지른 일을 내가 알지만 았았어도, 지금쯤 모든 게 평온했을 겁니다. 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순간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방안에 갇힌 채 끔찍한 협박을 받으며 공포에 떨어야 했고, 제 의지를 꺾으려고 잔인하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제 어깨에 난 이 자상과 팔 전체에 남은 멍자국을 좀 보세요. 창박으로 소리를 지르려 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입에 재갈까지 물렸습니다. 이런 잔혹한 감금 생활

이 닳새 동안 이어졌고, 겨우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음식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오후, 꽤 괜찮은 점심 식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자마자 약을 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반쯤 이끌리고 반쯤 들려 마차로 옮겨졌던 기억이 납니다. 기차에 실릴 때도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기차가 막 움직이려던 찰나, 제 자유가 제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들은 저를 다시 끌고 가려 했습니다. 만약 이 선량한 분이 저를 택시로 안내하며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는 신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제 영원히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숨을 죽였다. 침묵을 먼저 깨뜨린 것은 흠즈였다.

“우리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경찰로서의 업무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법적인 공방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정확합니다.” 내가 말했다. “능수능란한 변호사라면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군요. 그 이면에 수백 가지의 범죄가 숨겨져 있을지언정,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건 결국 이 사건 하나뿐이니깐요.”

“이보게, 진정하게.” 베인즈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법이 그 정도로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않네. 정당방위는 별개의 문제지. 상대방에게 어떤 위협을 느꼈든 간에, 상대를 죽일 목적으로 냉혹하게 유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네. 아니, 아니야. 다음번 길드퍼드 재판에서 하이 게이블의 거주자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 모두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게 될 걸세.”

하지만 산 페드로의 호랑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응보를 받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이는 이미 역사가 된 사실이다. 교활하고 대담했던 그와 그의 동행은 에드먼턴 가의 한 숙박업소로 들어갔다가 뒷문을 통해 커존 광장으로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추격자의 눈을 따돌렸다. 그날 이후, 영국에서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약 6개월 뒤, 마드리드의 에스쿠리알 호텔에 머물던 몬탈바 후작과 그의 비서 롤리 씨가 각자의 방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이 범죄는 허무주의자들의 소행으로 결론지어졌으나, 범인들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얼마 후, 베이커가에 있는 우리를 찾아온 베인즈 경위는 비서의 어두운 인상이 담긴 인쇄물과, 후작의 강렬한 이목구비, 매혹적인 검은 눈동자, 그리고 짙은 눈썹이 그려진 인쇄물을 보여주었다. 정의의 실현이 비록 늦었을지언정,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믿을 수 있었다.

“아주 혼란스러운 사건이라네, 왓슨.”

저녁 무렵 파이프 담배를 피우던 홈즈가 말했다.

“자네가 좋아하는 그 간결한 방식으로 정리해서 들려주기는 어려울 거야. 이 사건은 두 대륙에 걸쳐 있고, 정체 모를 두 집단이 얽혀 있거

든. 게다가 우리의 친구인 스콧 에클스 씨까지 등장하니 상황이 아주 복잡해졌지. 그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 봐도, 죽은 가르시아라는 인물이 얼마나 교활한 수법을 썼는지, 그리고 자기 보존 본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다네. 수많은 가능성이 정글처럼 뒤엉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능한 협력자인 경위와 함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이 구불구불하고 복잡한 길을 헤매지 않고 따라온 점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혹시 아직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그 혼혈 요리사가 돌아온 목적이 무엇인가?”

“주방에 있던 그 기묘한 존재가 사건의 원인일지도 모르겠군. 그 남자는 산 페드로 오지의 야만인이었는데, 저 물건을 신성시했거든. 동료와 함께 미리 약속한 은신처로 도망쳤을 때, 아마 공범이 이미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겠지. 그때 동료가 그를 설득해서 저렇게 눈에 띄는 가구를 두고 가자고 했을 거야. 하지만 혼혈인의 마음은 여전히 저 물건에 가 있었고, 결국 다음 날 다시 돌아오고 말았지. 창밖을 통해 정찰하던 중 월터스 경관이 저걸 차지하고 있는 걸 발견했을 테니까. 그는 사흘을 더 기다렸다가, 신앙심 때문인지 미신 때문인지 다시 한번 시도하려 했던 거야. 베인스 경위는 특유의 기만함으로 내 앞에서는 이 사건을 별거 아닌 것처럼 넘겼지만, 사실은 그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었어. 그래서 저 괴물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함정을 파둔 거지. 왓슨, 더 궁금한 점 있나?”

“찢겨진 새 사체와 피가 가득 담긴 양동이, 그리고 까맣게 탄 뼈들까지. 그 기괴한 주방에 얹힌 모든 미스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홈즈는 수첩을 넘겨 기록을 찾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문제와 다른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오전 내내 대영박물관에서 자료를 읽었습니다. 여기 에커만(Eckermann)의 저서 『부두교와 흑인 종교』에서 발췌한 구절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두교 신봉자라면 불결한 신들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한 제물 없이는 결코 중요한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인신공양을 치른 뒤 그 시신을 먹는 식인 풍습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보통은 살아있는 수탉의 깃털을 한 올 한 올 뽑아 바치거나, 검은 염소의 목을 베고 그 사체를 불태우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이 야만적인 친구가 의식을 치를 때 아주 정석대로 행동했다는 걸 알겠지. 기괴한 일이야, 왓슨.” 홈즈가 수첩을 천천히 덮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전에도 말했듯이, 기괴함과 공포 사이에는 단 한 걸음의 차이밖에 없네.”

브루스파팅턴호 설계도

브루스파팅턴호 설계도 사건

1895년 11월 세 번째 주, 런던에 짙은 황색 안개가 내려앉았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베이커가에 있는 우리 집 창밖으로 맞은편 집들의 윤곽조차 보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홈즈는 첫날을 자신이 가진 방대한 참고 서적들을 교차 색인하는 데 보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최근 그의 취미가 된 주제, 즉 중세 음악을 연구하며 인내심 있게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의자를 밀어낸 뒤, 네 번째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상황은 달라졌다. 기름지고 무거운 갈색 안개가 여전히 우리 앞을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고, 창유리에는 기름진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참을성 없고 활동적인 내 친구의 성격으로는 이런 단조로운 일상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홈즈는 억눌린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한 채 거실 안을 초조하게 서성거렸다. 손톱을 깨물고 가구를 툭툭 두드리며,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몸을 뒤흔쳤다.

“신문에 흥미로운 소식이라도 없나, 왓슨?” 홈즈가 물었다.

홈즈가 말하는 '흥미로운 일'이란 언제나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뜻한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이나 전쟁의 조짐, 정부가 교체될지도 모른다는 뉴스들이 들려왔지만, 그런 일들은 내 동료의 관심 범위에 들지 못했다. 내가 보기에 신문에 실린 범죄 소식들은 하나같이 흔해 빠졌거나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뿐이었다. 홈즈는 신음 섞인 한숨을 내뿔더니, 다시금 불안한 듯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런던의 범죄자들은 확실히 참으로 둔한 자들이군.”

그는 사냥에 실패한 사냥꾼처럼 투덜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창밖을 보게, 왓슨. 형체들이 어렴풋이 나타났다가 다시 구름 속에 섞여 사라지는 모습이 보이냐? 이런 날이면 도둑이나 살인마가 런던 시내를 마음껏 누빌 수 있네. 마치 정글 속의 호랑이처럼 말이야. 덮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오직 희생자만이 그 존재를 깨닫게 되겠지.”

“자잘한 도난 사건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말했다.

홈즈는 코웃음을 치며 경멸을 드러냈다.

“이 거대하고도 어두운 무대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마련된 것이오.” 그가 말했다. “내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 사회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군.”

“정말 그렇고말고요!” 내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만약 내가 브룩스나 우드하우스, 혹은 내 목숨을 노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저 쉰 명의 사내 중 하나라고 가정해 보세. 내가 나 자신을 추격한다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나? 소환장 한 장이나 가짜 약속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끝나고 말 테니까. 암살이 판치는 라틴 국가들에 안개가 짙게 끼지 않는 게 차라리 다행이라네. 세상에! 드디어 이 지루한 단조로움을 깨뜨릴 무언가가 오고 있군.”

하녀가 전보 한 통을 들고 왔다. 홈즈는 전보를 낚아채듯 뜯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이런! 다음은 또 무엇인가?” 그가 말했다. “마이크로프트 형님이 오신다니 말이야.”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왜 안 되겠나? 마이크로프트는 마치 시골길을 달리는 전차 같네. 자기만의 궤도가 있고, 그 위를 달릴 뿐이지. 펄 몰의 숙소부터 디오게네스 클럽, 화이트홀까지, 그게 바로 그가 움직이는 경로라네. 그는 지금까지 딱 한 번, 정말 단 한 번 이곳에 온 적이 있었네. 도대체 어떤 격변이 일어났기에 그를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그가 설명하지 않던가요?”

홈즈는 형이 보낸 전보를 내게 건네주었다.

“카도건 웨스트 건으로 자네를 만나야겠네. 곧 가겠네.” 마이크로프트.

“카도건 웨스트요? 들어본 이름이군요.”

“기억나는 게 없군. 하지만 마이크로프트가 이렇게 변덕스럽게 행동하다니! 행성이 궤도를 이탈하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군. 그나저나, 자네는 마이크로프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

<그리스 통역사 사건>을 다룰 무렵, 나는 어떤 설명에 대해 어렵듯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영국 정부 산하의 작은 관직 하나를 맡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홈즈가 껄껄 웃었다.

“그 시절에는 당신을 아주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논할 때는 말을 아껴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가 영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때때로 곧 영국 정부 그 자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이보게, 홈즈!”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이크로프트는 연간 450파운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하급 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야망도 품지 않고, 명예나 작위도 받지 않지요. 하지만 그는 이 나라에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입니까?”

“글쎄, 그의 입지는 독보적이라네. 스스로 그 자리를 일궈낸 것이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무이한 존재야. 그는 현존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방대한 지식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그 사고 방식 또한 매우 정갈하고 질서 정연하네. 내가 범죄를 추적하는 데 쓰는 그 위대한 능력을, 그는 오로지 이 특정한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 모든 부서의 결론이 그에게 전달되면, 그는 마치 중앙 거래소나 정산소처럼 그 모든 정보를 취합해 최종적인 균형을 맞춘다네. 다른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지만, 그의 전문 분야는 바로 ‘전지(全知)’라네.

예를 들어, 어떤 장관이 해군과 인도, 캐나다, 그리고 금은 본위제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정보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세. 그는 각 부서로부터 개별적인 조언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요소를 하나로 모아 각 요인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즉각적으로 판단해낼 수 있는 사람은 마이크로프트뿐이라네. 처음에는 그저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편의 수단으로 그를 활용하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지. 그의 거대한 두뇌 속에는 모든 정보가 칸칸이 분류되어 있어, 필요할 때마다 즉시 꺼내어 줄 수 있다네. 국가 정책이 그의 말 한마디에 결정된 적도 수없이 많지. 그는 그 업무 속에 살고 있다네. 내가 찾아가 나의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며 지적 유희를 즐기려 할 때를 제외하면, 그는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네.

그런데 오늘, 저 유피테르가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카도건 웨스트라는 자는 누구이며, 마이크로프트와는 어떤 관계인 걸까?”

“찾았다!” 내가 외치며 소파 위에 어지럽게 널린 서류 더미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래, 여기 있어. 정말이야! 카도건 웨스트, 화요일 아침 지하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그 청년이 바로 이 사람이야.”

홈즈는 입술로 가져가던 파이프를 멈춘 채,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다.

“상황이 심상치 않네, 왓슨. 내 형이 평소 습관까지 바꿀 정도라면 결코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는 뜻이야. 도대체 형이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내가 기억하기로 그 사건은 아무런 특징도 없었네. 젊은 남자가 열차에서 떨어져 자살한 것처럼 보였으니까. 강도를 당한 흔적도 없었고, 폭력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지. 내 기억이 틀렸나?”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꽤 많이 밝혀졌지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확실히 기이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형이 보이는 반응을 보니, 분명 보통 사건은 아닐 것 같군.” 홈즈는 안락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말을 이었다. “자, 왓슨. 이제 사실관계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세.”

"그 남자의 이름은 아서 카도건 웨스트였습니다. 나이는 스물일곱 살이었고 미혼이었으며, 올리치 병기창에서 근무하는 사무원이었지요."

"정부 직무라니. 형님인 마이크로프트와 연결되는 지점이군!"

"그는 올리치에서 월요일 밤에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그날 저녁 7시 30분경, 안개 속에서 약혼녀인 바이올렛 웨스트버리 양과 갑자기 헤어질 때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은 없었으며, 그녀 또한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 들려온 소식은, 런던 지하철 알드게이트 역 바로 밖에서 메이슨이라는 이름의 선로 작업원이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언제 말인가?"

"시신은 화요일 오전 6시에 발견되었습니다. 동쪽 방향으로 진행할 때 선로 왼쪽, 철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죠. 위치는 역과 아주 가까운 지점인데, 선로가 터널을 빠져나오는 바로 그곳입니다. 머리는 심하게 짓눌려 있었는데, 열차에서 떨어지면서 입은 부상일 가능성이 큼니다. 시신이 선로 위로 들어온 경로는 오직 이 방법뿐이었을 겁니다. 만약 인근 거리에서 시신을 옮겨온 것이라면, 매번 검표원이 지키고 서 있는 역 개찰구를 반드시 지나야 했을 테니까요. 이 점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좋네. 사건의 윤곽은 충분히 잡혔어. 죽었든 살았든, 그 남자는 열차에서 떨어졌거나 누군가에 의해 밀려난 게 분명해. 이 점만큼은 확실하군. 계속하게.”

“시신이 발견된 선로를 지나는 열차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노선입니다. 일부는 메트로폴리탄 선로를 이용하고, 일부는 월레스턴이나 그 외곽의 분기점을 거쳐 옵니다. 이 청년이 사망할 당시, 늦은 밤이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열차에 올라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승차권만 확인해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티켓이 한 장도 들어 있지 않았다.”

“표가 없다고요! 이런, 왓슨. 이건 정말이지 아주 기이한 일이군요. 제 경험상 표를 보여주지 않고는 메트로폴리탄 열차 승강장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에게도 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숨기려고 누군가 표를 빼앗은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아니면 객차 안에서 떨어뜨린 걸까요? 그것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강도 사건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면서요?”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유품 목록이 있습니다. 지갑 안에는 2파운드 15실링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캐피털 앤 카운티스 은행 울위치 지점의 수표책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수표책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날씨가 적힌 울위치 극

장의 드레스 서클 좌석 티켓 두 장도 있었습니다. 기술 서류가 담긴 작은 꾸러미도 하나 있었습니다.”

홈즈가 만족스러운 듯 감탄사를 내뱉었다.

“드디어 찾아냈군, 왓슨! 영국 정부, 윌위치 병기창, 기술 문서, 그리고 형님인 마이크로프트까지. 이제 모든 고리가 연결되었어. 그런데 내 짐작이 맞다면, 저기 본인이 직접 설명하러 오고 있군.”

잠시 후,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한 마이크로프트 홈즈가 방 안으로 안내되어 들어왔다. 거구에 육중한 체구였기에 언뜻 보기에는 다소 투박하고 움직임이 둔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몸집 위로 솟은 머리는 전혀 다른 인상을 풍겼다. 넓고 위엄 있는 이마, 강철빛이 도는 깊은 눈매는 매우 기민했고, 굳게 다문 입술과 미세하게 변하는 표정은 무척이나 예리했다. 그래서 처음 마주한 순간의 생경함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그의 육중한 몸은 잊은 채 오직 압도적인 지성만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스코틀랜드 야드의 오랜 친구인 레스트레이드가 나타났다. 그는 평소처럼 수척하고 엄격한 모습이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이토록 무거운 것을 보니, 분명 중대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레스트레이드는 아무 말 없이 악수를 건넸다. 마이크로프트 홈즈는 코트를 벗어 던지듯 벗어놓고는 안락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정말이지 성가신 일이네, 셜록.” 그가 말했다. “나는 내 생활 방식을 바꾸는 걸 몹시 싫어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군. 지금 시암의 정세를

생각하면 내가 사무실을 비우는 게 무척 곤란한 상황이야. 하지만 정말 위기라네. 총리가 이토록 당황해하는 모습은 나도 처음 보는군. 해군성 쪽은 어떤가? 뒤집힌 벌집처럼 아주 소란스러워. 자네도 이 사건에 대해 좀 읽어보았나?”

“방금 그렇게 했습니다. 기술 서류가 무엇이었습니까?”

“아, 바로 그 점입니다! 다행히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는 않았지요. 만약 알려졌다면 언론이 발각 뒤집혔을 겁니다. 그 불쌍한 청년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것은 바로 브루스파팅턴 잠수함 설계도였습니다.”

마이크로프트 홈즈는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잘 알고 있다는 듯 엄숙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그의 동생과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분명 들어보셨겠지요?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저 이름뿐입니다.”

“이 설계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의 그 어떤 기밀보다도 철저하게 보호되어 온 것이니까요. 제 말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브루스파팅턴호의 작동 범위 안에서는 해전 자체가 불가능해질 겁니다. 2년 전, 예산안을 통해 막대한 자금이 몰래 유입되었고, 이 발명품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는 데 모두 쓰였습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요. 설계도는 매우 복잡합니다. 서른 개에 달하는 개별 특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전체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설계도는 무기고 옆 비밀 사무실에 있는 정교한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들 수 없도록 문과 창문에도 방법 장치가 되어 있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설계도를 사무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해군 수석 설계사가 설계도를 검토하고 싶어 해도, 반드시 올위치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런던 한복판에서 죽은 하급 서기의 주머니 속에서 이 설계도가 발견된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되찾으셨습니까?”

“아니네, 설록, 절대 안 돼! 바로 그게 문제라네. 우리는 되찾지 못했네. 올위치에서 서류 열 장이 사라졌어. 카도건 웨스트의 주머니에는 일곱 장이 들어 있었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서류 세 장이 없어졌네. 도둑맞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야. 설록, 자네는 지금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해야 하네. 경찰 법정에서 벌어지는 자질구레한 사건들은 이제 신경 쓰지 말게. 자네가 해결해야 할 일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국제적 문제라네. 카도건 웨스트는 왜 서류를 가져갔는가? 사라진 서류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어떻게 죽었는가? 시신은 어떻게 발견된 장소까지 옮겨졌는가? 그리고 이 재앙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찾아내게. 그러면 자네는 조국을 위해 위대한 공을 세우는 것이 될 걸세.”

“마이크로프트, 왜 직접 해결하지 않는 건가? 자네도 나만큼이나 멀리 내다볼 수 있지 않은가?”

“그렇지도 모르지, 설록. 하지만 문제는 세부 사항을 확보하는 것이네. 자네가 그 정보들을 내게 넘겨준다면, 나는 안락의자에 앉아 아주 훌륭한 전문가적 소견을 내놓을 수 있어. 하지만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철도 검표원들을 심문하고, 돈보기를 눈에 댄 채 바닥에 엎드려 조사하는 일은 내 적성에 맞지 않네. 아니,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네뿐이야. 만약 자네가 다음 훈장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면 말일세.”

내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저 게임 그 자체를 즐길 뿐이라네.”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분명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군. 기꺼이 조사해 보겠네. 자, 사실 관계를 좀 더 말해주게.”

“이 종이에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적어 두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주소 몇 곳도 함께 적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설계도를 실제로 관리하는 책임자는 정부의 저명한 전문가인 제임스 월터 경입니다. 그가 받은 훈장과 직함만 나열해도 참고서 두 줄은 족히 채울 정도지요. 그는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백발이 된 신사로, 고위층 사교계에서도 귀한 손님 대접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애국심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확고합니다. 금고 열쇠를 가진 사람은 두 명인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월터 경입니다. 덧붙이자면, 월요일 근무 시간 중에는 설계도가 분명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월터 경은 오후 3시쯤 열쇠를 챙겨 런던으로 떠났고요. 사건이 발생한 저녁 내내 그는 바클레이 광장에 있는 싱클레어 제독의 저택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동생인 발렌타인 월터 대령이 올위치에서 그가 떠났다는 사실을 증언했고, 싱클레어 제독은 그가 런던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제임스 경은 더 이상 이 사건의 직접적인 변수가 아닙니다.”

“열쇠를 가진 다른 남자는 누구였습니까?”

“선임 사무원 겸 제도사인 시드니 존슨 씨입니다. 마흔 살의 유부남이며 자녀는 다섯입니다. 말수가 적고 침울한 성격이지만,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서는 아주 성실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인기가 없으나 일 하나는 지독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요.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리고 아내의 증언으로만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는 월요일 퇴근 후 저녁 내내 집에 있었습니다. 열쇠 역시 열쇠고리에 걸린 채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카도건 웨스트에 대해 말해 주게.”

“그는 10년 동안 근무하며 성실히 일을 해왔네. 성격이 급하고 고압적이라는 평판도 있지만, 정직하고 곧은 사람이지. 그에 대해 우리가 문제 삼을 건 아무것도 없네. 사무실에서 시드니 존슨 다음으로 설계도를 가장 가까이서 다루던 사람이었으니까. 업무 특성상 매일 설계도를 직접 확인해야 했고, 그 설계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그 말고는 아무도 없었네.”

“그날 밤, 설계도를 잠근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선임 서기인 시드니 존슨 씨입니다.”

“자, 누가 그것들을 가져갔는지는 아주 명백합니다. 하급 사무원인 카도건 웨스트의 몸에서 실제로 발견되었으니까요. 이 정도면 결론이 난 셈 아닙니까?”

“그렇긴 합니다, 설록. 하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선, 그는 왜 그것들을 가져간 걸까요?”

“가치가 꽤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그것들을 팔았다면 아주 쉽게도 수천 파운드는 챙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설계도를 팔아넘기려는 목적 말고, 런던으로 가져갈 만한 다른 동기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설로 세워야겠군요. 젊은 웨스트가 서류를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가짜 열쇠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가짜 열쇠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와 방 문을 모두 열어야 했으니까요.”

“그에게는 가짜 열쇠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는 비밀을 팔아넘기려고 서류를 챙겨 런던으로 떠났습니다. 아마도 설계도가 없어진 사실

이 들통나기 전인 다음 날 아침까지, 금고에 다시 설계도를 되돌려 놓을 생각이었겠지요. 하지만 이 반역적인 임무를 수행하러 런던에 갔던 그는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가 살해당해 객차 밖으로 던져지기 직전, 올리치를 향해 돌아가던 중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신이 발견된 올드게이트는 런던 브리지 역을 한참 지나쳐야 하는 곳입니다. 그가 올리치로 가려 했다면 런던 브리지 역을 거쳐야 했을 텐데 말이죠."

"그가 런던 브리지를 지나갔을 법한 상황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객차 안에 그와 대화를 나누느라 정신이 팔린 누군가가 타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대화가 격렬한 다툼으로 번졌고, 결국 그가 목숨을 잃게 된 것이지요. 어쩌면 그는 객차에서 내리려다 선로로 떨어져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동승자가 객차 문을 닫아버린 것이고요. 당시 안개가 자욱했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보다 더 나은 설명을 내놓을 수 없네. 하지만 설록, 자네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보게. 논의를 위해 가정해보세나. 젊은 카도건 웨스트가 정말로 이 설계도들을 런던으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고 치세. 그렇다면 그는 당연히 외국 요원과 약속을 잡고 저녁 시간을 비워두었겠지. 그런데 그

는 그러는 대신 극장 표를 두 장 사고, 약혼녀를 극장 근처까지 데려다 준 뒤 갑자기 사라져 버렸단 말일세.”

"위장책이군요."

대화 내용을 다소 초조하게 듣고 있던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아주 기묘한 위장책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이렇습니다. 그가 런던에 도착해 외국 요원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아침이 오기 전에 반드시 서류를 되찾아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실 사실이 들통날 테니까요. 그런데 그는 서류 열 장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에는 일곱 장뿐이었죠. 나머지 세 장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가 제 발로 서류를 남겨두고 왔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배신에 대한 대가는 어디 있습니까? 그의 주머니에서 거액의 돈뭉치가 발견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 눈에는 아주 명백해 보입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군요. 그가 서류를 팔려고 가져간 겁니다. 그러다 요원을 만났겠지요. 하지만 가격 협상이 결렬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요원이 그를 따라 나선 겁니다. 기차 안에서 요원이 그를 살해하고, 가장 중요한 서류들을 챙긴 뒤 시신을 객차 밖으로 던져버린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모든 상황이 설명되지 않습니까?"

“그는 왜 표가 없었던 걸까?”

“그 표를 보면 요원이 사는 집에서 어느 역이 가장 가까운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살해당한 남자의 주머니에서 그 표를 꺼낸 것이지요.”

"좋습니다, 레스트레이드 경위. 아주 훌륭해요." 홈즈가 말했다. "당신의 이론은 앞뒤가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난 셈입니다. 한쪽에서는 배신자가 죽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브루스파팅턴 잠수함 설계도가 이미 유럽 대륙으로 넘어갔을 테니까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행동하는 거다, 설록—행동 말이야!" 마이크로프트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내 본능은 이 설명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어. 네 능력을 발휘해! 범죄 현장으로 직접 가란 말이야! 관계자들도 직접 만나보고! 아주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샅샅이 뒤져! 네 경력을 통틀어 이보다 더 큰 애국 기회는 없었을 거다."

“허, 이거 참!” 홈즈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자, 왓슨! 레스트레이드 경위님도 한두 시간 정도는 저희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올드게이트 역부터 가서 조사를 시작하죠. 그럼 이만, 마이크로프트. 저녁 전까지 보고서를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경고해 두는데, 별로 기대할 만한 내용은 없을 겁니다.”

한 시간 뒤, 홈즈와 레스트레이드 경위, 그리고 나는 올드게이트 역 바로 직전, 지하철 노선이 터널을 빠져나오는 지점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철도 회사를 대표해 나온, 얼굴이 붉고 정중한 인상의 노신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청년의 시신은 바로 이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선로에서 3피트 정도 떨어진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다.

"위에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전부 막힌 벽이니까요. 그렇다면 시신은 기차에서 떨어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적한 바로는, 그 기차는 월요일 자정 무렵에 이곳을 지나갔을 겁니다."

"객차를 조사했을 때 폭력의 흔적은 없었습니까?"

"그런 흔적은 전혀 없으며, 승차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운 증거가 들어왔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월요일 밤 11시 40분경, 메트로폴리탄 일반 열차를 타고 올드게이트를 지나던 한 승객의 진술입니다. 그 승객은 열차가 역에 도착하기 직전, 마치 시신이 선로에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안개가 워낙 짙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군요. 승객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체 뭘 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내 친구는 얼굴에 잔뜩 긴장한 기색을 띤 채, 터널 밖으로 굽어지는 철로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서 있었다. 올드게이트 역은 분기점이라 선

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홈즈는 무언가를 갈구하듯 질문을 던지는 눈빛으로 그 선로들을 낱알이 살피고 있었다. 예리하고 기민한 그의 얼굴에는 입술이 굳게 다물어지고 콧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또한 술한 눈썹이 한데 모여며 깊은 집중력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선로 전환기야," 그가 중얼거렸다. "바로 그 선로 전환기."

"그게 어쨌다는 건가? 무슨 뜻이지?"

"이런 체계에는 선로 전환기가 그리 많지 않겠지요?"

"아니요, 아주 드뭅니다."

"게다가 곡선까지 있군. 선로 전환기와 곡선이라니. 세상에! 정말로 그렇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일입니까, 홈즈 씨? 혹시 단서라도 찾으셨나요?"

"그저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암시라고 해야겠군요. 그 이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이 흥미로워지는 건 분명합니다. 아주 독특해요. 그야말로 전무후무할 정도죠. 그런데 왜 안 되겠습니까? 선로 위에 피를 흘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군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꽤 깊었다고 들었습니다."

“빠가 으스러졌지만, 겉으로 드러난 큰 외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피가 좀 튀었어야 했을 겁니다. 안개 속에서 추락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 승객이 타고 있던 열차를 제가 직접 조사해 봐도 되겠습니까?”

“유감스럽지만 어렵겠습니다, 홈즈 씨. 그 열차는 이미 해체되어 객차들이 다시 배치되었으니까요.”

“홈즈 씨, 장담컨대 객차는 전부 살살이 뒤졌습니다.” 레스트레이드 경위가 말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내 친구에게는 아주 뚜렷한 약점이 하나 있었다. 자신만큼 명석하지 못한 이들을 참아내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군요.” 홈즈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마침 잘 됐습니다. 사실 제가 조사하고 싶었던 건 객차가 아니었거든요. 왓슨,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네. 레스트레이드 경위님, 더는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조사를 위해 올리치로 가야 할 것 같군요.”

런던교에서 홈즈는 형에게 보낼 전보를 작성했다. 그는 전보를 발송하기 전,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 전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네. 하지만 그 빛이 곧 꺼져버릴지도 모르겠어. 그동안, 영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외국 스파

이와 국제 요원의 명단을 주소까지 빠짐없이 작성해 전령 편으로 보내, 베이커가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해주게. —설록.

"그거 도움이 되겠군, 왓슨."

울리치형 열차에 자리를 잡고 앉자 홈즈가 말했다.

"정말이지 놀라운 사건이 될 것 같아. 마이크로프트 형님께는 참으로 큰 신세를 졌군. 이런 흥미로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으니 말이야."

그의 열띤 얼굴에는 여전히 강렬하고 예민한 에너지가 서려 있었다. 무언가 새롭고 자극적인 사건이 그의 사고를 일깨웠음을 보여주는 표정이었다. 마치 축 늘어진 귀와 꼬리를 늘어뜨린 채 견사에서 빈둥거리는 폭스하운드와, 눈을 번뜩이며 근육을 팽팽히 긴장시킨 채 가슴 높이의 냄새를 쫓아 달려 나가는 폭스하운드를 비교하는 것과 같았다. 오늘 아침 이후 홈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안개 자욱한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이던, 쥐색 가운을 걸친 채 축 처진 모습의 그 남자는 온데간데없었다.

"여기 쓸 만한 재료가 있군. 활용할 여지도 충분해." 그가 말했다. "이것이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하다니, 내가 정말 멍청했네."

"지금도 그것들은 제게는 여전히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결말이 저에게도 불투명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멀리 인도할 수 있는 실마리 하나는 붙잡았습니다. 그 남자는 다른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객차의 지붕 위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지붕 위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을 따져 봅시다. 열차가 선로 전환기를 지나며 크게 흔들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지붕 위에 놓인 물건이 떨어지기 가장 쉬운 곳이 바로 그 지점 아닙니까? 선로 전환기는 열차 내부의 물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시신이 지붕에서 떨어진 것이거나, 아니면 정말 기묘한 우연이 겹친 것입니다. 이제 혈흔 문제를 생각해 보죠. 만약 시신이 다른 곳에서 피를 흘렀다면, 당연히 선로 위에는 혈흔이 남지 않았을 겁니다. 각각의 사실은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이 하나로 모이면 거대한 증거가 되는 법이죠."

"티켓까지 있었던 말인가!" 내가 외쳤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왜 티켓이 없는지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라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모든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군요."

"설령 그렇다 해도, 그의 죽음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멍니다. 아니, 오히려 사건은 더 단순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기묘해질 뿐입니다."

“그렇지도 모르지.” 홈즈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그렇지도 몰라.” 그는 다시 깊은 상념에 빠져들었다. 그 침묵은 완행열차가 올위치역에 마침내 멈춰 설 때까지 계속되었다. 역에 도착한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는 주머니에서 마이크로프트가 건넨 서류를 꺼냈다.

“오후에 방문해야 할 곳이 꽤 많군.” 그가 말했다. “우선 제임스 월터 경에게 먼저 가야 할 것 같네.”

그 유명한 관료의 저택은 템스강까지 푸른 잔디밭이 길게 뻗어 있는 멋진 빌라였다. 우리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쯤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고, 옅고 희미한 햇살이 비쳐 들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집사가 우리를 맞이했다.

“제임스 경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경!” 그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임스 경께서는 오늘 아침에 서거하셨습니다.”

“세상에!” 홈즈가 경악하며 외쳤다. “대체 어떻게 죽은 건가?”

“실례가 안 된다면 안으로 들어오셔서, 동생 되시는 발렌타인 대령을 만나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는 편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두한 응접실로 안내받았다. 잠시 후, 죽은 과학자의 남동생이라는 키가 매우 크고 잘생긴, 옅은 수염을 기른 흰 살가량의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광기 어린 눈빛과 붉게 상기된 뺨, 그리고 형클어진 머리칼을 보니 이 가문에 닥친 갑작스러운 비극이 얼마나 큰지 짐

작할 수 있었다. 그는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말조차 잊지 못했다.

“그 끔찍한 스캔들 때문이었네.” 그가 말했다. “내 형인 제임스 경은 명예를 무척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네. 그런 사건을 겪고는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었지. 그 일로 심장이 무너져 내린 거야. 형은 자기 부서의 효율성을 늘 자랑스러워했는데, 이번 일은 형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타격이었네.”

“그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라도 몇 가지 남겨주었기를 바랍니다.”

“장담컨대 그에게도 이 모든 일은 당신이나 우리 모두에게 그렇듯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경찰에 제공한 상태였으니까요. 물론 카도건 웨스트가 범인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나머지 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새로 밝혀낼 만한 사실은 전혀 없단 말입니까?”

“저 역시 직접 본 것은 없고, 읽거나 들은 내용뿐입니다. 무례하게 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흠즈 씨,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는 몹시 심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부디 면담을 서둘러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군.”

택시를 다시 잡아타고 나서 내 친구가 말했다.

“그 노인이 자연사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궁금하군. 만약 후자라면, 말은 바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의 표시라고 봐야 할까? 그 문제는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지. 이제 카도건 웨스트 건으로 눈을 돌려보세.”

도시 외곽에 자리한 작고 정갈한 집 한 채가 슬픔에 잠긴 어머니를 품어주고 있었다. 노부인은 슬픔에 너무도 정신이 멍해져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그 곁에는 창백한 얼굴의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바이올렛 웨스트버리 양이라고 소개했다. 죽은 이의 약혼녀이자, 그 비극적인 밤에 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라고 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홈즈 씨.” 그녀가 말했다. “그 비극이 일어난 뒤로 단 한 숨도 못 잤어요. 밤낮없이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뿐이에요. 아서는 세상에서 가장 일편단심이고 기사도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애국심도 누구보다 강했고요. 자기가 맡은 국가 기밀을 팔아넘기느니 차라리 제 오른손을 잘라버릴 사람이었다고요.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상황이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하며,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웨스트버리 양,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에게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월급도 충분했고요. 그동안 돈도 몇백 파운드 정도 모아두었고, 저희는 새해에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흥분한 기색은 전혀 없었던 말입니까? 자, 웨스트버리양, 우리에게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동료의 예리한 눈은 그녀의 태도가 변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말끝을 흐리며 망설였다.

“맞아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분 마음속에 무언가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래되었습니까?”

“거주 일주일 정도였어요. 그는 생각이 많아 보였고 근심에 잠겨 있었죠. 한 번은 제가 그 이유를 캐물은 적도 있어요. 그러자 그는 무슨 일이 있긴 한데, 자신의 공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털어놓더군요. 그러고는 ‘자네에게조차 말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네’라고 말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죠.”

홈즈의 표정이 엄숙해졌다.

“계속하세요, 웨스트버리 양. 설령 그 내용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지라도 멈추지 마세요. 그 이야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정말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두 번쯤은 그가 무언가 말하려 던 참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저녁에는 그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지요. 분명 외국 스파이들이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거액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친구의 얼굴은 더욱 엄숙해졌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너무 안일하다고 하시더군. 배신자라면 설계도를 손에 넣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일 거라고 말이야.”

“그가 그런 말을 한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까?”

“네,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자, 이제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게.”

“우리는 극장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안개가 워낙 짙어서 마차를 타는 건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걸어가기로 했는데, 걷다 보니 사무실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안개 속으로 쏜살 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말입니까?”

“그분은 그저 짧은 비명을 내뿔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집으로 걸어갔지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이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조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열두 시쯤 되었을 때, 그 끔찍한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오, 홈즈 씨, 제발, 제발 그분의 명예만이라도 지켜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분께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홈즈는 슬픈 기색으로 고개를 저었다.

“자, 왓슨.” 그가 말했다. “우리가 갈 길은 다른 곳이네. 다음 목적지는 서류를 도난당한 바로 그 사무실이어야 하네.”

“이 젊은이에게 불리한 정황은 전부터 충분히 어두웠지만, 조사를 해보니 상황이 더 나빠졌군요.” 마차가 덜컹거리며 멀어질 때 그가 말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돈이 필요했겠지요. 본인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이미 머릿속에 계획을 세워두었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여자에게 계획을 털어놓음으로써, 그녀를 반역죄의 공범으로 만들 뻔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이지 상황이 아주 좋지 않군요.”

“하지만 홈즈,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보통 어떤 법 아납니까? 그런데 왜 그가 여자를 길거리에 내버려 둔 채, 범죄를 저지르려고 급히 달아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맞습니다! 분명 반대 의견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맞서야 할 상대는 만만치 않은 사건입니다.”

사무실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선임 서기 시드니 존슨 씨였다. 그는 내 동료인 홈즈의 명성에 걸맞은 정중한 태도로 우리를 영접했다. 존슨 씨는 안경을 쓴 중년의 마른 남자로, 말투는 다소 거칠었다. 초췌한 뺨과 신경질적으로 떨리는 손등에서는 그가 그동안 얼마나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견뎌왔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홈즈 씨, 정말 큰일입니다, 아주 큰일이예요! 혹시 국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방금 그분의 댁에서 오는 길입니다.”

“현장은 엉망진창입니다. 책임자는 죽었고, 카도건 웨스트도 죽었습니다. 서류들도 전부 도난당했고요. 하지만 월요일 저녁에 문을 닫을 때만 해도, 우리 사무실은 정부 기관 중 그 어느 곳보다도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하필이면 웨스트가,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저 자신을 믿는 만큼 그도 믿었을 겁니다.”

“월요일에는 몇 시에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까?”

“5시입니다.”

“그거 닫았나?”

“나는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이라네.”

“설계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금고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거기 넣어 두었으니까요.”

“이 건물에는 경비원이 없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분은 돌봐야 할 다른 업무도 많으십니다. 노병 이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주 신뢰할 만한 분이죠. 그날 저녁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안개가 워낙 짙었으니까요.”

“만약 캐도건 웨스트가 업무 시간 이후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서류에 도달하려면 우선 열쇠 세 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고말고요. 바깥문 열쇠와 사무실 열쇠, 그리고 금고 열쇠까지 말입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임스 월터 경과 당신뿐이었습니까?”

“제게는 문 열쇠는 없었습니다. 오직 금고 열쇠뿐이었죠.”

“제임스 경은 평소 생활 습관이 규칙적인 분이었습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열쇠 세 개만큼은 분명히 하나의 열쇠 고리에 묶어 두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열쇠들이 거기 걸려 있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 열쇠고리도 그와 함께 런던으로 갔단 말입니까?”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열쇠를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웨스트가 범인일 경우, 반드시 여벌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시신에서는 그런 열쇠가 발견되지 않았습니 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무실의 직원이 설계도를 팔려고 마음먹었다면,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원본을 통째로 들고 나가는 것보다 직접 복사본을 만드는 편이 훨씬 간편하지 않았을 까요?”

“설계도를 효과적으로 복제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전문 지식이 필요 할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임스 경이나 당신, 혹은 웨스트 중 한 명은 그 기술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랬겠지요. 하지만 흠즈 씨, 제발 이 일에 저를 끌어들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원래 설계도가 웨스트에게서 발견된 마당에,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복사본을 가져가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원본을 훔쳤다는 건 확실히 기이한 일이군요.”

“의심할 여지 없이 기이한 일이었네. 하지만 그는 정말로 그렇게 했다네.”

“이번 사건은 조사할 때마다 설명하기 힘든 의문점들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게다가 아직 서류 세 장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서류들이 가장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장의 서류만 있으면, 나머지 일곱 장 없이도 브루스 파팅턴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해군성에는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계도를 다시 검토해 보니 확신이 서지 않는군요. 자동 조절 슬롯이 달린 이중 밸브 설계가 이미 돌려받은 서류 중 하나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기술을 스스로 발명해 내기 전까지는 그들이 이 배를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곧 그 난관을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사라진 도면 세 장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의심할 여지 없네.”

“실례가 안 된다면, 이제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고 싶군요. 더 묻고 싶은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홈즈는 금고의 잠금장치를 살피더니 방 문을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창문의 철제 셔터를 조사했다. 우리가 밖으로 나와 잔디밭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의 흥미가 강하게 돌아나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월계수 덩불이 있었는데, 그 가지 몇 개가 뒤틀리거나 꺾인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가지들을 세밀하게 살피더니, 이어서 그 아래 땅에 남은 희미하고 모호한 자국들을 조사했다. 그러더니 홈즈는 수석 서기에게 철제 셔터를 닫으라고 지시했다. 그러고는 내게 셔터 중앙 부분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 밖에서도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흘이나 지체되는 바람에 단서들이 다 망가졌네. 이제 이 증거들이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일지는 알 수 없군. 음, 왓슨, 올리치 쪽에서는 더 이상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 같네. 우리가 모은 정보가 너무 빈약해. 런던으로 가서 더 나은 단서가 있는지 찾아보세나.”

하지만 올리치 역을 떠나기 전, 우리는 수확물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었다. 매표소 직원은 자신이 잘 아는 얼굴인 카도건 웨스트를 월요일 밤에 분명히 보았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웨스트는 8시 15분에 런던 브리지행 열차를 타고 런던으로 향했다고 한다. 그는 혼자였으며 3등석 승차권 한 장을 끊었다. 직원은 당시 웨스트의 모습이 무척 흥분하고

초조해 보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웨스트는 손을 떨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거스름돈을 집어 들기조차 힘들어했고, 결국 직원이 거스름돈을 건네주는 것을 도와주어야 했다는 것이다. 열차 시간표를 대조해 보니, 웨스트가 그 여인을 떠난 7시 30분 이후에 그가 탈 수 있는 가장 빠른 열차는 바로 8시 15분 차였다.

“자, 이제 사건을 재구성해 보세, 왓슨.”

30분간의 침묵 끝에 홈즈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함께 조사해 온 그 수많은 사건 중에서도, 이토록 실마리를 잡기 어려운 일은 없었던 것 같네.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난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말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 건 아니네. 분명 유의미한 성과도 거두었으니까.”

“울리치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는 대체로 짧은 카도건 웨스트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창가에서 발견된 흔적들은 그에게 유리한 가설을 뒷받침해 주더군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어떤 외국 요원이 그에게 접근했다고 칩시다. 그 요원은 웨스트가 입을 열지 못하도록 어떤 약속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생각을 약혼녀에게 했던 말처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했을 수도 있지요. 좋습니다. 이제 그가 약혼녀와 함께 극장으로 향하던 중, 자옥한 안개 속에서 사무실 쪽으로 향하는 그 요원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웨스트는 성미가 급하고 결단력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의무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곧장 그 남

자를 뒤쫓아 창가에 다다랐고, 서류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뒤 도둑을 추격했습니다. 이렇게 가정하면, '복사본이 있는데 왜 굳이 원본을 가져가겠느냐'라는 의구심도 해결됩니다. 외부인인 그 요원은 반드시 원본을 가져가야만 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논리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젊은 카도건 웨스트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악당을 붙잡고 경보를 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그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혹시 서류를 가져간 사람이 상급자였을까요? 그렇다면 웨스트의 행동이 설명됩니다. 아니면 우두머리가 안개 속에서 웨스트를 따돌렸고, 웨스트는 그가 머무는 숙소 위치를 안다고 가정하고 그를 가로채기 위해 곧장 런던으로 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웨스트가 안개 속에 여자친구를 홀로 남겨두고 연락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분명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추리의 한계입니다. 이 두 가지 가설과, 주머니에 서류 일곱 장을 넣은 채 메트로폴리탄 열차 지붕 위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웨스트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제 제 직감은 사건의 반대편부터 접근하라고 말하고 있군요. 만약 마이크로프트가 주소 목록을 넘겨준다면, 범인을 특정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갈래가 아닌 두 갈래의 경로를 동시에 쫓을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예상대로 베이커가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쪽지가 하나 있었다. 정부 전령이 급히 가져온 것이었다. 흠즈는 쪽지를 훑어보더니 내 쪽으로 획 던졌다.

잔챙이들은 수없이 많지만, 이토록 중대한 사건을 다룰 만한 인물은 거의 없네. 고려해 볼 만한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그레이트 조지 가 13번지의 아돌프 마이어, 노팅힐 캠프 맨션의 루이 라 로티에르, 그리고 켄싱턴 콜필드 가든 13번지의 휴고 오버슈타인, 이 세 사람뿐이네. 오버슈타인은 월요일에 런던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금은 떠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네. 자네가 실마리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행이군. 내각에서는 자네의 최종 보고를 몹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네. 최고위층으로부터 긴급한 요청도 전달되었네. 자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가의 모든 역량이 자네의 뒤를 받쳐줄 것이네. — 마이크 로프트.

“유감스럽게도 이번 일은 여왕 폐하의 기사들과 군대 전체를 동원한 다 해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군.”

흠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런던의 대형 지도를 펼쳐 놓고 그 위로 몸을 바짝 기울였다.

“자, 좋아.”

잠시 후, 그가 만족스러운 듯 감탄사를 내뱉었다.

“드디어 상황이 우리 쪽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어. 왓슨, 정말이지 이번에는 우리가 결국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군.”

그는 갑자기 유쾌해진 듯 내 어깨를 툭 쳤다.

“난 이제 나가보겠네. 그냥 정찰 정도만 할 거야. 나의 신뢰하는 동료이자 전기 작가인 자네가 곁에 없다면, 결코 본격적인 움직임은 시작하지 않을 테니까. 자네는 여기 머물러 있게. 아마 한두 시간 뒤면 다시 보게 될 걸세. 만약 시간이 너무 안 간다 싶으면, 백지와 펜을 꺼내서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구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써 내려가기 시작하게 나.”

그가 이토록 기뻐하는 데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평소 그토록 엄격하고 냉철한 태도를 유지하던 그가 이 정도로 들뜬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나 역시 덩달아 마음이 들떴다. 11월의 긴 저녁 내내 나는 그가 돌아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9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전령 한 명이 쪽지를 들고 찾아왔다.

켄싱턴 글로스터 로드에는 골디니 식당에서 저녁 식사 중이다. 지체 말고 즉시 이리로 와서 합류하라. 지렛대와 어두운 등불, 정, 그리고 리볼버를 챙겨 오도록. — 설록 홈즈

안개 낀 어스름한 거리를 지나가기에, 품격 있는 시민이 들고 다니기에는 꽤나 수상쩍은 물건들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코트 안쪽에 조심스럽게 갈무리한 뒤, 알려준 주소로 곧장 향했다. 화려하다 못해 번쩍거리는 이탈리아 식당 안, 문 근처에 놓인 작은 원형 탁자에 내 친구가 앉아 있었다.

“식사는 좀 하셨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커피에 큐라소 한 잔 하시지요. 주인장이 원하는 시가도 한번 맛보시고요. 생각만큼 독하지는 않으니 걱정 마십시오. 아, 준비물은 다 챙겨 오셨습니까?”

“제 코트 안에 있습니다.”

“훌륭하군.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겠네. 왓슨, 자네도 이제는 분명히 알겠지? 이 청년의 시신은 열차 지붕 위에 '놓여진' 것이라네. 그가 객차 안이 아니라 지붕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낸 순간, 시신이 지붕 위에 놓였다는 점 또한 명확해졌지.”

“다리 위에서 떨어뜨린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붕을 살펴보면 끝이 약간 둥글게 처리되어 있고, 난간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 짧은 카도건 웨스트가 누군가에 의해 그곳에 놓였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저기에 놓일 수 있었단 말인가?”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바로 그것이었네. 방법은 단 하나뿐이야. 자네도 알다시피 웨스트엔드 일부 구간에서는 지하철 터널이 지상과 맞닿아 있지.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머리 바로 위로 창문이 지나가는 걸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 자, 만약 열차가 그런 창문 바로 아래에 멈춰 선다고 가정해 보게. 그때 열차 지붕 위로 시신을 옮겨 놓는 게 과연 어려운 일이겠나?”

“도저히 믿기지 않는군요.”

“다른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아무리 믿기 힘들더라도 남는 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오래된 격언을 되새겨야 하네. 지금은 다른 모든 가능성이 이미 전부 사라진 상태지. 방금 런던을 떠난 그 국제적 스파이가 지하철 노선과 맞닿은 연립주택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을 때, 나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평소답지 않게 들떠 있었고, 자네는 그런 나의 갑작스러운 경박함에 조금 놀라기도 했었지.”

“아, 결국 그거였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거였죠. 콜필드 가든 13번지에 사는 휴고 오버슈타인 씨가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글로스터 로드 역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친절한 역무원이 선로를 따라 저와 함께 걸어주더군요. 덕분에 콜필드 가든의 뒷계단 창문이 선로 쪽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사실도 알아냈죠. 대형 철도 노선과 교차하는 지점이라, 지하철이 바로 그 지점에서 몇 분 동안 멈춰 서는 일이 빈번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훌륭해, 흠즈! 드디어 알아냈군!”

“지금까지는—지금까지는 이렇네, 왓슨. 우리는 나아가고 있지만, 목표는 아직 멀리 있어. 아무튼 콜필드 가든의 뒷마당을 살펴본 뒤에 앞쪽도 가봤는데, 그놈이 정말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확인했네. 꽤 큰 저택이더군. 내가 보기엔 위층 방들은 가구가 거의 비어 있었어. 오버

슈타인은 그곳에서 하인 한 명과 함께 살았는데, 아마 그 하인은 오버슈타인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공범이었을 거야.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오버슈타인이 전리품을 처분하러 유럽 대륙으로 떠났다는 사실이지. 하지만 도망칠 생각으로 간 건 아니야. 그에게는 체포 영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아마 아마추어들이 자기 집을 불쑥 찾아올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 했을 걸세. 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낼 참이지.”

“영장이라도 발부받아서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겠습니까?”

“증거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겠군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어떤 서신들이 있을지 알 수 없네.”

“마음에 들지 않네, 홈즈.”

“여보게, 자네는 거리에서 망을 보게나. 범죄자 역할은 내가 맡을 테니. 지금은 사소한 일에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야. 마이크로프트의 쪽지와 해군성, 내각, 그리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그 고귀한 분을 생각하게. 우리는 반드시 가야만 하네.”

나는 식탁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자네 말이 맞네, 홈즈. 우리는 반드시 가야만 해.”

그는 벌떡 일어나 내 손을 맞잡았다.

“마지막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을 줄 알았네.”

홈즈가 말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애뜻함에 가까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다시금 평소처럼 냉철하고 실무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거의 반 마일은 걸어야 하지만, 서두를 것 없습니다. 걸어갑시다.” 그가 말했다. “부탁이니 도구들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수상한 인물로 체포된다면, 상황이 아주 골치 아프게 꼬이고 말 테니까요.”

콜필드 가든즈의 저택들은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양식이었다. 평평한 정면과 기둥, 그리고 현관 포르티코가 늘어선 모습은 빅토리아 시대 중기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바로 옆집에서는 아이들의 파티가 열리는 모양이었다.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피아노 연주 소리가 밤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안개는 여전히 자욱하게 깔려 우리를 포근한 그림자처럼 감싸 안았다. 홈즈는 랜턴을 켜서 육중한 문 위를 비추었다.

“이건 꽤나 까다로운 문제군.” 홈즈가 말했다. “문이 잠긴 데다 빗장까지 걸려 있어. 차라리 저쪽 구역으로 가는 게 낫겠어. 저 아래에 아주 좋은 아치형 통로가 하나 있거든. 혹시라도 의욕만 앞선 경찰관이 끼어들면 그쪽으로 피하면 돼. 왔슨, 나를 좀 도와주게. 자네도 내가 도와주지.”

일 분 뒤, 우리 둘은 건물 뒷마당에 도착했다.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막 발을 들였을 무렵, 안개 낀 위쪽에서 경찰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부드러운 발소리가 멀어지자마자, 홈즈는 아래쪽 문을 손보기 시작했다. 홈즈가 몸을 굽히고 힘을 주는 모습이 보였고, 이윽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문이 벌컥 열렸다. 우리는 뒷마당 문을 닫고 어두운 통로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홈즈는 카펫도 깔리지 않은 굽이진 계단을 앞장서 올라갔다. 그가 든 작은 손전등의 노란 불빛이 낮은 창문을 비추었다.

“다 왔네, 왓슨. 바로 여기야.”

홈즈가 문을 벌컥 열었다. 그 순간, 어둠 속을 질주하는 열차의 소음이 낮고 거친 속삭임처럼 들려오더니, 이내 거대한 굉음으로 변해 우리를 덮쳤다. 홈즈는 손전등을 비추어 창틀을 훑었다. 창틀은 지나가는 열차들이 내뿜은 그을음으로 두껍게 뒤덮여 있었으나, 군데군데 검은 표면이 흐릿하게 번지거나 문질러진 흔적이 있었다.

“시신을 어디에 눕혔는지 알 수 있겠군. 어이, 왓슨! 이것 좀 보게. 이건 틀림없이 혈흔이야.” 그는 창틀 나무를 따라 희미하게 변색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계단 돌 위에도 흔적이 있네. 증거는 충분해. 기차가 멈출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세.”

기다림은 길지 않았다. 바로 다음 열차가 이전처럼 터널을 빠져나오며 굉음을 냈으나, 탁 트인 곳에 이르자 속도를 줄였다. 이어 브레이크가 끼익 소리를 내더니 열차는 우리 바로 아래에 멈춰 섰다. 창틀에서

객차 지붕까지의 거리는 채 4피트도 되지 않았다. 흠즈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지금까지는 우리 판단이 맞았군.” 그가 말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왓슨?”

“절박이군. 자네는 지금까지 이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오른 적이 없었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네. 시신이 지붕 위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떠올린 순간부터, 그건 결코 복잡한 추론도 아니었네만, 그 뒤의 모든 과정은 필연적이었지. 만약 이 사건에 이토록 중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았다면, 지금까지의 일들은 대수롭지 않은 해프닝에 불과했을 것이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난관이 놓여 있지만, 어쩌면 여기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우리는 주방 계단을 올라 2층에 있는 방들로 들어갔다. 첫 번째 방은 식당이었는데, 가구들이 단조롭게 배치되어 있어 딱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두 번째 방은 침실이었지만, 그곳 역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남은 방은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내 동료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방 안에는 책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는데, 보아하니 서재로 쓰는 모양이었다. 흠즈는 서랍과 찬장을 하나하나 신속하고도 정밀하게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엄격한 얼굴에는 성공의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는 처음 시작했을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교활한 놈이 흔적을 말끔히 지웠군.” 그가 말했다.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넣을 만한 증거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 위험한 내용이 담긴 서신들도 이미 파기했거나 치워버린 모양이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기회는 이번뿐이다.”

책상 위에는 작은 양철 금고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홈즈는 끌을 이용해 금고를 억지로 열었다. 안에는 숫자와 계산식이 빼곡히 적힌 종이 뭉치들이 여러 개 들어 있었으나,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는 설명은 전혀 없었다. 다만 '수압'과 '제공인치당 압력'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잠수함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홈즈는 짜증스럽게 그 종이들을 옆으로 던져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작은 신문 스크랩 몇 장이 들어 있는 봉투 하나뿐이었다. 홈즈가 봉투를 탁자 위에 털어내자, 그의 상기된 얼굴을 보고 나는 그가 무언가 기대하고 있음을 즉시 알아차렸다.

이게 뭔가, 왓슨? 응? 이게 대체 뭐지? 신문 광고란에 실린 일련의 메시지 기록이군. 인쇄 활자와 종이로 보아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의 개인 광고란이야.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 구석에 실렸군. 날짜는 적혀 있지 않지만, 메시지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임이 틀림없군.

“더 빨리 소식을 듣기를 바랐다. 조건은 합의되었다. 명함에 적힌 주소로 상세히 적어 보내라.—피어로.”

“다음은 이렇습니다.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다. 상세 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건이 인도되면 준비해 두겠다.—피에로.”

“그다음은 이렇습니다.”

“사안이 급하다. 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 제안을 철회하겠다. 서신으로 약속을 잡아라. 광고를 통해 확답을 주겠다. —피에로.”

“마지막으로,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안위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만약 브루스파팅턴호 설계도가 적국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을 만큼 참혹할 것입니다. 설록 홈즈, 당신의 통찰력이 이 위기를 막아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월요일 밤 9시 이후. 두 번 두드려라. 우리 둘뿐이어야 한다. 너무 의심하지 말 것. 물건을 인도할 때 현금으로 지급한다.—피에로.”

“꽤 완벽한 기록이야, 왓슨! 저 건너편에 있는 그놈에게 연락만 닿을 수 있다면 말이지!” 홈즈는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마침내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글쎄, 어쩌면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을지도 모르겠군. 왓슨,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네. 이제 데일리 텔레그래프 지사로 차를 몰아 가세나. 그러면 오늘 하루 일과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마이크로프트 홈즈와 레스트레이드가 약속한 대로 찾아왔다. 설록 홈즈는 그들에게 우리가 전날 겪었던 일들을 차례로 들려주었다. 우리의 자백 섞인 침입 사실을 들은 레스트레이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홈즈 씨, 우리 경찰 조직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능가하는 결과를 내놓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선을 넘게 되면, 당신과 당신 친구 모두 곤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조국과 가정, 그리고 미를 위하여—그렇지 않은가, 왓슨? 우리 조국의 제단에 바쳐지는 순교자들이라니. 하지만 마이크로프트, 자네 생각은 어떤가?”

“훌륭해, 설록! 정말 대단하군! 그런데 이걸 어디에 쓸 생각인가?”

홈즈는 탁자 위에 놓인 데일리 텔레그래프지를 집어 들었다.

“오늘 피에로가 낸 광고 보셨습니까?”

뭐라고요? 또 광고가 났단 말입니까?

“그래, 여기 있군. 바로 이거야.”

“오늘 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두 번의 노크. 매우 중대함. 당신의 안전이 걸린 문제임. — 피에로.”

“세상에!” 레스트레이드가 외쳤다. “만약 그놈이 그렇게 대답한다면, 우리가 잡은 거나 다름없어!”

“그걸 넣을 때부터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두 분 모두 괜찮으시다면, 8시쯤 저희와 함께 콜필드 가든으로 가지지요. 그러면 사건의 실마리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록 홈즈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더 이상 일을 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즉시 사고를 멈추고 가벼운 주제로 생각을 돌릴 줄 안다는 점이었다. 그 기억에 남을 만한 날에도 그랬다. 홈즈는 하루 종일 라수스의 다성 모테트(Polyphonic Motets)에 관한 논문에 몰두했다. 나에게는 그런 초연함이 없었기에, 그날은 끝도 없이 길게만 느껴졌다. 사안의 막중한 국가적 중요성, 고위층의 긴박한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시도하려는 실험의 직접적인 성격까지, 이 모든 요소가 내 신경을 곤두세웠다. 가벼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마침내 원정길에 올랐을 때, 나는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다.

레스트레이드 경위와 마이크로프트는 약속대로 글로스터 로드 역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했다. 오버슈타인 저택의 뒷문은 전날 밤부터 열려 있었다. 마이크로프트 홈즈가 난간을 넘는 일은 절대 안 된다며 분개하며 거절하는 바람에, 내가 직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야 했다. 아홉 시가 되었을 무렵, 우리 모두는 서재에 앉아 약속한 인물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한 시간이 지나고, 또 한 시간이 흘렀다. 시계가 열한 시를 알리자, 거대한 교회 종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의

희망이 죽어가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레스트레이드 경위와 마이크로프트는 자리에 앉아 안절부절못하며, 일 분에도 몇 번씩 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반면 홈즈는 눈을 반쯤 감은 채 침묵을 지키며 차분하게 앉아 있었으나,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그러다 그가 갑자기 고개를 뒤흔들었다.

“그가 오고 있네.” 그가 말했다.

문밖에서 누군가 살금살금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다시 발소리가 돌아왔다. 문밖에서 발을 끄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문고리를 두드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두 번 울렸다.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앉아 있으라는 손짓을 했다. 복도의 가스등은 희미한 빛줄기만 겨우 내뿜고 있었다. 홈즈가 바깥문을 열자 검은 형체가 그를 스쳐 지나갔고, 홈즈는 즉시 문을 닫고 잠갔다. "이쪽으로!" 홈즈의 목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그 남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홈즈가 그를 바짝 뒤쫓았던 것이다. 남자가 놀라움과 당혹감에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리자, 홈즈는 남자의덜미를 잡아 방 안으로 내동댕이쳤다. 죄수가 중심을 잡기도 전에 문은 닫혔고, 홈즈는 문을 등지고 선 채 그를 가로막았다. 남자는 주위를 매섭게 노려보며 비틀거리더니, 이내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충격 때문인지 남자의 넓은 챙 모자가 머리에서 날아갔고, 입술에 매여 있던 크라바트도 흘러내렸다. 그 아래로 드러난 것은 길고 열은 수염과 발렌타인 월터 대령의 부드럽고 잘생긴 섬세한 이목구비였다.

홈즈가 깜짝 놀라 휘파람을 불었다.

“이번만큼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해도 좋네, 왓슨.” 홈즈가 말했다.
“내가 찾던 놈은 이놈이 아니었어.”

“그가 누구인가?” 마이크로프트가 다급하게 물었다.

“잠수함 부서의 수장이었던 고(故) 제임스 월터 경의 남동생입니다. 네, 네, 이제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군요. 정신이 좀 드는 모양입니다. 그에 대한 심문은 제게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쓰러진 몸을 소파로 옮겨 놓았다. 그러자 죄수는 몸을 일으켜 앉더니, 공포에 질린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마치 자신의 감각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이게 대체 뭘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오버슈타인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월터 대령, 모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영국 신사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군요. 하지만 대령이 오버슈타인과 주고받은 서신과 그 관계는 이미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젊은 케도건 웨스트의 죽음과 관련된 정황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자백하여 최소한의 도리라도 다하시길 권합니다. 아직 우리가 대령의 입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남자는 신음하며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우리는 기다렸지만,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장담컨대,” 홈즈가 말했다. “필요한 정보는 이미 전부 파악했습니다. 당신이 돈에 쫓돌리고 있었다는 사실, 당신의 형이 보관하던 열쇠의 본을 뒀다는 사실, 그리고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의 광고란을 통해 답장을 보내온 오버슈타인과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 밤 안개 속에서 당신이 사무실로 내려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젊은 케도건 웨스트가 당신을 목격하고 미행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그는 당신의 절도 행각을 보았지만, 즉시 경보를 울리지는 못했습니다. 당신이 서류를 런던에 있는 형에게 가져다주는 중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범 시민답게 개인적인 사정은 뒤로한 채, 안개 속에서 당신을 바짝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끈질기게 뒤를 밟았죠. 거기서 그가 개입했고, 월터 대령, 당신은 반역죄에 더해 살인이라는 더욱 끔찍한 죄까지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 맹세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니다!” 비참한 처지에 놓인 죄수가 울부짖었다.

“그럼 말씀해 보시죠. 카도건 웨스트가 철도 객차 지붕 위에 놓이기 전,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러겠다고 맹세하죠. 나머지 일은 제가 저질렀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진 빚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돈이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오버슈타인이 5,000파운드를 제안했습니다. 파멸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만큼은, 저 역시 당신처럼 결백합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는 전부터 의심을 품고 있었고, 당신이 말한 대로 나를 미행했습니다. 문 앞까지 도착하기 전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요. 안개가 워낙 짙어서 3야드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문을 두 번 두드리자 오버슈타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달려 나오더니, 우리가 그 서류들로 무엇을 하려는 건지 따져 물었습니다. 오버슈타인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짧은 곤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웨스트가 우리를 따라 집 안으로 억지로 밀고 들어오자, 오버슈타인이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그는 5분도 채 되지 않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웨스트가 현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때 오버슈타인이 자기 방 뒷창문 아래로 멈춰 서는 열차를 이용하는 생각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그는 내가 가져온 서류들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그는 그중 세 장이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서류를 돌려주지 않으면 울리치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말하자, 그는 ‘이 서류들은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라 지금 당장 복사본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오늘 밤 서류 전부를 한꺼번에 돌려보내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소리쳤습니다. ‘세 장은 내가 보관하겠네. 나머지는 이 젊은이의 주머니에 쑤셔 넣자고.

나중에 그가 발견되면, 분명히 이 모든 일이 그놈의 소행으로 결론 날 테니까.’ 나로서는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그의 제안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서 30분 정도 기다린 끝에 열차가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에, 웨스트의 시신을 열차 위로 내리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있어 사건은 거기서 일단락되었습니다.”

“형님은 어떠신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가 열쇠를 들고 있는 저를 한 번 목격한 적이 있었고, 그때부터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을 보니 분명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마이크로프트 홈즈였다.

“보상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양심의 가책도 덜 수 있을 테고, 처벌도 가벼워질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보상하면 되겠습니까?”

“서류를 가져온 오버슈타인은 어디 있나?”

“모르겠소.”

“그가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파리 루브르 호텔로 편지를 보내면 결국 자신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렇다면 아직 당신에게는 만회할 기회가 남아 있군요.” 설록 홈즈가 말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조금의 선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자가 바로 저를 파멸로 몰아넣고 무너뜨린 장본인이니까요.”

“여기 종지와 펜이 있네. 이 책상에 앉아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게나. 봉투에는 알려준 주소를 적고. 그래, 맞네. 이제 편지를 쓰겠네.

“친애하는 귀하께:

“우리 거래와 관련해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완성해 줄 모사 도면(투사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수고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금으로 500파운드를 더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우편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며, 금화나 지폐가 아니면 받지 않겠습니다. 직접 해외로 찾아가고 싶지만, 지금 제가 출국한다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토요일 정오에 채링 크로스 호텔의 흡연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영국 지폐나 금화로만 준비해 주십시오.”

“그 정도면 아주 충분하겠군. 이 방법이 그자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내가 놀랄 정도일 거야.”

결국 그렇게 되었다! 그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았다. 국가의 공식 기록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흥미로운, 그 나라만의 숨겨진 역사 말이다. 오버슈타인은 생애 최고의 한탕을 완성하려는 욕심에 미끼를 물었고, 결국 15년 동안 영국 교도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의 트렁크에서는 유럽 전역의 해군 거점들에 경매로 내놓으려 했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브루스파팅턴호 설계도가 발견되었다.

월터 대령은 복역 2년 차가 끝날 무렵 감옥에서 사망했다. 홈즈는 기운을 되찾은 뒤 라수스의 다성 모테트 연구 논문 작업에 다시 매진했다. 이 논문은 이후 개인 소장용으로 인쇄되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결정판이라는 찬사를 받는다.

몇 주 뒤, 나는 친구가 원저에서 하루를 보냈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는 원저에서 돌아올 때 아주 훌륭한 에메랄드 타이핀을 지니고 있었다. 내가 그것을 새로 산 것이냐고 묻자, 홈즈는 예전에 어떤 자비로운 부인의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는데 그 보답으로 받은 선물이라고 답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나는 그 부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에메랄드 핀을 볼 때마다 친구가 브루스파팅턴호 설계도 사건을 영원히 떠올리게 되리라는 점 또한 의심치 않는다.

악마의 발

악마의 발자국

설록 홈즈와 오랜 세월 가깝게 지내며 겪은 기묘한 경험과 흥미로운 회상들을 때때로 기록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늘 난관에 부딪히곤 했다. 바로 대중의 관심을 극도로 꺼리는 홈즈의 성격 때문이었다. 침울하고 냉소적인 성격의 홈즈에게 대중의 환호란 언제나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뒤, 그는 범인을 직접 검거하는 공을 정식 수사관에게 떠넘기는 것을 무엇보다 즐거워했다. 그러고는 엉뚱한 이들에게 쏟아지는 축하 세례를 조소 섞인 미소로 지켜보곤 했다.

최근 몇 년간 내가 기록한 글들을 세상에 거의 내놓지 못한 것도 바로 이런 친구의 태도 때문이지, 결코 흥미로운 소재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그의 모험에 동참한다는 것은 언제나 특권이었으나, 동시에 나에게서는 신중함과 침묵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했다.

지난 화요일, 홈즈에게 전보 한 통을 받고 나는 적잖이 놀랐다. 홈즈는 전보로 충분히 해결될 일이라면 굳이 글을 쓰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

기 때문이다. 전보의 내용은 이러했다. “콘월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건 어떤가? 내가 다룬 사건 중 가장 기이한 건이었네.”

어떤 기억의 파편이 그로 하여금 이 사건을 갑자기 떠올리게 했는지, 또 무슨 이유로 내가 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길 바라는 것인지 나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또다시 내용을 취소하는 전보가 날아오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사건의 상세한 내역이 담긴 기록을 찾아내어, 독자 여러분 앞에 이 이야기를 펼쳐 놓아야겠다.

1897년 봄이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된 업무로 인해 홈즈의 강철같은 체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때때로 스스로 저지른 부주의한 행동들이 그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을지도 모른다. 그해 3월, 할리 스트리트에 사는 무어 애거 박사가 홈즈를 찾아왔다. 그가 홈즈와 어떻게 극적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는 언젠가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애거 박사는 유명한 사설 탐정인 홈즈에게 단호하게 권고했다. 만약 완전히 쓰러지는 사태를 막고 싶다면, 지금 당장 모든 사건을 내려놓고 온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이다.

홈즈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눈곱만큼의 관심도 없었다. 그는 정신적으로 자신의 몸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일을 영영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듣고 서야, 분위기와 공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곳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우리는 그해 이른 봄, 콘월 반도 끝자락에 있는 폴두 만 근처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곳은 참으로 기묘한 장소였으며, 내 환자의 암울한 심상과도 묘하게 어울리는 곳이었다. 풀이 무성한 곳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우리의 작은 흰색 집 창밖으로는 마운츠 베이의 불길한 반원형 해안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그곳은 검은 절벽이 테두리를 두르고 파도가 몰아치는 암초들이 흩어져 있는, 범선들에게는 오래된 죽음의 함정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수많은 선원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북풍이 불어올 때면 바다는 잔잔하고 아늑하게 펼쳐져, 폭풍에 시달리는 배들이 안식과 보호를 찾아 기수를 돌리게끔 유혹하곤 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뒤바뀐다. 남서쪽에서 몰아치는 매서운 강풍이 닻을 끌어당기고, 배는 바람을 등진 해안으로 밀려든다. 거칠게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 최후의 사투가 벌어진다. 현명한 선원이라면 그 불길한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육지 쪽의 풍경 또한 바다와 마찬가지로 침울했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펼쳐진 황무지는 황갈색으로 쓸쓸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간혹 보이는 교회의 첨탑만이 이곳에 오래된 마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었다. 황무지 사방에는 이미 완전히 사라져 버린 어느 민족의 흔적이 흩어져 있었다. 그들이 남긴 유일한 기록이라곤 기이한 돌기둥이나, 죽은 이들의 타버린 유해가 담긴 불규칙한 둔덕, 그리고 선사 시대의 투쟁을 암시하는 기묘한 토성뿐이었다. 잊힌 민족들이 남긴 불길한 분위기와 이 장소 특유의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정취는 내 친구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그래서 그는 황무지를 길게 산책하거나 홀로 명상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고대 콘월어 또한 그의 관심을 끌었다. 내 기억에 그는 콘월어가 칼 데아어와 유사하며, 주석을 거래하던 페니키아 상인들로부터 유래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던 것 같다. 마침 언어학 서적들이 한 상자 배달되어, 그는 이 가설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연구에 몰두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때, 나의 유감스러운 일이자 그의 진심 어린 기쁨이 된 사건이 발생했다. 꿈결 같은 그곳에서조차 우리는 눈앞에 닥친 문제에 휘말리고 말았다. 그 문제는 런던에서 우리를 몰아세웠던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강렬하고, 매혹적이며, 무한히 신비로웠다. 우리의 소박한 삶과 평화롭고 건강한 일상은 격렬하게 깨어졌다. 우리는 콘월뿐만 아니라 영국 서부 전역을 뒤흔든 일련의 사건들 한복판으로 내던져졌다.

당시 이 사건은 '콘월의 공포'라고 불렸다. 런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매우 불완전했지만, 아마 내 독자 중 많은 이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13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이 믿기 힘든 사건의 진상을 대중에게 공개하고자 한다.

콘월의 이 지역 곳곳에는 마을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마을마다 특성들 성스러운 탑이 이정표 역할을 했다. 그중 가장 가까운 곳은 트레다닉 월라스라는 작은 마을이었다. 그곳은 이백 명 남짓한 주민이 사는 오두막들이 이끼 낀 오래된 교회 주위로 웅기종기 모여 있는 형태였다.

그 교구의 목사인 라운드헤이 씨는 고고학에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다. 그는 흥즈는 바로 그 점을 계기로 그와 안면을 텃다. 그는 중년의 남성으로, 풍채가 좋고 상냥했으며 지역 사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그의 초대를 받아 사택에서 차를 마셨다. 그 자리에서 모티머 트레게니스 씨도 알게 되었는데, 그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신사로, 목사의 넓고 듬성듬성한 사택에 방을 빌려 쓰며 부족한 목사의 수입에 보탬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다.

목사는 독신이였기에 이런 계약을 반겼다. 비록 하숙인과는 공통점이 거의 없었지만 말이다. 하숙인은 마르고 피부가 어두운 데다 안경을 쓴 남자였는데, 등이 굽어 있어 마치 신체적인 기형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짧은 방문 기간 동안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목사는 말이 아주 많았던 반면 그의 하숙인은 이상하리만큼 과묵했다. 그는 슬픈 표정으로 자기 생각에 잠긴 듯 눈을 피한 채 앉아, 마치 자신만의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3월 16일 화요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평소처럼 황무지로 나갈 준비를 하며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이었다. 그때 두 남자가 우리의 작은 거실로 불쑥 들어왔다. 바로 이들이었다.

“홈즈 씨,” 목사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밤사이 정말 기이하고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해괴한 일입니다. 마침 이 시기에 당신이 이곳에 계신 것은 하늘이 도운 일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영국 전체를 통틀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뿐이니깐요.”

나는 불쑥 끼어든 목사에게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눈초리로 노려보았다. 하지만 홈즈는 입에 물고 있던 파이프를 떼어내더니, 마치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들은 늑은 사냥개처럼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다. 흠즈가 소파 쪽으로 손짓하자, 잔뜩 긴장한 방문객과 그의 일행이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모티머 트레게니스 씨는 목사보다는 차분해 보였으나, 가느다란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떨거나 검은 눈을 번뜩이는 모습에서 두 사람이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가 먼저 말할까요, 아니면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그가 목사에게 물었다.

“그게 무엇이든 당신이 먼저 알아낸 것 같고, 목사님은 그저 전해 들은 모양이니, 당신이 직접 설명하는 게 좋겠군요.” 흠즈가 말했다.

서둘러 옷을 챙겨 입은 성직자와 그 옆에 정장을 갖춰 입고 앉아 있는 하숙생을 훑어보았다. 흠즈의 단순한 추리가 그들의 얼굴에 불러일으킨 놀라움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나왔다.

“먼저 제가 몇 마디 드리는 편이 좋겠군요.” 목사가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트레게니스 씨의 상세한 설명을 들을지, 아니면 이 기이한 사건이 발생한 현장으로 즉시 달려갈지를 결정하시지요. 우선 상황을 설명하자면, 여기 계신 우리 친구는 어제 저녁 무어(moor)에 있는 오래된 돌집자가 근처, 트레다닉 워타에 있는 본가에서 두 형제 오언과 조지, 그리고 누이 브렌다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 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식탁에 둘러앉아 카드 게임을 하던 그는 아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가족들을 떠났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난 그는 아침 식사 전 그쪽 방향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마침 리처즈 박사의 마차와 마주쳤습니다. 박사는 트레다닉 워타에 아주 급한 호출을 받

고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지요. 당연히 모티머 트레게니스 씨도 박사와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트레다닉 워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믿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두 형제와 누이는 그가 떠날 때와 똑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고, 카드들은 여전히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으며, 촛불은 촛대 바닥까지 다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누이는 의자에 앉은 채 싸늘하게 죽어 있었고, 두 형제는 누이의 양옆에 앉아 정신을 완전히 놓은 채 웃고, 소리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죽은 여인과 미쳐버린 두 남자를 포함해 세 사람 모두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공포의 경련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늙은 요리사이자 가사도우미인 포터 부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깊이 잠들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난당한 물건이나 어지럽혀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여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건장한 두 남자를 미치게 만든 이 공포의 정체가 무엇인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홈즈 씨, 이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큰 일을 해내시는 겁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내 동료들 달래서, 우리 여정의 목적이었던 평온한 상태로 되돌려 놓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강렬한 표정과 잔뜩 찌푸린 눈썹을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기대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고 불쑥 끼어든 이 기이한 사건에 완전히 몰두한 채였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조사해 보겠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인 것 같군요. 라운드헤이 씨, 당신이 직접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홈즈 씨. 트레게니스 씨가 사건의 전말을 사제관으로 전해 주었고, 저는 곧장 그와 함께 당신께 상담을 드리러 달려온 것입니다.”

“이 기이한 비극이 일어난 집까지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내륙으로 1마일 정도 들어간 곳입니다.”

“그럼 같이 걸어가도록 하죠.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모티머 트레게니스 씨.”

다른 한 사람은 내내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나는 그가 억누르고 있는 흥분이,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성직자보다 훨씬 더 격렬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로 앉아 초조한 눈빛을 홈즈에게 고정하고 있었으며, 가느다란 두 손은 경련하듯 맞잡고 있었다. 자신의 가족에게 닥친 끔찍한 비극을 듣는 동안 그의 창백한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검은 눈동자에는 그 참혹한 현장의 공포가 그대로 투영된 듯했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홈즈 씨.” 그가 간절하게 말했다. “말하기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만,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음, 홈즈 씨. 목사님 말씀대로 저도 거기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형인 조지가 휘스트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고요. 우리는 9시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자리를 뜨려던 건 10시 15분쯤이었죠.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모두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누가 당신을 내보냈습니까?”

“포터 부인이 잠자리에 들었기에 저도 그냥 나왔습니다. 복도 문도 뒤로 닫았고요. 그들이 앉아 있던 방의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문이나 창문의 상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낯선 사람이 집에 들렀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공포에 질려 완전히 미쳐버린 채 앉아 있었고, 브렌다는 의자 팔걸이 너머로 머리를 떨군 채 놀라 죽어 있었습니다. 평생 그 방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말한 사실들은 확실히 매우 놀랍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 스스로는 이 상황을 설명할 만한 어떠한 가설도 세우지 못한 상태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악마의 장난입니다, 홈즈 씨, 정말 악마의 장난이라고요!” 모티머 트레게니스가 외쳤다. “이건 이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그 방에 무언가 들어온 게 분명해요. 그 무언가가 사람들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두렵지만,” 홈즈가 말했다. “만약 이 사건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라면, 분명 제 능력 밖의 일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초자연적인 가설에 의지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가능한 모든 자연적인 설명을 다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트레게니스 씨, 당신에 대해 묻자면, 가족들과는 어떤 식으로든 떨어져 지내셨던 모양이군요? 가족들은 함께 살았는데 당신만 따로 방을 얻어 지내셨으니까요.”

“그건 사실입니다, 홈즈 씨. 하지만 이미 다 지나간 일이지요. 저희는 레드루스에서 주석 광산을 운영하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광업권을 회사에 매각했고, 덕분에 노후를 보낼 만큼의 자금을 마련해 은퇴할 수 있었죠.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한동안 사이가 틀어졌던 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용서하고 잊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친한 사이니까요.”

“함께 보낸 그날 저녁을 돌이켜보십시오. 혹시 이 비극의 실마리가 될 만한 기억이라도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트레게니스 씨, 제게 도움이 될 만한 단서가 있다면 무엇이든 좋으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생님.”

“가족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다가올 위험을 직감하고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인 적은 없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아야 할 만한 추가적인 정보는 더 없다는 말씀이 신가요?”

모티머 트레게니스는 잠시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제 등은 창문을 향하고 있었고 카드 게임 파트너였던 형 조지는 창문을 마주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지가 제 어깨 너머로 무언가를 유심히 살피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몸을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블라인드는 올라가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잔디밭에 있는 관목들은 겨우 식별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덩불 사이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아주 잠깐 들었습니다. 사람인지 동물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 거기 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조지에게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조지도 저와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조사를 하지 않았단 말인가요?”

“아니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불길한 예감도 없이 그곳을 떠나셨단 말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일찍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군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보통 아침 식사 전에 산책을 나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산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마차를 타고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포터 부인께서 급한 전갈을 전하라고 아이를 보냈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더군요. 저는 의사 선생님 옆에 올라탔고, 우리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그 끔찍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양초와 벽난로의 불은 이미 몇 시간 전에 꺼져 있었고, 그들은 동이 틀 때까지 어둠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브렌다가 죽은 지 적어도 여섯 시간은 지났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외상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의자 팔걸이에 몸을 기대는 채, 그런 표정을 짓고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지와 오언은 마치 거대한 유인원 두 마리처럼 노래를 흥얼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오, 정말이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고, 의사 선생님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급기야 선생님은 정신을 잃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는데, 하마터면 선생님까지 우리가 직접 부축해야 할 뻔했습니다.”

“놀랍군, 정말 놀라워!” 흠즈가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집어 들며 말했다. “더 지체하지 말고 바로 트레다닉 워타로 가는 게 좋겠어. 첫 눈에 이토록 기이한 문제를 던져준 사건은 참으로 드물었다고 고백하지.”

그날 아침, 우리가 처음 시작한 조사로는 별다른 진척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내 마음에 불길한 예감을 남긴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비극이 일어난 현장으로 가려면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 길을 지나야 했다.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마차 한 대가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달그락 소리가 들려왔고, 우리는 길을 비켜주기 위해 옆으로 물러났다. 마차가 우리 곁을 지나칠 때, 닫힌 창문 너머로 끔찍하게 일그러진 채 웃고 있는 얼굴이 나를 쏘아보는 것을 언뜻 보았다. 그 부릅뜬 눈과 갈가리 찢어대는 듯한 이빨은 마치 끔찍한 환영처럼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다.

“내 형제들이요!” 모티머 트레게니스가 입술이 하얗게 질린 채 외쳤다. “그들이 형제들을 헬스턴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중한 소리를 내며 멀어져 가는 검은 마차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기이한 운명을 맞이한 그 불길한 저택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크고 밝은 저택이었다. 작은 오두막이라기보다는 제법 규모가 있는 빌라에 가까웠고, 넓은 정원에는 이미 콘월의 봄 기운을 머금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거실 창문은 이 정원을 향해 나 있었다. 모티머 트레게니스의 말에 따르면, 단 한 순간의 공포만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끔찍한 사건은 분명 이 창문을 통해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는 현관에 들어서기 전, 홈즈와 함께 꽃밭 사이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홈즈는 생각에 깊이 잠겨 있었다. 기억하기로 그는

너무 몰두한 나머지 물뿌리개를 발로 건드려 넘어뜨렸고, 그 바람에 물이 쏟아져 우리의 발과 정원 길을 적시고 말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콘월 출신의 연배 있는 가정부 포터 부인이 우리를 맞이했다. 그녀는 어린 소녀의 도움을 받아 가족들의 살림을 돌보고 있었다. 포터 부인은 홈즈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밤사이에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고용주들은 최근 들어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으며, 이토록 활기차고 번창하던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아침에 방에 들어갔다가 식탁 주위에 둘러앉은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기절했었다. 정신을 차린 뒤에는 아침 공기를 들이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곧장 길 아래로 달려가 농장 소년에게 의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위층 침실에 있는 부인을 보고 싶다면 지금 볼 수 있었다. 형제들을 정신병원 이송 마차에 태우는 데는 건장한 남자 네 명이 필요했다. 포터 부인은 이 집에 단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아, 바로 오늘 오후에 세인트 아이브스에 있는 가족들에게로 떠날 예정이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 시신을 확인했다. 브렌다 트레게니스 양은 이제 중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었지만, 한때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짙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녀의 얼굴은 죽어서도 수려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느꼈을 인간적인 감정인 공포의 경련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우리는 그녀의 침실에서 내려와 이 기묘한 비극이 실제로 벌어졌던 거실로 향했다. 벽난로 안에는

밤새 타다 남은 검은 재가 흩어져 있었다. 탁자 위에는 심지가 다 타버린 양초 네 개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카드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의자들은 벽 쪽으로 밀려나 있었으나, 그 외의 모든 것은 전 날 밤의 상태 그대로였다.

홈즈는 가볍고 빠른 발걸음으로 방 안을 서성였다. 그는 여기저기 의자에 앉아 보기도 하고, 의자를 끌어당겨 원래 위치를 재구성해 보기도 했다. 정원이 어디까지 보이는지 확인하고, 바닥과 천장, 그리고 벽난로까지 살살이 살폈다. 하지만 이 칠흙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단서를 찾아냈을 때 나타나는, 홈즈 특유의 눈빛이 번뜩이거나 입술을 굳게 다무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왜 불을 피운 걸까요?” 그가 한 번은 이렇게 물었다. “봄날 저녁에 이 좁은 방에서 늘 불을 피워 두었던 말입니까?”

모티머 트레게니스 씨는 밤공기가 차고 축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는 도착하자마자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홈즈 씨?” 그가 물었다.

내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내 팔에 손을 얹었다.

“왓슨, 자네가 그토록 자주, 그리고 정당하게 비난해 왔던 그 담배 중독의 길을 다시 걷게 될 것 같네.” 홈즈가 말했다. “신사 여러분, 실례가 안 된다면 이제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새로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 나올 것 같지는 않군요. 트레게니스 씨, 제가 머릿속으로 지금까지의 사실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

다. 그러다 무언가 떠오르는 게 있다면 반드시 당신과 교구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분 모두 좋은 아침 보내시길 바랍니다.”

폴두 오두막으로 돌아온 뒤 한참이 지나서야, 흠즈는 깊은 침묵에서 마침내 깨어났다. 그는 안락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푸르스름하게 소용돌이치는 담배 연기 사이로 수척하고 금욕적인 그의 얼굴이 겨우 보일 뿐이었다. 검은 눈썹은 아래로 질게 내려앉았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초점 없는 그의 눈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마침내 그는 파이프를 내려놓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만하게, 왓슨!” 흠즈가 웃으며 말했다. “함께 절벽을 따라 걸으며 부싯돌 화살촉이라도 찾아보세. 이 사건의 단서를 찾는 것보다 화살촉을 찾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군. 충분한 재료도 없이 머리만 굴리는 건 엔진을 무리하게 가동하는 것과 같네. 결국 엔진이 망가져 버리고 말지. 바닷바람과 햇살, 그리고 인내심이라네, 왓슨. 그 외의 것들은 자연히 따라올 걸세.”

“자, 왓슨. 이제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해 보세.”

우리가 함께 절벽을 따라 걷는 동안 흠즈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아주 적은 정보부터 단단히 붙잡아 두어야 하네. 그래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을 때 바로 제자리에 끼워 맞출 수 있을 테니까. 우선, 우리 중 누구도 인간의 일에 악마가 개입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가설을 받아들이지는 않기로 하지. 그런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세. 좋네. 그럼 이제 남은 건,

누군가의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간적인 수단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세 사람뿐이군. 이건 확실한 사실이야. 자, 그럼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그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분명 모티머 트레게니스 씨가 방을 나간 직후였네.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점이야. 아마 그가 떠나고 몇 분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 카드들은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평소 잠자리에 들 시간도 이미 지났었네. 하지만 그들은 의자를 뒤로 밀거나 자세를 바꾸지도 않았어.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사건은 그가 떠난 직후에 발생했으며, 어젯밤 11시 이전의 일이었네.”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명확한 단계는 모티머 트레게니스가 방을 나선 뒤의 행적을 가능한 한 확인하는 것이네. 이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의 행적도 딱히 의심스러워 보이지는 않네. 자네도 내 방식을 잘 알고 있으니, 내가 그의 발자국을 더 선명하게 남기려고 물그릇을 이용했던 그 다소 서투른 수법을 눈치챌겠지. 다행히 모래가 섞인 젖은 길 덕분에 발자국이 아주 잘 찍혔다네. 어젯밤도 비가 왔던 걸 기억하겠지? 발자국 샘플을 미리 확보해 둔 덕분에, 다른 발자국들 사이에서 그의 흔적을 찾아내고 그 뒤를 쫓는 일은 어렵지 않았네. 그는 목사관 방향으로 꽤 빠르게 걸어간 것으로 보이더군.”

“모티머 트레게니스라는 인물이 현장에서 사라졌는데도, 외부인이 카드 놀이를 하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우리는 그 인물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또 그 공포스러운 인상을 대체 어떤 방식으로 전달한 걸까요? 포터 부인은 제외해도 좋습니다. 그녀는 분명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니까요. 누군가 정원 창가로 살금살금 다가와서, 목

격자들을 미치게 만들 정도로 끔찍한 위압감을 주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 유일하게 거론되는 건 모티머 트레게니스 본인의 말뿐입니다. 그는 형이 정원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비가 내리고 구름이 낀 어두운 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분명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할 의도를 가진 자라면,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 창문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어야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창문 밖에는 3피트 너비의 화단이 있는데, 발자국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인이 어떻게 그 일행에게 그토록 끔찍한 인상을 남길 수 있었는지 상상하기 어렵군요. 게다가 이토록 기괴하고 치밀한 시도를 했을 만한 동기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왓슨,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 이해가 갑니까?”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자료가 조금만 더 보충된다면, 이 문제들이 결코 극복하지 못할 난관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왓슨, 당신이 가진 방대한 기록물 중에서 이만큼이나 모호했던 사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군요. 일단은 더 정확한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이 사건은 잠시 제쳐둡시다. 대신 남은 오전 시간은 신석기 인류를 연구하는 데 쓰도록 하죠.”

내 친구가 지닌 정신적 분리 능력에 대해 이미 언급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능력이 이토록 경이롭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다. 콘월의 어느 봄날 아침, 홈즈는 켈트족과 화살촉, 그리고 도자기 파편에 대해 두 시간 동안이나 열띤 담론을 이어갔다. 마치 해결해야

할 불길한 미스터리 따위는 전혀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듯 아주 가벼운 태도였다. 오후가 되어 우리가 오두막으로 돌아온 뒤에야, 비로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한 방문객을 발견했고, 그 방문객은 곧 우리의 정신을 당면한 문제로 되돌려 놓았다. 그 방문객이 누구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거대한 체구, 험준한 산맥처럼 깊게 파인 주름과 매서운 눈매, 매와 같은 코, 그리고 오두막 천장에 닿을 듯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까지. 끊임없이 피워대는 시가 때문에 입술 근처가 니코틴으로 변색된 것을 제외하면 가장자리는 금빛을 띠는 수염까지. 이 모든 모습은 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런던에서도 매우 유명한 것이었다. 이 특징들은 오직 위대한 사자 사냥꾼이자 탐험가인 레온 스텐데일 박사의 압도적인 인상과 결부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이 근처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다. 황량한 무어 지대 길 위로 그의 흰칠한 체구가 지나가는 것을 한두 번 목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고, 우리 역시 그에게 말을 걸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가 여행 사이의 휴식기 대부분을 보스캠 아리앙스의 외딴 숲속, 깊숙이 자리 잡은 작은 방갈로에서 은둔하며 보낸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곳에서 책과 지도에 둘러싸인 채 철저히 고독한 삶을 살았다. 자신의 소박한 욕구에만 집중할 뿐, 이웃의 사정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러니 그가 홈즈에게 이 기묘한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진전이 있었느냐며 간절한 목소리로 묻는 모습은 내게 무척 놀라운 광경이었다.

“이 지역 경찰은 완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아마 당신의 폭넓은 경험이라면 그럴듯한 설명을 찾아내셨을지도 모르겠군요. 제가 당신의 신뢰를 얻을 만한 유일한 근거는, 이곳에 오래 머물면서 트레게니스 가문을 아주 잘 알게 되었다는 점뿐입니다. 사실 제 코니시 출신 어머니 쪽 혈통으로 따지면 그들과는 사촌 지간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니 그들에게 닥친 이 기괴한 운명은 제게도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아프리카로 떠나던 길에 이미 플리머스까지 갔었습니다만, 오늘 아침 소식을 듣고 조사를 돕기 위해 곧장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홈즈가 눈썹을 치켜올렸다.

“그것 때문에 배를 잃으신 겁니까?”

“다음 차례를 맡겠습니다.”

“세상에나! 그야말로 진정한 우정이군요.”

“분명히 친척 관계였다니까요.”

“그렇고말고요. 어머니의 사촌분들이라고 하셨죠. 짐은 배에 실려 있었습니까?”

“일부는 그렇지만, 대부분은 호텔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일이 플리머스 지역의 아침 신문에 실렸을 리는 없을 텐데요.”

“아닙니다, 선생님. 전보를 받았습니다.”

“실례지만,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탐험가의 수척한 얼굴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호기심이 참 많으시군요, 홈즈 씨.”

“제 일입니다.”

스턴데일 박사는 애써 흐트러진 평정심을 되찾았다.

“말씀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저를 다시 불러들인 전보를 보낸 사람은 라운드헤이 씨였습니다. 그분은 교구 목사님이시죠.”

“고맙소.” 홈즈가 말했다. “당신이 처음에 물었던 질문에 답하자면, 이 사건에 대해 아직 머릿속을 완전히 정리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조만간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네. 지금 더 많은 말을 하는 건 시기상조일 것 같소.”

“혹시 의심하고 계신 방향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 어렵군요.”

“그렇다면 제 시간만 낭비한 셈이니, 더는 머무를 필요가 없겠군요.”

그 유명한 의사는 몹시 불쾌한 기색으로 우리 오두막을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그리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홈즈가 그를 뒤따라 나갔다. 저녁이 되어서야 홈즈를 다시 볼 수 있었는데,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얼굴은 몹시 초췌했다. 그 모습만 보아도 조사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홈즈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전보를 힐끗 보더니, 그대로 벽난로 화로 안으로 던져버렸다.

“플리머스 호텔이야, 왓슨.” 홈즈가 말했다. “현지 목사에게 그곳 이름을 알아낸 뒤, 레온 스텐데일 박사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전보를 보냈지. 확인해 보니 그는 정말로 어젯밤 그곳에서 묵었던군. 게다가 이번 조사를 지켜보려고 돌아오면서, 짐 일부는 그대로 아프리카로 보내버렸어. 왓슨, 자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나?”

“그는 아주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네.”

“깊은 관심을 보인다—그래, 맞아.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실마리가 하나 있네. 이 실마리를 따라가다 보면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거야. 기운 내게, 왓슨. 아직 우리가 다루어야 할 단서들이 더 남아있을 거라고 확신하니까. 단서들이 모두 모이기만 하면, 지금의 난관도 곧 해결될 걸세.”

홈즈의 그 말이 얼마나 빨리 현실이 될지,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수사 방향을 열어젖힐 그 기묘하고도 불길한 전개가 얼마나 낯설게 다가올지 그때의 나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창가에서 면도를 하던 중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 보니 이룬마차(도그카트) 한 대가 길을 따라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마차는 우리 집 문 앞에 멈춰 섰고, 우리의 친구인 교구 목사가 마차에서 뛰어내려 정원 길을 따라 급히 달려왔다. 홈즈는 이미 옷을 갖춰 입은 상태였고, 우리는 그를 맞이하러 서둘러 내려갔다.

방문객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극적인 이야기를 쏟아냈다.

“홈즈 씨, 우리는 악마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제 가여운 교구마저 악마의 손아귀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사탄이 그곳에 풀려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악마의 손에 넘겨진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는 흥분한 나머지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잿빛으로 질린 얼굴과 경악에 찬 눈동자만 아니었다면, 그 모습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웠을 것이다. 마침내 그는 그 끔찍한 소식을 내뱉었다.

“모티머 트레게니스 씨가 밤사이 사망했습니다. 증상은 다른 가족들이 겪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홈즈가 벌떡 일어났다. 순식간에 활기가 넘쳐흘렀다.

“우리 둘 다 태워줄 수 있겠나? 그 이룬마차에 말일세.”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왓슨, 아침 식사는 나중에 하기로 하지. 라운드헤이 씨, 저희는 전적으로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서두르세요. 일이 엉망이 되기 전에 어서 서둘러야 합니다.”

그 세입자는 사제관의 방 두 개를 빌려 쓰고 있었다. 두 방은 구석진 곳에 따로 떨어져 있었으며, 하나가 다른 하나 위에 놓인 구조였다. 아래층은 넓은 거실이었고, 위층은 그의 침실이였다. 창밖으로는 크로케 경기장이 펼쳐져 있었는데, 잔디밭이 창문 바로 밑까지 이어져 있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의사나 경찰이 아직 오기 전이라, 현장은 전혀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안개 자욱했던 그 3월의 아침, 우리가 목격했던 장면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 보려 한다. 그 광경은 내 마음속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방 안의 공기는 끔찍할 정도로 답답하고 침울했다. 처음에 들어온 하인이 창문을 열어두지 않았더라면, 그 불쾌함은 훨씬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중앙 탁자 위에 놓인 램프가 연기를 내뿜으며 일렁이고 있는 것도 한몫했을 터였다. 그 탁자 옆에는 죽은 남자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앙상한 수염이 빠져나와 있었고, 안경은 이마 위로 밀려 올라가 있었다. 창밖을 향해 돌려진 그의 마른 검은 얼굴은 죽은 누이의 얼굴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사지는 경련한 듯 뒤틀려 있었고, 손가락은 마치 극심한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굽어 있었다. 옷은 제대로 갖춰 입은 상태였으나, 서둘러 차려입은 흔적이 역력했다. 우리는 이미 그의 침대에 잠을 잔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비극적인 최후가 이른 아침에 그를 덮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홈즈가 그 비극적인 방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보여준 급격한 변화를 목격한다면, 그의 냉정한 겉모습 아래에 얼마나 뜨거운 에너지가 용돌이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순식간에 긴장하며 정신을 바짝 차렸다. 눈은 번뜩였고 얼굴은 단호하게 굳었으며, 온몸은 열띤 활동을 갈망하듯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몰아붙이는 용맹한 폭스하운드처럼 잔디밭을 가로지르고, 창문을 넘어 방 안을 훑더니, 이내 침실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갔다. 침실에 들어선 그는 방 안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창밖에서 무언가 새로운 단서를 발견한 듯, 그는 흥분과 즐거움이 섞인 감탄사를 내뱉으며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계단을 뛰어 내려가 열린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지듯 나갔다가, 다시 잔디밭에 엎드린 채 벌떡 일어나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 모습은 마치 사냥감의 꼬리를 바짝 쫓는 사냥꾼의 기세와도 같았다.

그는 평범한 형태의 스탠드 램프를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며 램프의 몸체를 꼼꼼히 측정했다. 이어 돋보기를 들고 램프 등피 윗부분을 덮고 있는 운모 판을 면밀히 살피더니, 그 표면에 달라붙은 재를 긁어모았다. 홈즈는 그 재의 일부를 봉투에 담아 수첩에 넣었다. 마침 의사와 경찰 관리가 도착했을 때, 홈즈는 목사에게 손짓을 했고 우리 세 사람은 모두 잔디밭으로 나갔다.

“다행히도 제 조사가 완전히 헛수고로 끝나지는 않았군요.” 홈즈가 말했다. “경찰과 이 문제를 더 논의하며 여기 머물 수는 없지만, 라운드헤이 씨,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위에게 제 안부 인사를 전해주시고, 침실 창문과 거실의 램프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각각의 단서도 의미심장하지만, 두 가지를 함께 따져보면 거의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경찰 측에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코티지로 찾아오십시오.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자, 왓슨, 이제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더 생산적일 것 같군.”

경찰이 아마추어의 간섭에 불만을 품었거나, 혹은 자신들이 유망한 수사 방향을 잡았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 후 이틀 동안 경찰 측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전혀 없었다. 그동안 홈즈는 오두막에서 담배를 피우며 상념에 잠기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홀로 시골 길을 산책하며 보냈다. 그는 몇 시간씩 밖을 돌아다니다가 돌아오곤 했는데, 어디에 다녀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짐작케 한 실험이 하나 있었다. 홈즈는 비극이 일어난 날 아침, 모티머 트레게니스의 방에서 타올랐던 것과 똑같은 형태의 램프를 하나 구입했다. 그는 이 램프에 사제관에서 사용하던 것과 같은 기름을 채운 뒤,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세심하게 측정했다.

그가 진행한 또 다른 실험은 훨씬 더 불쾌한 성격의 것이었으며, 나는 아마 평생 그 장면을 잊지 못할 것이다.

“왓슨, 기억하겠지.” 어느 오후,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접한 여러 보고서 사이에는 공통점이 딱 하나 있네. 각 사건에서 방에 처음 들어선 사람들이 겪은 방 안 공기의 영향에 관한 것이지. 모티머 트레게니스가 형의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의 일을 설명하면서, 방에 들어서자마자 의사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나?

아, 잊었나? 뭐, 분명 그랬다고 내가 장담하지. 그리고 집사인 포터 부인도 방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이 기절해서 나중에 창문을 열었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할 걸세. 두 번째 사건인 모티머 트레게니스 본인의 경우도 말이야. 하인이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음에도 우리가 도착했을 때 방 안이 얼마나 끔찍하게 답답했는지 자네도 잊지 못할 거야. 나중에 알아보니 그 하인은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였던군. 왓슨, 자네도 이 사실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겠지? 모든 사례에서 공기가 독성을 띠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네. 또한 모든 사례에서 방 안에는 무언가 타고 있었어. 한 곳에서는 불이, 다른 곳에서는 등불이 말이야. 불은 필요해서 피운 것이었지만, 등불은 대낮이 한참 지난 뒤에도 켜져 있었네. 소모된 기름의 양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지. 왜 그랬을까? 분명히 세 가지 요소, 즉 연소 현상과 답답한 공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운한 사람들의 광기나 죽음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일세. 아주 명확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이는군요.”

“적어도 가설로 삼아 검토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사건에서 무언가가 타면서 기묘한 독성 효과를 일으키는 공기를 만들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좋습니다. 우선 트레게니스 가족의 사례를 보죠. 이 경우에는 불 속에 그 물질을 던져 넣었습니다. 당시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불이 붙으면 연기가 굴뚝을 타고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빠져나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증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적었던 두 번째 사건 보다는 독성의 영향이 덜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듯 보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아마도 신체가 더 민감했

을 여성만 사망했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 약물이 일으키는 첫 번째 증상인 일시적 혹은 영구적 광증만을 보였으니까요. 반면 두 번째 사건에서는 결과가 완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들은 연소 과정을 통해 작용하는 독극물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추론을 머릿속에 그려보니, 자연스레 모티머 트레게니스의 방안을 뒤져 이 물질의 흔적을 찾아보게 되더군요.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램프의 탈크 선반이나 연기 차단막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얇게 부서진 재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재의 가장자리에는 아직 다 타지 않은 갈색 가루가 테두리처럼 둘러져 있더군요. 보셨다시피 저는 그중 절반을 취해 봉투에 담았습니다.”

“왜 절반인가, 홈즈?”

“친애하는 왓슨, 경찰의 공무를 내가 방해할 수는 없지. 내가 찾아낸 증거는 모두 그들에게 넘겨줄 생각이라네. 만약 그들에게 그것을 찾아낼 지혜가 있다면, 탈크 가루에는 여전히 독이 남아 있을 거야. 자, 왓슨, 이제 등불을 켜세. 다만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우리 두 사람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창문은 열 어두도록 하지. 자네는 저 열린 창문 근처 안락의자에 앉게나. 물론 자네가 현명한 사람답게 이 일에 끼어들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말이야. 오, 끝까지 지켜봐 줄 거지? 내가 아는 왓슨이라면 그럴 줄 알았네. 의자는 자네 맞은편에 놓겠네. 그래야 독극물로부터 우리 둘 다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을 테니까. 문은 살짝 열 어두도록 하고. 이제 우리 둘은 서로를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

었으니, 만약 증상이 심상치 않다면 언제든 실험을 중단할 수 있을 걸세. 여기까지 이해됐나? 좋네, 그럼 봉투에서 가루를—아니, 남은 가루를—꺼내서 타오르는 등불 위에 올려두겠네. 자! 이제 왓슨, 앉아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세나.”

그것들이 찾아오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의자에 겨우 자리를 잡았을 무렵, 미묘하면서도 역겨운, 질고 무거운 머스크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내 뇌와 상상력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눈앞에는 검고 짙은 구름이 소용돌이쳤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곧 나의 공포에 질린 감각을 덮쳐올 그 구름 속에, 이 세상의 온갖 모호하고 끔찍한 것들, 괴기스럽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어두운 구름 떼 사이로 정체 모를 형체들이 어른거리며 헤엄치듯 움직였다. 그 형체들은 하나하나가 곧 닥쳐올 재앙의 경고 같았다. 마치 문턱 너머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려 하는 듯했고, 그 존재의 그림자만으로도 내 영혼은 파멸할 것만 같았다.

서늘한 공포가 나를 집어삼켰다.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으며, 입은 벌어진 채 혀는 가죽처럼 뻣뻣하게 굳어갔다. 뇌속의 소란이 너무 심해져서 당장이라도 무언가 끊어져 버릴 것만 같았다. 비명을 지르려 애썼지만, 내 목소리인지조차 알 수 없는 거친 신음만이 멀리 떨어진 남의 일처럼 들려왔다. 바로 그 순간,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애쓰던 나는 절망의 구름을 뚫고 흙즈의 얼굴을 보았다. 창백하고 굳어버린, 공포로 일그러진 그 얼굴은 내가 죽은 자들의 얼굴에서

보았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흠즈를 껴안았다. 우리는 함께 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나아갔다. 잠시 후, 우리는 잔디밭 위로 쓰러지듯 몸을 던졌다. 우리를 가두었던 지옥 같은 공포의 구름을 뚫고 찬란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우리는 그 햇살만을 느끼며 나란히 누워 있었다. 마치 풍경 위로 안개가 서서히 걷히듯, 공포는 우리 영혼으로부터 천천히 물러났다. 평온과 이성이 되찾아왔을 때, 우리는 잔디밭에 앉아 축축하게 젖은 이마를 닦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방금 겪은 그 끔찍한 경험의 흔적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서로를 불안한 눈빛으로 살폈다.

“맙소사, 왓슨!”

마침내 흠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네에게 고마움과 사과를 동시에 전해야겠군. 이건 나 자신에게조차 정당화할 수 없는 실험이었네. 하물며 친구에게 한 짓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지. 정말 미안하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흠즈의 진심 어린 속내를 이토록 깊이 마주한 적은 전에도 없었기에. “당신을 돕는 일은 내게 가장 큰 기쁨이자 특권입니다.”

그는 즉시 평소처럼 농담 반 냉소 반이 섞인 태도로 돌아갔다. “우리를 미치게 만든다는 건 군더더기일세, 친애하는 왓슨.” 흠즈가 말했다. “솔직한 관찰자라면 우리가 이런 무모한 실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미쳐 있었다고 단언할 게 분명하니까. 효과가 이렇게나 갑작스럽고 격렬할 줄은 나도 미쳐 몰랐네." 그는 오두막 안으로 급히 뛰어 들어갔다. 잠시 후 다시 나타난 그는 타오르는 등불을 팔을 길게 뻗어 쥐고는 가시덤불 더미 속으로 던져버렸다. "방 안의 연기가 좀 가라앉을 시간이 필요하네. 왓슨, 자네도 이제 이 비극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조금의 의구심도 남지 않았겠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군요. 이쪽 정자 안으로 들어오시죠. 같이 논의해 봅시다. 그 사악한 물질의 기운이 여전히 내 목을 죄는 것 같아 불쾌하군요. 아무래도 모든 증거가 이 사람, 모티머 트레게니스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첫 번째 비극에서는 범인이었지만, 두 번째 비극에서는 희생자가 되었지요.

우선, 가족 간의 불화가 있었고 그 후에 화해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툼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혹은 그 화해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말입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여우 같은 얼굴과 작고 영악하며 번득이는 눈을 가진 모티머 트레게니스를 떠올려 보면, 그는 결코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비극의 진짜 원인으로부터 잠시 우리의 주의를 돌리게 했던 '정원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에게서 나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우리를 오도할 동기가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방을 나설 때 그 물질을 불 속에 던져 넣은 게 아니라면, 대체 누가 그랬겠습니까? 사건은 그가 떠나자마자 일어났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면 가족들이 식탁에서 벌떡 일어났을 겁니다. 게다가 평화로운 콘월에서 밤 10시가 넘는 시간에 손님이 찾아오는 일은 드뭅니다.

결국, 모든 증거는 모티머 트레게니스가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죽은 건 자살이었군!”

“자, 왓슨.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불가능한 가설은 아니네. 자기 가족에게 그런 비극을 불러왔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그 후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가설에 반하는 몇 가지 설득력 있는 이유도 있네. 다행히 영국에 이 사건의 전말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네. 오늘 오후에 그 사람을 직접 만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로 약속해 두었지. 아, 벌써 오셨군. 예정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셨어. 레온 스텐데일 박사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실례지만 잠시만 이쪽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실내에서 화학 실험을 좀 하느라, 귀한 손님을 모시기에는 이 작은 방이 조금 어수선했군요요.”

정원 대문이 덜컹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위엄 있는 풍채의 위대한 아프리카 탐험가가 오솔길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가 앉아 있는 소박한 정자 쪽으로 의아한 듯 고개를 돌렸다.

“저를 부르셨군요, 홈즈 씨. 한 시간 전쯤 당신의 쪽지를 받았습
니다. 대체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왔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이 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동안 제 제안을 정중히 받아들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격식 없이 뵙게 된 점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 친구 왓슨과 저는 방금 신문에서 ‘콘월의 공포’라 부르는 사건에 또 하나의 장을 거의 다 써 내려간 참이라, 지금은 탁 트인 공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논의할 내용이 귀하의 개인적인 신변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누군가 엿듣지 못할 곳에서 이야기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탐험가는 입술에서 시가를 떼어내고는 내 동료를 엄한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다. “저와 이토록 사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일 중에, 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까?”

“모티머 트레게니스가 살해당한 사건 말일세.” 홈즈가 말했다.

순간 나는 무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터덴데일의 험악한 얼굴이 검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눈을 부라리며 내 동료를 향해 주먹을 꽉 쥐 채 달려들었다. 이마에는 걱정으로 부풀어 오른 핏줄이 툭 볼거져 나왔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는 억지

로 감정을 억누르며 차갑고 딱딱한 침착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모습은 차라리 방금 전의 불같은 분노보다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나는 오랫동안 야만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살아왔소.” 그가 말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법이 되는 방식에 익숙해졌지. 홈즈 씨, 이 점을 명심하는 게 좋을 거요. 나는 당신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말ियो.”

“스터덴데일 박사님, 저는 당신에게 해를 끼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고려하면, 경찰이 아니라 박사님을 먼저 불렀다는 사실이야말로 그 점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스터덴데일은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앉았다. 모험적인 삶을 살아온 그였지만, 아마도 생애 처음으로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홈즈의 태도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 있는 침착함이 깃들어 있었다. 방문객은 잠시 말을 더듬었다. 흥분한 탓에 커다란 두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안절부절못했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마침내 물었다. “홈즈 씨, 만약 이게 당신의 허풍이라면 실험 상대를 잘못 고르셨습니다. 이제 돌려 말하지 말고 본론만 말씀하시죠.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말해주겠네.” 홈즈가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건, 솔직함이 솔직함을 불러오길 바라기 때문이라네. 내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자네가 어떤 식으로 방어하느냐에 달려 있네.”

“제 변호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에 대한 방어 말씀입니까?”

“모티머 트레게니스를 살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스터덴데일은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냈다. “세상에, 정말 대단하시군요.” 그가 말했다. “당신의 그 모든 성공이 이 엄청난 허풍에 달려 있는 겁니까?”

“레온 스톨텐데일 박사님, 상황은 제 쪽이 아니라 박사님 쪽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홈즈가 엄중하게 말했다. “그 증거로, 제 결론이 어떤 사실들에 근거하고 있는지 몇 가지 말씀드리지요. 우선 박사님께서 재산의 상당 부분은 아프리카로 계속 실려 가도록 내버려 둔 채 플리머스에서 돌아오신 일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야말로 박사님이 이번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 중 하나임을 제게 처음으로 알려 주었다는 점 외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돌아왔네—”

“당신의 변명을 들었지만, 설득력이 없을뿐더러 충분치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쯤 해두죠. 당신은 내가 누구를 의심하고 있는지 물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당신은 사제관으로 가서 한동안 밖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당신을 미행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뒤쫓으면 이런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당신은 오두막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고, 어떤 계획을 세웠지요. 그리고 이른 아침,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문을 나서면서, 당신은 대문 옆에 쌓여 있던 붉은 자갈을 주머니 가득 채웠습니다.”

스터덴테일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경악스러운 눈빛으로 흠즈를 바라보았다.

“그 후 당신은 사제관까지 이어진 1마일 남짓한 길을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때 당신은 지금 신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골지 형태의 테니스화를 신고 있었죠. 사제관에 도착한 당신은 과수원과 옆쪽 울타리를 지나, 세입자인 트레게니스의 창문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이미 날은 밝았지만 집안 식구들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신은 주머니에서 자갈을 한 움큼 꺼내어 머리 위 창문을 향해 던졌습니다.”

스터덴테일이 벌떡 일어났다.

“당신은 분명 악마임이 틀림없어!” 그가 외쳤다.

홈즈는 칭찬에 미소를 지었다. “세입자가 창가로 나오기까지 두 줌, 어쩌면 세 줌의 자갈을 던져야 했지요. 당신은 그에게 내려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거실로 내려왔고요. 당신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짧은 면담이 이어졌고, 그동안 당신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밖으로 나가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다음엔 잔디밭에 서서 시가를 피우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았지요. 마침내 트레게니스가 사망하자, 당신은 처음 들어왔던 방식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자, 스테텐데일 박사님. 당신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을 벌인 겁니까? 만약 저를 속이려 들거나 장난스럽게 대하신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제 손을 떠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우리 앞에 앉은 방문객은 자신을 고발하는 말을 듣더니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한동안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충동적인 몸짓으로 가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더니, 우리 앞의 투박한 탁자 위로 내던졌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일을 저지른 이유입니다.” 그가 말했다.

사진에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의 상반신과 얼굴이 담겨 있었다. 홈즈가 그 위로 몸을 굽혔다.

“브렌다 트레게니스입니다.” 그가 말했다.

“네, 브렌다 트레게니스입니다.” 방문객이 말을 되풀이했다. “수년 동안 그녀를 사랑해 왔습니다. 그녀 또한 수년 동안 저를 사랑했고요. 사람들이 그토록 경이롭게 바라보던 콘월의 그 은둔 생활에는 이런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곳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곁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아내가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수년 전 저를 떠났지만, 영국의 비참한 법률 때문에 저는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브렌다는 수년 동안 기다렸고, 저 또한 수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순간을 기다려 온 것입니다.”

거구의 몸이 처절한 흐느낌에 크게 들썩였다. 그는 얼룩진 수염 아래로 목을 움켜쥐었다. 그러다 그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말을 이어갔다.

“교구 신부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신부님은 제 속사정을 다 아는 분이니까요. 신부님께 여쭙보신다면, 그녀가 지상에 내려온 천사와 같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바로 그 소식 때문에 신부님이 제게 전보를 보내셨고, 제가 돌아온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그런 비극이 닥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아프리카에 두고 온 짐 따위가 제게 무슨 상관이었겠습니까? 흠즈 씨, 이것이 바로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계속하게.” 내 친구가 말했다.

스터덴데일 박사는 주머니에서 종이 꾸러미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꾸러미 겉면에는 ‘_Radix pedis diaboli_’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붉은색 독극물 경고 라벨이 붙어 있었다. 그는 꾸러미를 내 쪽으로 밀어 놓으며 말했다.

“선생님께서 의사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약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악마의 발 뿌리라고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박사님의 전문 지식을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부다의 한 실험실에 있는 표본 하나를 제외하면, 유럽 전체를 통틀어 이 약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 약전에도 등재되지 않았고, 독성학 문헌에도 실리지 않은 물건이죠. 뿌리는 인간과 염소가 반씩 섞인 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식물학 선교사가 붙인 기묘한 이름이 붙었지요. 서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서는 주술사들이 시련을 가하는 독약으로 사용하는데, 그들 사이에서도 비밀리에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가져온 이 표본은 우방기 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상황을 거쳐 얻은 것입니다.” 그는 말을 이어가며 종이를 펼쳤다. 그 안에는 적갈색의 코담배 가루 같은 가루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홈즈가 엄하게 물었다.

“홈즈 씨, 이제 실제로 일어난 모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계시니, 제가 모든 사실을 당신에게 알리는 것이 분명 저에게도 이득이니깐요. 우선 제가 트레게니스 가문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는 그 누이를 위해서 형제들과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당시 그 집안에는 돈 문제로 인한 불화가 있었고, 그 때문에 모티머라는 이 남자가 가족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이미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에 저는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치밀하며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 몇 가지 의심스러운 일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와 직접적으로 다툼 만한 명확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어느 날이었지요. 그가 우리 오두막으로 찾아왔길래 제가 수집한 아프리카의 희귀한 골동품들을 몇 점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물건 중에서도 특히 이 가루를 보여주며 그 기이한 효능에 대해 설명해 주었지요. 이 가루가 공포를 관장하는 뇌 중추를 어떻게 자극하는지, 그리고 부족의 사제에게 이 시련을 겪게 된 불행한 원주민이 결국 미치거나 죽게 된다는 사실도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유럽의 과학 기술로는 이 가루의 존재를 결코 알아낼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지요.

그가 그것을 어떻게 가져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방을 비운 적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진열장을 열고 상자들을 살피느라 몸을 굽히고 있던 그 틈을 타서, 그가 이 악마의 발 뿌리 가루를 얼마간 훔쳐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가루의 양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집요하게 물어보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그토록 개인적인 목적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플리머스에서 교구 목사님의 전보를 받기 전까지, 저는 그 사건을 더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악당은 소식이 제게 닿기도 전에 제가 이미 바다로 떠났을 것이고, 아프리카에서 몇 년 동안은 돌아오지 못하리라 여겼겠지요. 하지만 저는 즉시 돌아왔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막을 듣고 나니 제가 만든 독이 사용되었다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에게 다른 설명이 떠오르지는 않았을까 하는 기대에 찾아온 것이었지만, 다른 설명 따위는 있을 수 없었지요.

저는 모티머 트레게니스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돈을 목적으로, 어쩌면 가족들이 모두 미쳐버리면 자신이 공동 재산의 유일한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악마의 발자국' 가루를 사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그 가루로 가족 두 명을 미치게 만들었고, 제가 유일하게 사랑했거나 혹은 저를 사랑해 주었던 단 한 사람인 누이 브렌다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져야 하겠습니까?

“법에 호소해야 했을까요? 제게 증거가 있었습니까? 사실이 진실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동포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그토록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믿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실패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영혼은 복수를 갈망하고 있었으니까요. 흠즈 씨,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상당 부분을 법의 테두리 밖에서 보냈고, 결국 스스로가 하나의 법이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다른 이들

에게 내렸던 운명을 그 자신도 똑같이 겪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제 손으로 직접 그에게 심판을 내리겠다고 다짐했지요. 지금 이 순간, 영국 전체를 통틀어 저만큼 자신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당신이 직접 알아 내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잠을 설친 뒤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를 깨우는 게 쉽지 않으리라는 걸 직감했기에, 당신이 언급한 그 자갈 더미에서 자갈을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의 창문 쪽으로 던졌지요. 그는 내려와서 거실 창문을 통해 저를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지른 죄를 낱알이 들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판관이자 집행관으로서 이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비열한 자는 제 리볼버를 보고는 몸이 굳어버린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등불을 켜고 그 위에 가루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방을 나가려 한다면 즉시 쏠 것이라는 위협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마친 채 창밖에서 기다렸습니다. 5분 만에 그는 죽었습니다. 세상에,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제 마음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자가 겪은 고통은 제 순결한 사랑이 이미 겪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흠즈 씨,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아마 당신도 여자를 사랑했다면 저와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어찌 됐든, 이제 제 처분은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보다 죽음을 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흠즈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침내 그가 물었다.

“중부 아프리카에 틀어박혀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려던 제 일은 아직 절반밖에 끝내지 못했으니까요.

“가서 나머지 절반을 마저 하게.” 홈즈가 말했다. “적어도 나는 자네를 말릴 생각이 없네.”

스터덴데일 박사는 거구의 몸을 일으켜 엄숙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정자에서 물러났다. 홈즈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는 내게 담배 주머니를 건넸다.

“독성이 없는 연기라면 차라리 반가운 변화겠군.” 그가 말했다. “왓슨, 자네도 동의하겠지. 이번 일은 우리가 직접 개입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말아야. 지금까지 우리는 독자적으로 조사해 왔고, 앞으로의 조치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될 걸세. 자네, 그 사람을 고발하지는 않겠나?”

“절대 아닙니다.” 내가 대답했다.

“왓슨, 난 지금까지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네. 하지만 만약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고, 그 여인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면, 나 역시 저 법도 없는 사자 사냥꾼처럼 행동했을지도 모르지. 누가 알겠나? 자, 왓슨. 뻔한 사실을 구태여 설명해서 자네의 명석한 지성을 모욕하고 싶지는 않네.

물론 내 조사의 시작점은 창틀에 떨어진 자갈이었네. 그 자갈은 교구 목사님 댁 정원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종류였지. 그러다 스테텐 데일 박사와 그의 오두막에 주의가 쏠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과 똑같은 자갈을 찾아냈네. 대낮에 켜져 있던 등불과 방패에 남은 가루 잔해 역시 아주 명백한 단서의 연결 고리였고 말이야.

자, 이제 친애하는 왓슨, 이 사건은 이쯤에서 잊어버리세.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연구에 몰두하자고. 위대한 켈트어의 콘월 방언에서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그 칼데아 어근 연구 말일세.

붉은 원

붉은 원의 모험

제1부

“워렌 부인, 딱히 불안해하실 만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제 시간도 꽤 귀한 법인데, 제가 왜 이 일에 참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군요.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다른 일들이 아주 많거든요.”

셜록 홈즈는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커다란 스크랩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최근에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색인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여주인은 여성 특유의 집요함과 영악함을 겸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버텼다.

“작년에 제 세입자를 위해 일 하나를 주선했 주셨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페어데일 홈스 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야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베풀어 준 친절, 그리고 어둠 속에 있던 그에게 어떻게 빛을 비추어 주었는지 말입니다. 저 역시 의구심과 암담함에 빠져 있을 때마다 그가 남긴 말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저 마음만 먹는다면 말입니다.”

홈즈는 아침을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었으며, 공정하게 말하자면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도 너그러운 편이었다. 그 두 가지 힘이 작용하자, 홈즈는 체념 섞인 한숨을 내쉬며 손에 들고 있던 고무 붓을 내려놓고 의자를 뒤로 밀어냈다.

“자, 워렌 부인, 그럼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담배는 괜찮으시겠지요? 고맙네, 왓슨—성냥 좀 주게! 부인, 제가 듣기로는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기에 불안하시다는 거죠? 아이고, 워렌 부인, 만약 제가 그 세입자라면 부인은 저를 몇 주 동안이나 못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선생님. 하지만 이번 일은 다릅니다. 홈즈 씨, 정말 무서워요. 겁이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가 이쪽저쪽을 바쁘게 오가는 발소리가 들리는데, 정작 그 사람의 모습은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으니,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남편도 저만큼이나 불안해하고 있지만, 남편은 온종일 일하러 나가 있잖아요. 저는 이 공포 속에서 한시도 쉴 수가 없고요. 대체 그가 무엇을 숨기려고 저러는 걸까요?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요? 하녀 말고는 집안에 그와 저뿐인데, 제 신경이 이 상황을 더는 버텨내질 못하겠어요.”

홈즈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여인의 어깨 위에 얹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상대를 최면에 걸린 듯 진정시키는 묘한 힘이 있었다. 여인의 눈에 서려 있던 공포가 사라졌다. 격앙되었던 얼굴 표정도 이내 평소의 평범한 모습으로 차분히 가라앉았다. 여인은 홈즈가 가리킨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내가 이 일을 맡게 된다면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히 파악해야 하네.” 홈즈가 말했다.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 보게. 아주 사소한 점이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열흘 전에 와서 2주 치 숙식비를 미리 지불했다는 말이지?”

“그분이 제게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일주일 50실링이라고 말씀드렸죠. 집 꼭대기 층에 작은 거실과 침실이 딸린, 모든 시설이 완비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조건대로만 해준다면 매주 5파운드씩 주겠소.’ 선생님, 전 가난한 여자예요. 워렌 씨도 버는 게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돈이 제게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곧장 10파운드 지폐를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그러고는 말했죠. ‘조건만 잘 지킨다면 앞으로 오랫동안 2주마다 똑같은 금액을 줄 수 있소. 하지만 지키지 못한다면, 다시는 당신과 엮일 일은 없을 거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선생님. 우선 그에게 집 열쇠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 없었지요. 하숙인에게 열쇠를 주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를 완전히 혼자 두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붙였고요.”

“그게 뭐 그리 놀라운 일이라고요?”

“상식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선생님. 이건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일이에요. 그가 그곳에 머문 지 열흘이 지났지만, 워렌 씨도 저도, 그 소녀도 단 한 번도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그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내딛는 그 빠른 발소리는 들려요. 하지만 첫날 밤을 제외하고는, 그는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 그가 첫날 밤에 나갔단 말입니까?”

“네, 손님. 아주 늦게 돌아오셨습니다. 저희가 모두 잠든 뒤였지요. 방을 잡으신 뒤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문을 걸어 잠그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그분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벨이 울리면 식사는 항상 문밖 의자에 그대로 두라고 말이죠. 식사를 마치시면 다시 벨을 누르실 테니, 그때 저희가 같은 의자에서 식사를 가져오면 됩니다. 만약 다른 것이 필요하시면 종이에 적어서 내놓으십니다.”

“인쇄를 한다고요?”

“네, 손님. 연필로 적어둡니다. 딱 단어 하나만 적을 뿐, 그 이상은 없습니다. 여기 제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바로 ‘비누(SOAP)’라고 적힌 겁니다. 여기 다른 것도 있습니다. ‘성냥(MATCH)’이라고 적혀 있군요. 이걸 그가 첫날 아침에 남겨둔 겁니다. ‘데일리 가제트(DAILY GAZETTE)’. 저는 매일 아침 그의 아침 식사와 함께 그 신문을 가져다둡니다.”

“이런, 왓슨.”

홈즈가 집주인이 건네준 연습장 종이 조각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확실히 좀 특이하군. 은둔하려는 의도라면 이해하겠네만, 왜 굳이 인쇄를 했을까? 인쇄는 번거로운 작업 아닌가. 그냥 직접 쓰면 될 것을 말이야. 왓슨, 자네가 보기엔 이게 무엇을 암시하는 것 같나?”

“자신의 필적을 숨기고 싶어 했다는 것이지.”

“하지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집주인이 그의 글을 한두 마디 읽는 게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당신 말대로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또 왜 이렇게 메시지를 짧게만 보내는 걸까요?”

“도저히 상상조차 안 되는군요.”

“지적인 추측을 해보기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지. 글씨는 끝이 뭉툭하고 보랏빛이 도는 연필로 쓰였는데,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야. 그리고 여기를 보게. 인쇄가 끝난 뒤 종이 옆면이 뜯겨 나가서 ‘SOAP’의 ‘S’ 자가 일부분 지워져 있지? 왓슨,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은가?”

“주의를 기울이라 말씀입니까?”

“정확합니다. 분명히 어떤 흔적이 있었을 겁니다. 지문이든 뭐든, 그 사람의 정체를 밝혀줄 단서가 말이죠. 자, 워렌 부인, 아까 그 남자는 체격이 중간 정도에 피부가 검고 수염을 길렀다고 하셨죠. 나이는 어느 정도 되어 보였습니까?”

“젊은 편입니다, 선생님. 서른은 안 넘었을 겁니다.”

“글쎄요, 더 알려주실 만한 단서는 없습니까?”

“그분은 영어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말투를 들어보니 외국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옷차림은 깔끔했습니까?”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선생님. 영락없는 신사였지요.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어서 딱히 눈에 띄는 구석은 없었습니다.”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그럼 편지나 찾아온 손님은 전혀 없었던 말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당신이나 그 아가씨가 아침마다 그의 방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그는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합니다.”

“세상에! 정말 놀랍군요. 그의 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커다란 갈색 가방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글쎄요, 우리를 도와줄 만한 단서가 별로 없는 것 같군요. 그 방에서 정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단 하나도 말입니다.”

여주인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러고는 봉투를 흔들어 탄성냥 두 개와 담배꽂초 하나를 탁자 위에 털어 놓았다.

“오늘 아침 홈즈 씨의 쟁반 위에 놓여 있던 것들입니다. 작은 것에서도 아주 큰 사실을 읽어낼 수 있다고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홈즈가 어깨를 으쓱했다.

“여기엔 아무것도 없군.” 그가 말했다. “성냥은 당연히 담배를 붙이는 데 쓰였어. 타버린 끝부분이 짧은 걸 보니 명백하지. 파이프나 시가에 불을 붙일 때는 성냥의 절반 정도가 타버리거든. 그런데, 이런! 이

담배꽂초는 정말 특이하군. 아까 그 신사가 수염과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고 했나?”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군. 내 생각엔 면도를 깨끗이 한 사람만이 이 담배를 피웠을 거야. 아니, 왓슨, 자네의 그 겸손한 콧수염이라도 이 정도면 다 타버렸을 거라고.”

“홀더 말씀이십니까?” 내가 제안하듯 물었다.

“아니요, 아닙니다. 끝부분이 엉켜 있군요. 워렌 부인, 혹시 그 방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건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선생님. 워낙 적게 드셔서, 저 사람은 그 정도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글쎄요, 자료가 좀 더 모일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당신이 불평할 만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월세도 제때 받고 있고, 그 세입자가 확실히 특이하긴 해도 딱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월세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으니, 그가 숨어서 지내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가 무언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명분도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맡았으니 절대 잊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왓슨, 이번 사건에는 분명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네.” 집주인이 우리를 떠난 뒤 홈즈가 말했다. “물론 별것 아닌 개인의 기행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내막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지금 이 방을 쓰고 있는 사람이 처음 방을 빌렸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이라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이 담배꽂초를 제외하더라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하숙인이 방을 빌린 직후에만 유일하게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 말일세. 그는 목격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돌아왔어. 아니, 누군가가 돌아온 것이지. 나간 사람이 돌아온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네. 게다가 방을 빌린 남자는 영어를 아주 잘했지. 하지만 이 남자가 쓴 글에는 ‘matches’라고 써야 할 자리에 ‘match’라고 적혀 있군. 사전을 찾아보고 단어를 옮겨 적느라 복수형을 놓친 게 아닐까 싶네. 이렇게 말을 아끼는 건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숨기려는 수법일 수도 있고 말이야. 그래, 왓슨. 하숙인이 중간에 바뀌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네.”

“대체 무엇을 위해서란 말인가?”

“아!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네. 꽤 명백한 수사 방향이 하나 보이는군.” 홈즈는 매일같이 런던 여러 신문의 광고란을 기록해 두는 커다란 장부를 꺼내 들었다. “세상에!”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신음과 비명, 애원하는 소리들이 아주 가득하군! 기이한 사건들이 뒤섞인 잡

동사니 같아. 하지만 기이한 일을 연구하는 학자에게 이보다 더 값진
 사냥터는 없을 거야! 이 사람은 혼자 지내고 있어서, 요구되는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려면 편지로 접근할 수도 없네. 그렇다면 외부에서 어떻
 게 소식이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나? 당연히 신문 광고를 통하는 수
 밖에 없지. 다른 방법은 없어 보여. 다행히 우리는 신문 한 곳만 신경
 쓰면 되네. 여기 지난 2주 동안 《데일리 가제트》에 실린 발췌본들이
 있어. ‘프린스 스케이트 클럽의 검은 깃털 장식을 한 숙녀’—이건 넘어
 가지. ‘지미가 설마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겠지’—이건 무
 관해 보이는군. ‘브릭스톤 버스에서 기절한 숙녀가 만약’—이 여자에
 겐 관심 없네. ‘매일 내 마음은 갈망하네—’ 왓슨, 이건 그냥 징징거리는
 소리일 뿐이야! 아주 지독한 징징거림이지! 아, 이건 좀 가능성이 있
 겠군. 이것 좀 들어보게. ‘인내하십시오. 확실한 연락 방법을 찾아내겠
 습니다. 그동안 이 광고란을 확인하십시오. G.’ 워렌 부인의 하숙인이
 도착하고 이틀 뒤에 실린 내용이야. 그럴듯하지 않나? 그 신비로운 인
 물이 영어를 직접 인쇄할 수는 없더라도, 읽을 줄은 알 테니까. 자, 다
 시 흔적을 찾아보세. 그래, 여기 있군. 3일 뒤의 내용이야. ‘성공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인내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구름은 곧 걷힐 것입니
 다. G.’ 그 후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다 훨씬 더 구체적
 인 내용이 나왔군.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회에 신호 메시지를 보내
 면 약속한 암호를 기억하십시오. 1은 A, 2는 B,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곧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G.’ 이건 어제 신문에 실린 것이고, 오늘
 신문에는 아무것도 없어. 워렌 부인의 하숙인 상황에 아주 딱 들어맞는
 군. 왓슨,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 의문의 사건이 점점 더 명확해질 거
 라 확신하네.”

실제로 그러했다. 다음 날 아침, 내 친구는 벽난로 앞 카펫 위에 서 있었다. 그는 벽난로를 등진 채,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것 좀 봐, 왓슨!”

홈즈가 탁자 위에 놓인 신문을 집어 들며 외쳤다.

“흰 돌로 외벽을 마감한 높은 붉은 집. 3층. 왼쪽에서 두 번째 창문. 해가 진 뒤. G.’ 아주 명확하군.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워렌 부인의 집 근처를 미리 좀 살펴봐야겠어. 아, 워렌 부인! 오늘 아침엔 또 어떤 소식을 가져오셨나?”

의뢰인이 갑자기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무언가 중대하고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음을 알리는, 폭발적인 기세였다.

“이건 경찰이 말아야 할 일이에요, 홈즈 씨!” 그녀가 외쳤다. “더는 못 참겠어요! 그 사람, 짐 싸서 당장 나가게 할 거예요. 당장 올라가서 그렇게 말해버릴 수도 있었지만, 홈즈 씨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게 예의인 것 같아 참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인내심도 바닥났어요. 게다가 내 남편한테까지 손찌검을 하는 지경이 되니—!”

“워렌 씨를 괴롭히고 있다고요?”

“어쨌든, 그를 거칠게 다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를 거칠게 다룬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아! 바로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선생님. 워렌 씨는 토트넘 코트 로드에는 모턴 앤 웨이라이트 상점의 근태 기록원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7시 전에는 집을 나서야 하죠. 그런데 오늘 아침, 그가 길을 따라 열 걸음도 채 떼기 전에 뒤에서 남자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워렌 씨의 머리 위로 코트를 덮어씌우더니, 길가에 대기 중이던 마차 안으로 그를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마차는 한 시간 동안 그를 태우고 달렸고, 그러더니 문을 열고 그를 길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워렌 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을 못 차리는 바람에 마차가 어디로 사라졌는지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겨우 몸을 추스르고 보니 햄스테드 히스였기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집 소파에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바로 말씀드리려고 달려온 것입니다.”

“아주 흥미롭군.” 홈즈가 말했다. “그가 그 사람들의 외모를 관찰했나? 아니면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나?”

“아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저 마법에 걸린 듯 몸이 붕 떠올랐다가, 다시 마법처럼 툭 떨어졌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요. 최소한 두 명, 어쩌면 세 명은 가담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격이 당신의 세입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거기서 15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한테는 질릴 대로 질렸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반드시 그를 집에서 쫓아내고 말 겁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워렌 부인.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처음 보였던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 상황을 보니 당신의 세입자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안개가 자욱한 아침 빛 속에서 당신의 집 문 근처에 잠복해 있던 적들이, 당신의 남편을 세입자로 착각했다는 사실도 명백합니다. 그들은 실수를 깨닫고 남편분을 놓아주었지요. 만약 착각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는 그저 짐작만 할 뿐입니다.”

“자, 그럼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홈즈 씨?”

“워렌 부인, 당신네 집에 머무는 그 세입자를 꼭 한번 보고 싶군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는 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쟁반을 내려놓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그가 문을 여는 소리가 항상 들리거든요.”

“그가 쟁반을 들고 들어와야만 해요. 우리가 몸을 숨기고 그가 들어오는 걸 지켜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주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 손님. 맞은편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거울을 하나 거저다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문 뒤에 숨어 계시면—”

“훌륭하군!” 홈즈가 말했다. “그는 언제 점심을 먹지?”

“한 시쯤입니다, 선생님.”

“그럼 왓슨 박사와 저는 때가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워런 부인,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12시 반이 되었을 때, 우리는 워런 부인의 집 계단 앞에 도착했다. 그 집은 그레이트 오름가에 자리 잡은 높고 가느다란 노란 벽돌 건물이었다. 그레이트 오름가는 대영박물관 북동쪽에 있는 좁은 길이었다. 집이 길모퉁이 근처에 있어서인지, 그곳에서는 화려한 저택들이 늘어서 하우스까지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홈즈는 길길거리며 그 저택들 중 하나를 가리켰다. 유독 툭 튀어나와 있어서 눈에 확 띌 수밖에 없는 연립 주택이었다.

“보게, 왓슨!” 홈즈가 말했다. “‘돌을 입힌 높은 붉은 집’이라니. 틀림없이 저기가 신호 기지군. 장소도 알고 암호도 알고 있으니, 우리 임무는 아주 간단할 거야. 저 창문에 ‘임대’ 표지판이 붙어 있군. 공범이 드나들 수 있는 빈집이 분명해. 자, 워런 부인, 이제 어떻게 할까요?”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두 분 다 위로 올라오시되, 부츠는 아래층 계단참에 벗어두고 오십시오. 지금 바로 그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마련한 은신처는 아주 훌륭했다. 거울의 위치가 절묘해서, 어둠 속에 앉아 있어도 맞은편 문이 아주 또렷하게 보였다. 우리가 자리를 잡자마자 워런 부인이 자리를 비웠고, 곧이어 멀리서 들려오는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정체를 모를 이웃이 벨을 눌렀음을 알렸다. 잠시 후

여관 주인이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주인은 닫힌 문 옆 의자 위에 쟁반을 내려놓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방을 나갔다. 우리는 문 모서리에 몸을 바짝 붙이고 앉아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주인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순간, 갑자기 열쇠가 돌아가는 끼익 소리가 들렸다. 문손잡이가 돌아가더니, 가느다란 두 손이 쑥 튀어나와 의자 위의 쟁반을 낚아채 갔다. 찰나의 순간 뒤에 쟁반이 서둘러 제 자리에 놓였고, 나는 공포에 질린 채 형형한 눈빛으로 창고의 좁은 틈을 노려보는 어둡고 아름다운 얼굴을 언뜻 보았다. 곧이어 문이 쿵 하고 닫혔고, 열쇠가 다시 한 번 돌아가더니 사방이 고요해졌다. 흠즈가 내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고, 우리는 함께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가 기대에 찬 눈빛을 보내는 여주인에게 말했다. 그러고는 왓슨을 돌아보며 덧붙였다.

“왓슨, 이 일은 우리 방으로 돌아가서 차분히 논의하는 게 좋겠네.”

“보시다시피 내 추측이 맞았군.” 안락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흠즈가 말했다. “세입자가 바뀌었어. 하지만 왓슨,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건 그 자리에 여자가 나타날 줄은 몰랐다는 거야. 그것도 아주 보통 여자가 아닌 여자가 말이지.”

“그녀가 우리를 봤어.”

“글쎄요, 그녀는 분명 무언가 놀랄 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은 꽤 명확하지 않습니까? 한 부부가 매우 끔찍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피해 런던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남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하는 동안 여자를 완벽하게 안전한 곳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아주 효과적이었던 나머지, 음식을 가져다주는 여주인조차 그녀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이제 드러난 바와 같이, 인쇄된 메시지를 사용한 건 글씨체를 통해 여자의 성별이 탄로 나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적들에게 그녀의 위치를 알려주는 꼴이 되니까요.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신문의 고통 광고란을 이용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명확하군요.”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 그래요, 왓슨. 역시 평소처럼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군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워렌 부인이 겪는 이 변덕스러운 문제는 사건이 진행될수록 규모가 커지더니, 이제는 훨씬 불길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당신도 위험이 닥쳤을 때 그 여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까? 집주인이 습격당했다는 소식도 들었지요. 그 공격은 분명 세입자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고 신호들과 비밀을 지켜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을 보면, 이 문제는 생사가 걸린 일임이 분명합니다. 워렌 씨가 공격받았다는 사실은 적이 누구든 간에,

그들조차 남성 세입자 대신 여성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기묘하고도 복잡한 일이군요, 왓슨."

"왜 거기까지 더 파고들려 하십니까? 그 일로 얻을 게 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단 말인가? 이건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네, 왓슨. 자네도 의사 시절에 보수를 생각하지 않고 환자를 돌본 적이 있지 않았나?"

"제 공부를 위해서 말입니다, 홈즈."

"배움에는 끝이 없다네, 왓슨. 배움이란 연속되는 수업과도 같아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언제나 마지막에 찾아오는 법이지. 이번 사건은 아주 교훈적이네. 금전적 이득도, 명성도 얻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사건을 깔끔하게 매듭짓고 싶어지는군. 해가 저물 때쯤이면 우리 수사도 한 단계 진전되어 있을 걸세."

워렌 부인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런던의 겨울 저녁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회색빛 장막이 드리워진 듯 단조롭고 죽은 듯한 색채뿐이었으며, 오직 창문에서 새어 나오는 날카로운 노란 사각형 빛과 가스등이 만들어낸 흐릿한 후광만이 그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하숙집의 어두운 거실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 저 멀리 어둠 너머 높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며 나타났다.

"저 방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어."

홈즈가 속삭이며 말했다. 수척하면서도 열의에 찬 그의 얼굴이 창유리 쪽으로 바짝 다가갔다.

“그래, 그림자가 보여. 저기 다시 나타났군! 손에 양초를 들고 있어. 이제 건너편을 살피는군. 그녀가 망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야. 이제 빛을 깜빡이기 시작했어. 왓슨, 메시지도 같이 받아 적게.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한 번의 깜빡임—저건 분명 A야. 자, 이제 몇 번인지 세어 보게. 스무 번이라고? 나도 마찬가지로. 그럼 T가 되겠군. AT—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조합이야. 또 다른 T가 나왔어. 분명 두 번째 단어의 시작일 걸세. 자, 어디 보자—TENTA. 여기서 딱 끊겼군. 왓슨, 이게 전부일 리는 없겠지? ATTENTA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AT, TEN, TA라고 세 단어로 나눠 봐도 T. A.가 누군가의 이름이니셜이 아닌 이상 별 의미가 없네. 저기, 다시 움직인다! 방금 그건 뭐지? ATTE—아니, 아까와 똑같은 메시지잖아. 이상하군, 왓슨. 아주 이상해. 이제 다시 움직이는군! AT—세 번째로 반복하고 있어. ATTENTA를 세 번이나! 대체 몇 번이나 더 반복할 셈이지? 아니, 이제 끝난 모양이군. 창가에서 물러났어. 왓슨,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암호문이야, 홈즈.”

내 동료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듯 갑자기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왓슨, 그리 복잡한 암호도 아니야.” 홈즈가 말했다. “이건 당연히 이탈리아어잖아! 첫 글자 A는 수신인이 여성이라는 뜻이고.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어때, 왓슨? 이제 알겠나?”

“정확히 짚으셨군요.”

“의심할 여지 없네. 아주 긴급한 메시지야. 그 긴박함을 더하려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보낸 거지. 그런데 무엇을 조심하라는 건가? 잠깐만, 그가 다시 창가로 다가오고 있군.”

신호가 다시 시작되자, 창밖으로 몸을 웅크린 남자의 희미한 실루엣과 작은 불꽃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신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였다. 너무나 빨라서 눈으로 그 흐름을 따라가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페리콜로(PERICOLO)…… 페리콜로…… 에, 이게 뭐지, 왓슨? ‘위험’이라는 뜻 아닌가? 그렇군, 세상에, 위험 신호야. 또 시작이군! 페리……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갑자기 불이 꺼졌다. 창문에서 새어 나오던 희미한 빛의 사각형도 사라졌다. 빛나던 창문들이 층층이 늘어선 높은 건물 주위로, 3층 부분은 마치 어두운 띠를 두른 듯 검게 변했다. 마지막 경고의 비명은 돌연 끊기고 말았다. 대체 어떻게, 그리고 누가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일까? 우리 둘의 머릿속에는 동시에 같은 의문이 스쳤다. 홈즈는 창가에 웅크리고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심각한 문제야, 왓슨.” 홈즈가 외쳤다. “무언가 아주 교활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어! 왜 이런 메시지가 갑자기 끊겨버린 거지? 스코틀랜드 야드에 이 사건을 넘겨야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고는 못 배길 만큼 상황이 급박하군.”

“경찰을 부를까요?”

“상황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해야 하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해한 상황일지도 모르니까. 자, 왓슨.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 가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지 직접 눈으로 보려는 걸세.”

제2부

하우가를 따라 빠르게 걸음을 옮기며, 나는 우리가 떠나온 건물을 뒤돌아보았다. 꼭대기 층 창가에 희미한 윤곽이 보였다. 한 여인의 머리 그림자였다. 그녀는 밤의 어둠 속을 팽팽하고 굳은 자세로 응시하고 있었다. 끊겼던 메시지가 다시 이어지기만을 숨을 죽인 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하우가 아파트 입구에는 크라바트와 코트로 몸을 뽐뽐 싸맨 한 남자가 난간에 기대어 있었다. 복도의 불빛이 우리의 얼굴을 비추자, 그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흠즈!” 그가 외쳤다.

“아니, 그렉슨 아니오!” 내 동료가 스코틀랜드 야드의 경위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여행의 끝은 연인과의 만남이라더니, 어찌 여기까지 오셨소?”

“나를 찾아온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겠지.” 그렉슨이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도무지 짐작조차 안 가는군.”

“실마리는 제각각이지만, 결국 하나의 엇킨 매듭으로 이어지는군요. 저는 그동안 그 신호들을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신호라고요?”

“네, 저 창문 너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끊겼더군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일은 당신이 맡아 안전하게 처리할 테니, 더 이상 우리가 나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그렉슨이 간절하게 외쳤다. “흠즈 씨, 이 말만큼은 꼭 해두고 싶소.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건을 맡든, 당신이 내 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을 얻지 않은 적이 없었소. 이 아파트에서 나가는 출구는 여기 하나뿐이니, 범인은 이제 도망칠 곳이 없소.”

“그가 누구입니까?”

“허허, 흠즈 씨. 이번만큼은 우리가 한 건 했군요. 이번 판은 당신이 우리에게 저줘야겠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러자 길 건너편에 서 있던 사륜마차에서 채찍을 손에 든 마부가 느긋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는 마부에게 말했다. “이분은 설록 흠즈 씨라네. 자, 이쪽은 핑커턴 미국 대행사의 리버턴 씨라고 하네.”

“롱아일랜드 동굴 미스터리 주인공이시라고요?” 흠즈가 말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생님.”

깔끔하게 면도한 날카로운 얼굴을 가진 그 미국인은 조용하고 사무적인 태도의 청년이었는데, 칭찬을 듣자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이제야 제 인생의 목표를 쫓고 있는 기분입니다, 흠즈 씨.” 그가 말했다. “만약 제가 고르기아노를 잡을 수만 있다면요——”

“뭐라고! 레드 서클의 고르기아노라고?”

“오, 그놈이 유럽에서 명성이 자자하다고요? 글쎄요, 미국에서도 그놈에 대해서는 이미 낱알이 파악했습니다. 그놈이 50건의 살인 사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지만, 정작 그놈을 붙잡아 처벌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뉴욕에서부터 그놈을 추적해왔고, 런던에서도 일주일 동안 그놈 곁을 바짝 쫓으며 덩미를 잡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렉슨 경위와 저는 저 커다란 연립주택에서 그놈을 막다른 곳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출입구가 문 하나뿐이라 그놈이 빠져나갈 길은 없어요. 그놈이 들어간 뒤로 세 사람이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중에 그놈이 섞여 있지 않았다는 건 제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

“흠즈 씨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렉슨이 말했다.
“평소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그가 아주 많이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흠즈는 우리가 파악한 상황을 몇 마디 명료한 말로 설명했다. 그 말을 들은 미국인은 짜증스럽다는 듯 손뼉을 째 쳤다.

“그가 우리를 눈치챈어!” 그가 외쳤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공범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런던에는 이미 그의 일당이 여러 명 깔려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설명대로라면, 그는 위험이 닥쳤다

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던 도중에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창밖으로 거리의 우리를 갑자기 발견했거나, 혹은 위험이 얼마나 가까이 닥쳤는지 어떤 방식으로든 알아차린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피하려면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홈즈 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올라가서 직접 확인해 봅시다.”

“하지만 그를 체포할 영장이 없습니다.”

“그자가 수상한 정황 속에 비어 있는 건물에 숨어 있습니다.” 그렉슨이 말했다. “지금은 이 정도 정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단 그놈의 뒷덜미를 잡고 나면, 뉴욕 측에 협조를 구해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보죠. 지금 당장 체포하는 건 제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우리 경찰의 수사관들이 지적인 판단에서는 실수할지 몰라도, 용기만큼은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그렉슨 경위는 스코틀랜드 야드의 공식 계단을 오를 때처럼 아주 차분하고 사무적인 태도로, 이 무모한 살인범을 체포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갔다. 핑커톤 탐정 사무소의 요원이 그를 밀치고 지나가려 했으나, 그렉슨은 팔꿈치로 그를 단호하게 밀어냈다. 런던의 위험을 다루는 것은 오직 런던 경찰의 특권이었다.

3층 계단참 왼쪽에 있는 아파트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렉슨이 문을 밀어 열었다. 안은 적막이 감돌았고 칙흑같이 어두웠다. 나는 성냥을 그어 탐정의 랜턴에 불을 붙였다. 일렁이던 불꽃이 안정되며 밝아지자, 우리 모두는 깜짝 놀라 숨을 들이켰다. 카펫도 깔리지 않은 나무 바

닥 위로 선명한 혈흔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붉은 발자국은 문이 닫힌 안쪽 방에서 시작되어 우리 쪽을 향해 뻗어 있었다. 그렉슨이 그 방의 문을 거칠게 열고 랜턴을 앞쪽으로 높이 치켜들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어깨 너머로 안을 간절히 들여다보았다.

텅 빈 방 한가운데, 거구의 남자가 몸을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다. 깔끔하게 면도한 검은 얼굴은 기괴하게 뒤틀려 끔찍한 형상을 하고 있었고, 머리 주위로는 붉은 피가 번져나가 하얀 나무 바닥 위에 섬뜩한 진홍빛 후광을 그리며 넓게 퍼져 있었다. 남자는 무릎을 가슴팍까지 끌어올린 채 고통에 겨워 양손을 뻗고 있었다. 뒤집힌 갈색 목 중앙에는 칼날이 몸속 깊숙이 박혀 있었고, 그 하얀 칼자루만이 밖으로 툭 불거져 나와 있었다. 거구의 사내였음에도, 그는 그 무시무시한 일격에 마치 도끼로 맞은 황소처럼 단번에 쓰러진 것이 분명했다. 남자의 오른손 옆에는 뿔로 손잡이를 만든 위협적인 양날 단검이 바닥에 놓여 있었고, 그 근처에는 검은색 염소 가죽 장갑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세상에! 블랙 고르기아노가 나타났군!” 미국인 형사가 외쳤다. “이번에는 누군가 우리보다 한발 앞서 나갔어.”

“흠즈 씨, 창가에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렉슨이 말했다. “아니, 대체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흠즈는 건너편으로 걸어가 촛불을 켜다. 그러고는 창유리 너머로 촛불을 이리저리 비추며 살폈다. 이윽고 어둠 속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그는 촛불을 붙어 끄고는 바닥에 던져 버렸다.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그는 두 전문가가 시신을 조사하는 동안 곁으로 다가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서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아래층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 아파트에서 세 사람이 나왔다고 했지요. 그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서른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까? 검은 수염을 기르고, 피부가 어둡고, 체격은 보통 정도인 사람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가 저를 지나쳐 간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각엔 그자가 당신이 찾는 사람인 것 같소. 인상착의도 알려줄 수 있고, 발자국 모양도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으니 말ियो.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런던의 수백만 인구 속에서라면, 흠즈 씨, 그리 눈에 띄지는 않겠지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인을 당신을 돕도록 불러오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는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다. 문가에는 키가 크고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다. 바로 블룸즈버리의 그 신비로운 하숙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얼굴은 끔찍한 공포로 인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진 검은 형체를 무섭게 응시하고 있었다.

“당신이 그를 죽였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오, 세상에, 당신이 그를 죽였던 말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그녀가 숨을 헉 하고 들이켰다. 이내 그녀는 기쁨에 찬 비명을 지르며 허공으로 뛰어올랐다. 그녀는 방 안을 빙글빙글 돌며 손뼉을 쳤다. 검은 눈동자는 경이로운 기쁨으로 반짝였고, 입술에서는 이탈리아어 감탄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그런 광경을 보고 이토록 격렬하게 기뻐하는 여인의 모습은 경악스러우면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동작을 멈추더니, 의아한 눈초리로 우리 모두를 뵈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은 경찰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주세페 고르기아노를 죽였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경찰입니다, 부인.”

그녀는 방 안의 어스름한 그림자 속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제나로는 어디에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제나로 루카는 제 남편이에요. 저는 에밀리아 루카이고요. 우리 둘 다 뉴욕에서 왔어요. 제나로가 어디 있냐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창가에서 저를 불렀는데, 그 소리에 전 온 힘을 다해 달려왔단 말이에요.”

“당신을 부른 건 바로 접니다.” 홈즈가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당신이 저를 부를 수 있었던 말이에요?”

“부인, 암호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시다. 부인이 이곳에 와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제가 ‘_Vieni_’라는 단어만 번쩍이며 신

호를 보내면, 부인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름다운 이탈리아인은 경외심에 찬 눈빛으로 내 동료를 바라보았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아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주세페 고르기아노는 대체 어떻게—.”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자부심과 기쁨으로 환하게 밝아졌다. “이제 알겠어요! 나의 제나로!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준 나의 훌륭한 아름다운 제나로, 그가 해낸 거였군요! 그 강인한 손으로 직접 그 괴물을 처단한 거예요! 오, 제나로,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예요! 대체 어떤 여자가 당신 같은 남자에게 어울릴 수 있겠어요?”

“글쎄요, 루카 부인.”

무미건조한 성격의 그렉슨 경위가 말했다. 그는 마치 노팅힐의 불량배를 대하듯 아무런 감정 없이 부인의 소매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다.

“부인이 누구인지, 또 어떤 분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하신 말씀만 들어도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부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만큼은 아주 분명해지더군요.”

“잠시만요, 그렉슨 경위님.” 홈즈가 말했다. “제 생각에는 이 부인에게서도 우리가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만큼이나, 정보를 드리고 싶어 안달이 나신 것 같습니다. 부인, 이해하시겠지만 남편분은 지금 우리 앞

에 쓰러져 있는 저 남자를 죽인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분이 범죄 의도가 아닌 다른 동기로 행동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그 동기를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신다면, 지금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털어놓는 것보다 남편을 더 잘 돕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고르기아노가 죽었으니 이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인이 말했다. “그자는 악마이자 괴물이었죠. 그를 죽인 내 남편을 처벌할 수 있는 세상의 재판관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우선 이 문을 잠그고, 현장은 발견 당시 그대로 두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부인을 방까지 모셔다드린 뒤, 부인이 우리에게 하려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판단을 내리는 게 좋겠습니다.”

30분 뒤, 우리 네 사람은 루카 부인의 작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우리는 그녀가 들려주는 그 불길한 사건들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 사건의 결말은 우리가 우연히 목격한 것이었다. 그녀는 매우 빠르고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했지만, 문법에는 전혀 맞지 않는 독특한 방식이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는 그녀의 말을 문법에 맞춰 정리하여 옮기고자 한다.

“저는 나폴리 근처의 포실리포에서 태어났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우구스토 바렐리의 딸이었죠. 아버지는 그 지역의 수석 변호사였고, 한때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하원의원을 지내기도 하셨어요. 제나로는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여인이라고 그러하듯

저도 그를 사랑하게 되었죠. 그는 돈도, 지위도 없었어요. 오직 수려한 외모와 강인한 체력, 그리고 넘치는 활력뿐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의 혼사를 반대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함께 도망쳤고, 바리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미국으로 떠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 보석들을 팔기도 했고요. 벌써 4년 전의 일이에요. 그 후로 줄곧 뉴욕에서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아주 좋았어요. 제나로가 이탈리아 신사 한 분을 도와드릴 기회가 있었거든요. 바워리라는 곳에서 불량배들에게 당할 뻔한 그분을 구해준 덕분에 아주 든든한 친구를 얻게 되었죠. 그분의 이름은 티토 카스탈로테였어요. 뉴욕 최대의 과일 수입업체인 '카스탈로테와 잠바'의 수석 파트너였죠. 잠바 씨는 몸이 좋지 않아, 우리의 새 친구인 카스탈로테 씨가 300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는 그 회사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어요.

카스탈로테 씨는 제 남편을 고용해 부서장 자리에 앉혀 주었고, 모든 면에서 각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었어요. 카스탈로테 씨는 미혼이었는데, 제 생각에 그는 제나로를 친아들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 역시 그분을 친아버지처럼 따랐고요. 우리는 브루클린에 작은 집을 빌려 가구까지 다 갖춰 놓은 상태였죠. 모든 미래가 보장된 듯 보였는데, 그때 우리 삶을 뒤덮을 검은 구름이 나타난 거예요."

“어느 날 밤, 제나로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동향 사람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고르시아노라고 했고, 그 역시 포실리포에서 왔더군요. 당신도 그의 시신을 직접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정말 거구였습

니다. 단순히 몸집만 거대한 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기괴하고 거대하며 공포스러웠습니다. 그가 우리 작은 집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았지요. 그가 말을 할 때면 커다란 팔을 휘두를 공간조차 마땅치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생각과 감정, 열정까지도 모두 과장되고 괴물 같았습니다. 그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포효를 했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다른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말의 폭풍 앞에 위축되어 그저 앉아서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면 마치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쥐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지요. 참으로 무시무시하면서도 경이로운 사내였습니다. 그가 죽어 버린 것을 신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는 몇 번이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있을 때 제나로가 저만큼이나 불행해 보인다는 사실을 저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가여운 제 남편은 창백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앉아, 방문객이 씬 없이 떠들어대는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한 횡설수설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나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저는, 그의 얼굴에서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감정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싫어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그것이 단순한 혐오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깊고 은밀하며, 몸서리쳐지는 공포였습니다. 그의 공포를 읽어낸 그날 밤, 저는 그를 품에 안고 애원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걸고, 그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걸고 간청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저 거대한 남자가 왜 그토록 그를 압도하며 그림자를 드리우는지 말해달라고 말입니다.”

“그가 제게 말해주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던 제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가여운 제 남편 제나로는 한때 거칠고 혈기 왕성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등진 것만 같고, 삶의 불공평함에 미칠 지경이던 그 시절에, 그는 나폴리의 비밀 결사체인 ‘붉은 원’에 가입했습니다. 과거의 카르보나리 조직과 연계된 곳이었지요. 그 형제단의 맹세와 비밀은 소름 끼칠 만큼 무시무시했지만, 일단 그 규율에 발을 들이면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도망쳐왔을 때, 제나로는 그 모든 과거를 영원히 떨쳐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길거리에서 나폴리 시절 자신을 그 조직에 끌어들이던 바로 그자를 마주쳤으니, 그 공포가 어땠겠습니까! 거구의 고르시아노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남부에서 ‘죽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자였지요.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팔꿈치까지 피로 물들었으니까요! 그는 이탈리아 경찰을 피하려고 뉴욕으로 건너왔고, 이미 이곳에 그 끔찍한 결사의 지부를 심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제나로는 이 모든 사실을 제게 털어놓으며, 그날 받은 소환장도 보여주었습니다. 소환장 상단에는 ‘붉은 원’의 문장이 그려져 있었고, 특정 날짜에 모임이 열릴 것이니 반드시 참석하라는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지만, 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르시아노가 저녁마다 끊임없이 우리 집을 찾아올 때면, 그는 제게 말을 참 많이 걸곤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사실을 눈여겨보고 있었지요. 그가 남편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에도, 그 무시무시하고 번뜩이는 짐승 같은 눈빛은 언제나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숨겨진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그의 마음속에 이른바 ‘사랑’이

라는 것을 깨운 것이었지요. 그것은 짐승의 사랑이었고, 야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나로가 돌아오기 전에 그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거칠게 밀고 들어와 커다란 팔로 저를 낚아챘습니다. 곰처럼 힘센 팔로 저를 으스러지게 껴안고 입을 맞추며, 제발 자신과 함께 떠나자고 애원했습니다. 제가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를 때, 마침 제나로가 들어와 그를 공격했습니다. 고르시아노는 제나로를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든 뒤,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할 그 집에서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원수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회합이 열렸습니다. 회합을 마치고 돌아온 제나로의 얼굴에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말해 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그 결사는 이탈리아의 부유층을 협박해 자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돈을 내놓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의 친애하는 친구이자 후원자인 카스탈로테가 그들의 표적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협박에 굴하지 않고 통지서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른 희생자들이 감히 저항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회합에서는 카스탈로테와 그의 저택을 다이내마이트로 날려버리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일을 실행할지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나로는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우리 원수 고르시아노의 잔인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분명 어떤 식으로든 미리 짜인 판이었습시다. 제나로의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붉은 원이 그려진 치명적인 표식, 즉 살인을 명령하는 패였기 때문입니다. 제나로는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이거나, 아니면 자신과 저를 동료들의 복수 앞에 내던져야만 했습니다

다. 두려워하거나 증오하는 자를 응징할 때, 그 대상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해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악랄한 방식이었습니다. 가여운 제나로를 공포로 몰아넣고 불안에 미치기 직전까지 몰아간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안은 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를 다독이며 힘을 북돋웠지요. 시도는 바로 다음 날 저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 남편과 저는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 남편은 우리의 후원자에게 이 위험을 미리 경고해 두었습니다. 또한 훗날 자신의 신변을 지킬 수 있도록 경찰 측에도 필요한 정보를 남겨 두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직접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적들이 마치 우리 그림자처럼 뒤를 바짝 쫓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고르지아노에게는 복수를 위한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교활하며 지칠 줄 모르는 인물인지는 우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와 미국에는 그의 무시무시한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니까요. 만약 그가 힘을 발휘한다면 바로 지금일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 남편은 우리가 먼저 떠난 덕에 얻은 며칠간의 여유를 이용해, 어떤 위험도 저에게 닿지 못하도록 제가 몸을 피할 은신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는 미국 경찰과 이탈리아 경찰 모두와 연락을 주고받아야 했기에, 자신은 자유로운 몸으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만 소식을 접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한 번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탈리아인 두 명이 집을 감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

니다. 그때 저는 고르지아노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은신처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제나로는 신문을 통해, 특정 창문에서 제게 신호를 보내겠다고 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경고에 불과했고 곧 돌연 끊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그는 고르지아노가 바로 곁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께 감사하게도, 그는 고르지아노가 들이닥쳤을 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신사 여러분. 이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법으로부터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판사가 제나로가 한 일을 두고 그를 유죄라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렉슨 씨,” 미국인이 관리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영국인들의 관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뉴욕 같았으면 이 부인의 남편은 아마 사람들로부터 폭넓은 감사의 인사를 받았을 겁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가서 서장님을 만나봐야 합니다.” 그렉슨이 대답했다. “그녀의 말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녀나 남편이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홈즈 씨,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체 당신이 이 사건에 어떻게 연루된 건지 말입니다.”

“그건 교육 때문이라네, 그렉슨. 교육 말이야. 여전히 그 낡은 대학에서 지식을 탐구하고 있군. 자, 왓슨. 자네 수집 목록에 비극적이고도 기괴한 표본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겠어. 그나저나, 아직 여덟 시가 안 됐으니 코벤트 가든에서 열리는 바그너의 밤을 놓칠 순 없지! 서두르면 2막 시작 전에는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레이디 프랜시스 카팩스의 실종

프랜시스 카팩 부인의 실종

“그런데 왜 하필 터키식입니까?” 설록 홈즈가 내 장화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물었다. 나는 당시 등받이가 등나무로 된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었는데, 앞으로 쭉 내밀고 있는 내 발이 그의 끊임없는 시선을 사로잡은 모양이었다.

“영국제입니다.” 나는 조금 놀라며 대답했다. “옥스퍼드 가에 있는 라티머 상점에서 샀습니다.”

홈즈는 지친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인내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목욕 말이야!” 그가 말했다. “목욕! 왜 몸을 상쾌하게 해주는 집안의 방식 대신, 몸을 나른하게 만드는 값비싼 터키식 목욕을 택한 거지?”

“지난 며칠 동안 몸이 쭈시고 늙은 기분이 들어서 말일세. 터키식 목욕은 의학에서 말하는 ‘전환 요법’이라네. 몸의 기운을 새롭게 바꾸고 체질을 깨끗하게 정화해 주는 것이지.”

“그건 그렇고, 흠즈.” 내가 덧붙였다. “내 장화와 터키식 목욕탕 사이의 연관성 말이야.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게 여기겠지만, 그래도 자네가 그 연결 고리를 짚어준다면 정말 고맙겠네.”

“추론 과정이 그리 복잡하지 않네, 왓슨.” 흠즈가 장난기 어린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자네가 오늘 아침 마차를 타고 올 때 누구와 동승했는지 물어본다면, 내가 방금 말한 것과 똑같은 기초적인 연역법을 써서 답할 수 있을 걸세.”

“새로운 사례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설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다소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브라보, 왓슨! 아주 품위 있고 논리적인 반론이었네. 어디 보자, 자네가 지적한 요점이 뭐였더라? 우선 마지막 것부터 짚어보지. 바로 마차 이야기 말이야. 자네 코트의 왼쪽 소매와 어깨를 보게. 진흙이 좀 튀어 있지 않은가? 만약 자네가 헨섬 택시 정중앙에 앉았다면 아마 진흙이 튀지 않았을 걸세. 설령 튀었다 하더라도 양쪽이 똑같이 묻었겠지. 그러니 자네가 옆자리에 앉았다는 건 명백하네. 그리고 그 사실은 자네에게 동행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지.”

“그건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터무니없을 정도로 평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화와 목욕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똑같이 유치한 생각입니다. 당신은 평소 부츠를 묶는 특유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아주 정교하게 이중 리본으로 묶여 있군요. 그렇다면 누군가 당신의 부츠를 벗겼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다시 묶었을까요? 구두 수선공이거나, 아니면 목욕탕의 소년이겠지요. 부츠가 거의 새것인 걸 보면 수선공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 그럼 남은 건 무엇입니까? 바로 목욕탕입니다.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터키식 목욕탕은 제 역할을 다했군요.”

“그게 뭡니까?”

“자네는 기분 전환이 필요해서 그 목욕을 했다고 했지. 그러니 아예 제대로 기분 전환을 해보는 게 어떨까. 로잔은 어떨까, 왓슨? 일등석 표에 모든 경비까지 아주 호화롭게 대주겠네.”

“훌륭하군! 그런데 대체 왜지?”

홈즈는 안락의자에 몸을 기대며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부류 중 하나는 정처 없이 떠도는 외로운 여성이라네.” 홈즈가 말했다. “그녀들은 인간 중에서 가장 해가 없고 때로는 가장 유용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타인의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피할 수 없는 도화선이 되기도 하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고, 이곳저곳

을 떠돌 수밖에 없으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를, 호텔과 호텔 사이를 오갈 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이름 모를 하숙집과 여관들이 얽힌 미로 속에서 길을 잃기 일쑤라네. 여우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길 잃은 병아리वाद도 같지. 그렇게 잡아먹히고 나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라네. 프랜시스 카팩스 부인에게도 분명 불행한 일이 닥친 모양이야.”

막연한 이야기에서 구체적인 사실로 화제가 갑자기 전환되자,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흠즈는 자신의 기록을 살피기 시작했다.

“프랜시스 영애는,” 그가 말을 이었다. “고인이 된 루프턴 백작의 직계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가문의 영지는 남계로 상속되었습니다. 영애에게 남은 재산은 넉넉지 않았으나, 아주 특별한 스페인산 유산이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정교한 장신구와 독특하게 세공된 다이아몬드들이었죠. 영애는 그 보석들에 무척 애착을 가졌습니다. 아니, 애착이 지나쳤다고 해야겠군요. 은행에 맡겨두는 것조차 거부하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으니까요. 참으로 애처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프랜시스 영애는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아직 중년의 생기가 남아 있었지만, 기묘한 변화를 겪으며 불과 20년 전만 해도 번창했던 가문의 마지막 낙오자가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 프랜시스 영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영애는 생활 습관이 아주 규칙적인 분입니다. 은퇴 후 캠버웰에 살고 있는 옛 가정교사 도브니 양에

게 2주마다 한 번씩 편지를 쓰는 것이 지난 4년 동안 변함없는 일과였죠. 저를 찾아온 분도 바로 이 도브니 양입니다. 그런데 벌써 5주 가까이 소식이 끊겼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로잔의 호텔 나시오날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프랜시스 영애는 그곳을 떠난 뒤 아무런 주소도 남기지 않은 모양입니다. 가족들이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워낙 재산이 많은 집안이라, 이 사건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보상은 얼마가 되어도 아끼지 않겠다고 합니다.”

“도브니 양이 유일한 정보원입니까? 분명 다른 서신을 주고받은 이들도 있었을 텐데요?”

“왓슨, 확실한 정보원이 한 명 있네. 바로 은행이지. 미혼 여성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그들의 통장은 마치 압축된 일기장과 같거든. 그 여인은 실베스터 은행을 이용하고 있네. 내가 계좌를 살짝 훑어봤는데, 지난번 말고 그 전번에 발행한 수표로 로잔에서 비용을 결제했더군. 금액이 꽤 커서 아마 현금이 좀 남았을 거야. 그 이후로는 수표를 딱 한 번 썼네.”

“누구에게, 어디로 말입니까?”

“마리 디바인 양에게. 수표를 발행한 곳은 알 수 없다. 3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몽펠리에의 크레디 리오네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금액은 50파운드였다.”

“그렇다면 마리 디바인 양은 누구입니까?”

“그 사실 역시 제가 알아냈습니다. 마리 디바인 양은 프랜시스 카팩스 부인의 하녀였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어째서 그녀에게 이 수표를 지불했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조사가 곧 이 문제를 밝혀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 조사라니!”

“그러니 건강을 위해 로잔으로 떠나려는 것이네. 자네도 알다시피, 노인 아브라함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저토록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런던을 떠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게다가 원칙적으로 봐도 내가 나라를 비우지 않는 편이 낫지. 스코틀랜드 야드는 내가 없으니 적적해하고, 그 덕분에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활기가 돌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니 어서 가게나, 친애하는 왓슨. 만약 내 미친한 조언이 단어 하나당 2펜스라는 터무니없는 값어치라도 매길 수 있다면, 유럽 대륙의 전선 너머에서 밤낮으로 자네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겠네.”

이틀 뒤, 나는 로잔의 호텔 나시오날에 도착했다. 그곳의 유명한 지배인 모제르 씨는 나를 매우 정중하게 대접해 주었다. 모제르 씨의 말에 따르면, 프랜시스 부인은 이곳에서 몇 주 동안 머물렀다고 했다.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무척 좋아했다. 나이는 마흔을 넘지 않아 보였다. 여전히 아름다웠으며, 젊은 시절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기품이 남아 있었다. 모제르 씨는 부인이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다만 하인들의 말에 따르면, 부인의 침실에 있는 무거운 트렁크는 항상

빈틈없이 잠겨 있었다고 한다. 하녀 마리 디바인은 주인만큼이나 인기가 많았다. 그녀는 호텔의 수석 웨이터 중 한 명과 약혼한 사이였기에, 그녀의 주소를 알아내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주소는 몽펠리에의 트라야누스 거리 11번지였다. 나는 이 모든 내용을 메모하며, 사실 관계를 수집하는 솜씨가 흠즈 본인이라 해도 이보다 더 능숙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했다.

방 안의 단 한 구석만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내가 가진 정보로는 그 여인이 왜 갑자기 떠나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낼 길이 없었다. 그녀는 로잔에서 매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호화로운 객실에서 이번 시즌을 계속 머물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충분했다. 그런데 그녀는 단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떠나버렸고, 그 바람에 일주일 치 방세를 허무하게 날리고 말았다.

하녀의 연인인 쥘 비바르만이 유일하게 짐작 가는 바를 내놓았다. 그는 여인이 떠나기 하루 이틀 전, 키가 크고 검은 수염을 기른 남자가 호텔을 방문했던 일과 이번 갑작스러운 떠남을 연관 지어 말했다.

"야만인이예요. 진짜 야만인이라고요!"

쥘 비바르가 외쳤다. 그 남자는 마을 어딘가에 숙소를 두고 있었다. 그는 호숫가 산책로에서 마담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그 후 그는 마담을 찾아왔으나, 마담은 만남을 거절했다. 그는 영국인이었지만, 기록을 아무리 뒤져도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마담은 그가 찾아온 직후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쥘 비바르와, 무

엇보다 중요한 쥘의 연인은 이 방문과 여인의 떠남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쥘이 끝내 입을 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마리가 왜 여인을 떠났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쥘이 말할 수 없거나, 혹은 말하지 않으려 했다. 만약 내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직접 몽펠리에로 가서 그녀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나의 조사는 이렇게 첫 번째 장을 마쳤다. 두 번째 단계는 프랜시스 카팩 부인이 로잔을 떠나며 찾아간 행선지를 밝히는 일이었다. 그 행선지에 대해서는 비밀이 엄수되고 있었는데, 이는 부인이 누군가의 추적을 따돌리려는 의도로 떠났다는 내 짐작을 뒷받침해 주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부인의 집에 바덴행이라는 라벨을 대놓고 붙여두었겠는가. 부인과 짐 모두 우회로를 거쳐 라인강 유역의 온천 지대에 도착했다. 쿡(Cook's) 여행사 현지 지점의 지배인으로부터 알아낸 사실은 이러했다. 나는 홈즈에게 그간의 진행 상황을 모두 보고했고, 농담 섞인 칭찬이 담긴 전보를 답장으로 받은 뒤 바덴으로 향했다.

바덴에서 그들의 행적을 쫓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프랜시스 레이디는 '잉글리시 호프' 호텔에 2주 동안 머물렀다. 그곳에서 그녀는 슐레싱거 박사 부부를 알게 되었는데, 박사는 남미에서 온 선교사였다. 외로운 처지의 귀부인들이 대개 그렇듯, 프랜시스 레이디 역시 종교에서 위안과 삶의 보람을 찾았다. 슐레싱거 박사의 비범한 인품과 헌신적인 모습, 그리고 사명을 다하다 얻은 병을 회복 중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다. 그녀는 회복기에 접어든 이 성자를 간호

하는 술레싱거 부인을 돕기도 했다. 호텔 지배인의 설명에 따르면, 박사는 베란다에 놓인 안락의자에 앉아 양옆에 시녀를 한 명씩 두고 하루를 보냈다. 그는 소론을 집필 중이었는데, 미디안 왕국을 중심으로 성지의 지도를 제작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마침내 건강이 많이 호전되자 박사 부부는 런던으로 돌아갔고, 프랜시스 레이디도 그들과 동행하여 런던으로 향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3주 전의 일이었으나, 지배인은 그 이후로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하녀 마리는 며칠 전, 이제 다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른 하녀들에게 알린 뒤 눈물을 쏟으며 떠나버렸다. 술레싱거 박사는 떠나기 전 일행의 숙박비를 모두 결제했다.

“그건 그렇고,” 집주인이 말을 맺으며 덧붙였다. “지금 프랜시스 카팍 레이디의 안부를 묻는 분이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일주일 전쯤에도 똑같은 목적으로 찾아온 남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이름을 말하던가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는 영국인이었습니다. 비록 아주 특이한 부류이긴 했지만요.”

“야만인이라고요?” 나는 나의 저명한 친구가 하던 방식대로, 지금까지 파악한 사실들을 하나로 엮으며 물었다.

“정확합니다. 그를 아주 잘 설명하는 말이군요. 그는 체구가 건장하고 수염이 덩수룩한 데다 햇볕에 그을린 사내입니다. 세련된 호텔보다는 농가 여관이 더 어울릴 법한 모습이죠. 제 생각에 그는 성격이 거칠

고 사나운 사람 같습니다. 괜히 그를 불쾌하게 했다가는 낭패를 볼 것 같군요.”

안개가 걷히며 형체가 뚜렷해지듯, 미스터리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선량하고 경건한 이 부인이 불길하고 집요한 추격자에게 쫓기며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었다. 부인은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로잔에서 그토록 급히 도망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뒤를 쫓고 있었다. 조만간 그는 부인을 따라잡을 터였다. 아니, 어쩌면 이미 따라잡은 것은 아닐까? 부인이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일까? 부인과 함께 있는 선량한 동행들이 그의 폭력이나 협박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줄 수는 없는 것일까? 이 길고 긴 추격 뒤에는 대체 어떤 끔찍한 목적과 깊은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내가 풀어야 할 문제였다.

나는 사건의 핵심에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홈즈에게 글로 써서 보냈다. 그러자 홈즈에게서 답장이 왔다. 술레싱거 박사의 왼쪽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해 달라는 전보였다. 홈즈의 유머 감각은 기묘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불쾌하기까지 해서, 나는 그의 때늦은 농담을 그냥 무시했다. 사실 그의 메시지가 도착하기 전, 나는 이미 하녀 마리를 쫓아 몽펠리에에 도착한 상태였다.

그 전직 하인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그녀를 만나 그녀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모두 듣는 데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주인에게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그녀가 주인의 곁을 떠난 이유는,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

이며, 곧 있을 자신의 결혼 때문에 어차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괴로운 듯 털어놓았다. 바텐에 머무는 동안 주인이 가끔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한 번은 마치 그녀의 정직함을 의심하는 듯이 캐물은 적도 있었다고 말이다. 덕분에 헤어지는 마음이 오히려 가벼웠다고 했다. 레이디 프랜시스도 그녀의 결혼 선물로 50파운드를 주었다.

마리 역시 나처럼, 레이디 프랜시스를 로잔에서 몰아낸 그 낯선 남자를 깊이 불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호숫가 산책로에서 그 남자가 레이디 프랜시스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그는 사납고 무시무시한 남자였다. 마리는 레이디 프랜시스도 술레싱거 부부의 호위를 받으며 런던으로 향한 이유가 바로 그 남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믿었다. 레이디 프랜시스도 마리에게 이 일을 직접 말한 적은 없었지만, 마리는 주인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미세한 징후를 통해 그녀가 늘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야기가 이쯤까지 이어졌을 때였다. 갑자기 그녀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보세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그 악당이 아직도 따라오고 있어요! 바로 제가 말했던 그놈이에요!”

열려 있는 거실 창문 너머로 거구의 사내가 보였다. 검고 덩수룩한 수염을 기른 그 사내는 피부가 거무스름했다. 그는 거리 중앙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집 번호판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나처럼 그 역시 하

녀를 쫓고 있음이 분명했다. 나는 순간적인 충동에 이끌려 밖으로 달려 나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은 영국인이군요.” 내가 말했다.

“내가 그렇다면 어쩔 건가?” 그가 아주 악독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성함을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상황은 난처했으나, 가장 직설적인 방법이 대개는 최선이다.

“프랜시스 카팩스 부인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경악한 눈빛으로 나를 뵈히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왜 그녀를 뒤쫓은 거죠? 대답해 주세요,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다그치며 말했다.

그자가 분노 섞인 고함을 지르더니 호랑이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싸움을 치러내며 버텼지만, 이 남자의 움켜쥐는 힘은 강철 같았고 그 기세는 악마처럼 사나웠다. 그의 손이 내 목을 조여왔고, 정신이 아득해지려던 찰나였다. 그때 맞은편 카바레에서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은 수염도 깎지 않은 프랑스 노동자 한 명이 몽둥이를 들고 튀어나왔다. 그는 내 공격자를 향해 팔뚝을 강하게 내리쳤고, 그 충격에 공격자는 나를 놓아주었다. 공격자는 다시 공격을 재개할지 고민

하며 잠시 분노에 차 서 있었다. 그러더니 이내 으르렁거리며 나를 버려둔 채, 내가 방금 나왔던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길가에 서 있는 나를 구해준 은인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이런, 왓슨.” 홈즈가 말했다. “자네가 아주 제대로 망쳐 놓았군! 아무래도 오늘 밤 급행열차를 타고 나랑 같이 런던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한 시간 뒤, 설록 홈즈가 평소와 다름없는 옷차림과 모습으로 호텔에 있는 내 개인실에 앉아 있었다. 그가 이토록 갑작스럽고도 적절한 때에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아주 간단했다. 런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홈즈가, 내 여정의 다음 목적지에서 나를 미리 기다리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노동자로 변장한 채 선술집에 앉아 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일관성 있게 수사를 진행했군, 여보게 왓슨.” 홈즈가 말했다. “자네가 놓친 실수가 무엇인지 지금으로선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정도라네. 자네가 한 행동의 결과는 결국 사방에 경종을 울려 놓았으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꼴이 되었군.”

“어쩌면 당신이라 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쓰라린 심정으로 대답했다.

“'아마도'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네. 나는 실제로 더 잘 해냈으니까. 여기, 이 호텔에서 자네와 함께 묵고 있는 투숙객인 필립 그린 경이 있

네. 우리는 이 사람을 더 성공적인 수사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걸 세."

쟁반 위에 놓인 카드 한 장이 먼저 들어왔다. 뒤이어 거리에서 나를 공격했던 그 수염 난 불한당이 따라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멈칫했다.

“이게 대체 뭡니까, 흠즈 씨?” 그가 물었다. “보내신 쪽지를 받고 바로 달려왔습니다만, 이 남자가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이쪽은 나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왓슨 박사라네. 이번 사건을 돕기 위해 함께해주고 있지.”

낯선 이는 사과의 말을 몇 마디 건네며, 햇볕에 그을린 커다란 손을 내밀었다.

“본의 아니게 결례를 범했다면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그녀를 해쳤다고 몰아세울 때,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실 요즘은 제 정신이 아닙니다. 신경이 마치 전류가 흐르는 전선처럼 예민해져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군요. 흠즈 씨, 우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저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되었느냐는 점입니다.”

“프랜시스 영애의 가정교사인 도브니 양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모자까지 쓴 늙은 수잔 도브니 말인가! 아주 잘 기억나는 사람이군.”

“그녀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전, 그러니까 당신이 남아프리카로 떠나는 게 낫겠다고 결심하기 전의 시절을 말이에요.”

“아, 제 사정을 전부 알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더 숨길 것도 없겠습니다. 흠즈 씨, 맹세컨대 이 세상에 저만큼 프랜시스를 온 마음 다해 사랑했던 남자는 없었을 겁니다. 저도 알다시피 혈기 왕성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계층의 다른 이들보다 딱히 더 나쁘게 살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눈처럼 순결했습니다. 조금의 거친 모습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가 저지른 일들을 그녀가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저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 같은 일이지요!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해 그 성스러운 생애 내내 독신으로 지낼 만큼 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바버턴에서 돈을 좀 벌었을 때, 저는 그녀를 찾아가 마음을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미혼이라는 소식을 듣고 로잔에서 그녀를 찾아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는지 마음이 조금은 약해진 듯 보였습니다만, 그녀의 의지는 위낙 강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미 마을을 떠난 뒤였죠. 저는 그녀를 쫓아 바덴까지 갔고, 얼마 후 그녀의 하녀가 이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거친 삶을 살아온 투박한 사내입니다. 그래서 왓슨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잠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발 부탁입니다. 프랜시스 영애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우리가 직접 알아내야 할 문제입니다.” 설록 홈즈가 유독 진지한 태도로 말했다. “그런 씨, 런던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랭엄 호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돌아가 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혹시 제가 필요할지도 모르니 언제든지 연락이 닿는 곳에 계셔 주십시오. 헛된 희망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프랜시스 영애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더 드릴 말씀이 없군요. 저희와 계속 연락하실 수 있도록 이 명함을 남겨 두겠습니다. 자, 왓슨, 이제 짐을 챙기시지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배고픈 여행객 두 명을 위해 허드슨 부인이 정성을 다해 식사를 준비하도록 제가 전보를 보내 놓겠습니다.”

베이커가에 있는 우리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전보 한 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홈즈는 흥미롭다는 듯 감탄사를 내뱉으며 전보를 읽더니 내 쪽으로 획 던졌다. 전보의 내용은 '들쭉날쭉하거나 찢어진 모양'이었고, 발신지는 바덴이었다.

“이게 뭐니까?” 내가 물었다.

“그게 전부입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이 사무원 신사의 왼쪽 귀에 대해 제가 물었던, 언뜻 보기에 무관해 보이던 질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신은 대답하지 않으셨지요.”

“바덴을 떠난 뒤라 더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잉글리시 호프의 지배인에게 사본을 한 통 보냈지요. 그가 보낸 답장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이건 우리가 아주 영리하고도 위험한 자를 상대하고 있다는 뜻이라네, 왓슨. 남미에서 온 선교사라는 술레싱거 신부는 다름 아닌 홀리 피터스라네. 호주가 배출한 악당 중에서도 손꼽히는 파렴치한이지. 호주가 비록 젊은 나라이긴 해도, 아주 완성도 높은 악인들을 꽤나 만들어 냈어. 이 자의 전공은 종교적 감정에 호소해 외로운 부인들을 홀리는 것이고, 아내라고 주장하는 프레이저라는 영국 여인 또한 아주 훌륭한 조력자라네. 이 자가 쓰는 수법을 보고 정체를 짐작했는데, 이 신체적 특징이 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어. 89년 애들레이드에서 벌어진 술집 싸움 때 심하게 물린 자국 말일세. 이 가련한 부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악랄한 부부의 손아귀에 떨어졌네, 왓슨. 부인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네. 만약 살아있다면, 분명 어딘가에 감금되어 도브니 양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는 상태일 거야. 부인이 아예 런던에 도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런던을 거쳐 지나갔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전자는 가능성이 낮네. 유럽 대륙의 경찰들은 등록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외국인이 속임수를 쓰기가 쉽지 않거든. 후자 역시 가능성이 희박하네. 이 악당들이 사람을 감금해 두기에 런던만큼 용이한 곳을 찾기는 어려울 테니까. 내 직감은 부인이 런던에 있다고 말하고 있네. 하지만 지금으로선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 일단은 당연한 순서대로 저녁이나 먹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 저녁 늦게 스코틀랜드 야드에 들러 친구 레스트레이드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네.”

하지만 경찰의 공식 수사도, 홈즈가 운영하는 작지만 매우 효율적인 정보망도 이 미스터리를 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수백만 명이 북적이는 런던의 인파 속에서, 우리가 찾던 세 사람은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광고도 내보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단서를 따라가 보아도 결국 허탕이었다. 술레싱거가 드나들 법한 모든 범죄의 거점들을 샅샅이 뒤졌으나 헛수고였다. 그의 옛 동료들을 감시해 보았지만, 그들은 술레싱거와 철저히 거리를 두었다.

그렇게 무력한 기다림이 일주일째 이어지던 어느 날,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비쳤다. 웨스트민스터 로드에는 보빙턴 전당포에 오래된 스페인 양식의, 은과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펜던트가 맡겨진 것이다. 전당포에 물건을 맡긴 자는 성직자처럼 깔끔하게 면도한 체격이 큰 남성이었다. 그는 이름과 주소를 모두 거짓으로 댔다. 귀는 미처 눈에 띄지 못했으나, 인상착의는 틀림없는 술레싱거였다.

랭엄 호텔에서 온 수염 난 그 친구가 소식을 물으러 찾아온 것이 벌써 세 번째였다. 이번 새로운 전개가 나타난 지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세 번째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다. 거구인 그의 옷차림은 갈수록 헐거워 보였다. 불안감에 짓눌린 그는 마치 시들어가는 식물 같았다. "제발 뭐라도 할 일을 좀 주십시오!" 그는 끊임없이 울먹이며 애원했다. 마침내 홈즈가 그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게 되었다.

“그자가 보석을 전당포에 맡기기 시작했어. 지금 당장 잡아야 하네.”

“하지만 그렇다면 프랜시스 영애에게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입니까?”

홈즈는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만약 그들이 지금까지 그녀를 붙잡아 두고 있었다면, 자신들의 파멸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그녀를 풀어줄 수 없을 게 분명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당신의 얼굴을 모른단 말입니까?”

“아니오.”

“그자가 나중에 다른 전당포를 찾아갈 수도 있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고 제값을 받았으니, 당장 현금이 필요해지면 아마 다시 보빙턴네 가게로 돌아올 걸세. 내가 그곳에 전달할 쪽지를 써 줄 테니, 가게 안에서 기다리게나. 만약 그자가 나타나면 집까지 미행하게. 단,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네. 무엇보다 폭력을 써서는 절대 안 돼. 내 허락과 동의 없이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하게.”

이틀 동안 필립 그린 경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 덧붙이자면, 그는 크림 전쟁 당시 아조프해 함대를 지휘했던 그 유명한 제독의 아들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그는 우리 거실로 급히 뛰어 들어왔다. 안색은 창백했고 몸은 떨리고 있었으며, 건장한 체구의 근육 하나하나가 흥분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잡았다! 드디어 잡았어!” 그가 외쳤다.

그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며 갈피를 잡지 못했다. 홈즈는 몇 마디 말로 그를 진정시킨 뒤, 그를 안락의자에 앉혔다.

“자, 이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순서대로 말해 보게.” 그가 말했다.

“그 여자는 불과 한 시간 전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부인이었지만, 가저온 펜던트는 지난번 것과 똑같은 종류였습니다. 키가 크고 창백한 안색에, 눈매는 마치 족제비처럼 날카로운 여자입니다.”

“바로 그 여자로군.” 홈즈가 말했다.

“그 여자가 사무실을 나서기에 저도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케닝턴 로드를 따라 걸어갔고, 저는 그 뒤를 계속 쫓았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그녀가 어느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홈즈 씨, 그곳은 장례식장 용품점이었습니다.”

내 동료가 흠칫 놀랐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그가 물었다. 차가운 회색빛 얼굴 뒤에 숨겨진 뜨거운 영혼을 증명하듯, 그의 목소리에는 생생한 활기가 넘쳐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계산대 뒤에 있는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도 함께 들어갔죠. ‘시간이 늦었네요’라고 그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대략 그런 내용이었어요. 계산대 여자는 미안하다며 양해를 구하더군요. ‘지금쯤이면 도착했어야 하는데’라고 여자가 대답했어요. ‘예외적인 상황이라 시간이 좀 더 걸렸나 보네요.’ 두 사람 모두 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기에,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뒤 가게를 나왔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해냈군. 그다음엔 어떻게 됐나?”

“그 여자가 밖으로 나왔지만, 저는 문간에 몸을 숨겼습니다. 여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걸 보니 아무래도 저를 의심한 모양이더군요. 그러더니 여자는 택시를 불러 타고 떠났습니다. 다행히 저는 곧바로 다른 택시를 잡아 그녀를 뒤쫓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마침내 브릭스턴, 폴트니 광장 36번지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택시를 몰아 그 앞을 지나친 뒤, 광장 모퉁이에 차를 세워두고 그 집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 본 사람 있습니까?”

“1층 창문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창문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죠.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남자 두 명이 탄 덮개 달린

벤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현관문 계단 위로 들고 올라갔습니다. 흠즈 씨, 그것은 관이었습시다.”

“아!”

“잠시 동안은 저도 모르게 안으로 뛰어 들어갈 뻔했습니다. 남자들이 짐을 들고 들어올 수 있게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문을 연 사람은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서 있는 걸 보고는 저를 알아본 것 같더군요. 여인이 깜짝 놀라더니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당신과 한 약속이 생각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처리해 주셨군요.”

흠즈가 종이 반 장에 몇 자 적어 넣으며 말했다.

“영장 없이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쪽지를 당국에 가져가서 영장을 받아 오시는 게 이 일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과정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지만, 보석을 매각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레스트레이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그사이 그녀를 살해할지도 모릅니다. 관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관이 그녀가 아닌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린 씨. 단 한 순간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의뢰인이 서둘러 자리를 뜨자 홈즈가 덧붙였다.

“자, 왓슨. 저 사람은 정규군을 움직이게 할 걸세. 우리는 평소처럼 비정규군으로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네. 상황이 워낙 절박해 보여서 아주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야 할 것 같군. 폴트니 광장으로 가는 데 단 일 초도 낭비해서는 안 되네.”

“상황을 재구성해 보세.”

우리가 국회의사당을 빠르게 지나 웨스트민스터 다리 위를 달릴 때, 홈즈가 말했다.

“이 악당들은 먼저 이 불행한 여인의 충직한 하녀를 떼어놓은 뒤, 그녀를 런던으로 유인했네. 만약 그녀가 편지를 썼다면 이미 가로챘겠지. 그리고 공범을 이용해 가구가 갖춰진 집을 빌려 두었을 것이고. 일단 그녀를 그곳으로 끌어들인 뒤에는 감금했을 것이네. 그러고 나서 처음부터 목표로 삼았던 값비싼 보석들을 모두 손에 넣었겠지. 그들은 이미 보석 중 일부를 팔기 시작했을 걸세. 이 여인의 행방에 관심을 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판단했기에, 그들에게는 충분히 안전한 계획이라 여겼을 테니까. 물론 여인이 풀려나게 되면 그들을 고발할 것이네. 그러니 그녀를 풀어줘서는 안 되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영원히 가둬둘 수도 없는 노릇일세. 결국 살인이 그들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겠군.”

“그 점은 아주 명확해 보이는군.”

“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추론해 보세요. 왓슨, 서로 다른 두 갈래의 사고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근접하는 교차점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여인에게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부터 시작해 거꾸로 추적해 나갈 것이네. 내 생각에 그 사건은 여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고 있네. 또한 의료 진단서와 공식 승인 절차를 모두 갖춘, 아주 정석적인 장례가 치러졌다는 점도 보여주지. 만약 여인이 명백히 살해당한 것이었다면, 그들은 뒷마당 구덩이에 그녀를 몰래 묻었을 것이네. 하지만 이번 일은 모든 과정이 공개적이고 정상적이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나? 분명 의사를 속이고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들 만큼 치밀한 방법으로, 이를테면 독살 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죽였다는 뜻이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 의사가 공범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들이 의사가 그녀에게 접근하도록 내버려 두었겠나? 물론 의사가 공범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믿기 힘든 가설이군.”

“진단서를 위조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위험해, 왓슨. 아주 위험한 일이야. 아니, 그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군. 어이, 마부 양반! 차 좀 세워주게! 방금 전 전당포를 지나쳤으니, 분명 여기가 장례식장일 거야. 왓슨, 자네가 좀 들어가 주겠나? 자네 인상이 신뢰를 주는 편이라 말이야. 내일 폴트니 광장에서 열리는 장례식이 몇 시인지 물어봐 주게.”

가게에 있던 여자는 망설임 없이 오전 8시라고 대답했다.

“봤나, 왓슨? 미스터리 같은 건 없어. 모든 게 아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명 법적 절차는 다 밟았을 테고, 그들도 딱히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이제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겠군. 무기는 챙겼나?”

“내 지팡이!”

“자, 자, 우리는 충분히 맞설 수 있네. ‘정당한 명분을 가진 자는 세 배나 강한 법이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여유는 없네. 마부 양반, 이만 가보게. 자, 왓슨, 예전에도 가끔 그랬듯이 이번에도 우리 운명을 서로에게 맡겨보세나.”

그는 폴트니 광장 중심부에 자리한 거대하고 어두운 저택의 문을 힘차게 두드렸다. 문은 즉시 열렸고,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현관 너머로 키가 큰 여인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어둠 속에서 우리를 살피며 그녀가 날 카롭게 물었다.

“솔레싱거 박사와 이야기하고 싶군.” 홈즈가 말했다.

“여기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녀가 대답하며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홈즈가 발로 문을 막아버린 뒤였다.

“그가 자신을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곳에 사는 사람을 직접 만나야겠습니다.” 홈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문을 활짝 열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제 남편은 세상 그 어떤 남자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분이랍니다.” 그녀는 우리 뒤로 문을 닫고는 복도 오른쪽에 있는 거실로 우리를 안내했다. 그리고는 가스등을 켜둔 채 자리를 비웠다. “피터스 씨가 곧 오실 겁니다.” 그녀가 덧붙였다.

그녀의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먼지가 자욱하고 쯤이 먹은 듯한 방 안을 둘러볼 겨를도 없었다. 문이 열리더니, 깔끔하게 면도한 대머리의 건장한 남자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붉고 커다란 얼굴에 뺨이 처져 있었으며, 겉보기에는 인자해 보이는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잔인하고 악독해 보이는 입매가 그 인자함을 단번에 망쳐놓고 있었다.

“신사 여러분, 분명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가 매끄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상황을 유연하게 넘기려는 듯한 말투였다. “길을 잘못 드신 것 같군요. 아마 저 아래쪽으로 더 가보시면—”

“그만하면 됐소.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동행한 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애들레이드에서 온 헨리 피터스요. 전에는 바덴과 남미에서 활동하던 술래싱거 목사였지. 내 이름이 설록 홈즈인 것만큼이나 확실한 사실이요.”

이제부터 피터스라고 부르겠다. 그는 깜짝 놀라더니 자신을 쫓아온 가공할 만한 추격자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홈즈 씨, 당신 이름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소.” 그가 냉정하게 말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이름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지. 대체 내 집에 무슨 불일로 찾아온 거요?”

“바덴에서 당신과 함께 데려온 프랜시스 카팩스 부인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소.”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피터스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 여자에게 받을 돈이 거의 100파운드나 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받은 건 상인조차 쳐다보지 않을 법한 싸구려 펜던트 두 개뿐입니다. 그 여자는 바덴에서 저와 피터스 부인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당시 제가 가명을 쓰고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녔지요. 제가 그 여자의 숙박비와 차표 값까지 다 냈습니다. 그런데 런던에 오자마자 우리를 따돌리더니, 방금 말한 대로 이 유행 지난 보석들만 남겨둔 채 빛을 떼먹고 사라졌습니다. 홈즈 씨, 그 여자를 찾아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어.” 설록 홈즈가 말했다. “그녀를 찾을 때까지 이 집을 샅샅이 뒤질 생각이야.”

“영장 가져왔소?”

홈즈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반쯤 꺼내 들었다. “더 좋은 게 생길 때까지는 이걸 써야겠군.”

“이런, 당신은 그저 흔해 빠진 좀도둑일 뿐이군.”

“그렇게 설명해도 되겠군요.” 홈즈가 유쾌하게 말했다. “내 동료 역시 위험한 악당이니깐요. 우리는 둘이서 당신의 집을 샅샅이 뒤질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문을 열었다.

“애니, 가서 경찰을 불러오렴!” 그가 말했다. 복도 너머로 여인의 치맛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시간이 촉박하네, 왓슨.” 홈즈가 말했다. “피터스, 만약 우리를 막으려 한다면 분명 다치게 될 거야. 자네 집으로 들어온 그 관은 어디에 있나?”

“관은 왜 찾으시는 겁니까? 지금 사용 중입니다. 안에는 시신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시신을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될 일이지.”

“그렇다면 그것 없이 가야겠군.”

홈즈가 재빨리 움직여 그 사내를 옆으로 밀쳐내고 복도로 나갔다. 우리 앞에는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식당이었다. 희미한 빛을 내뿜는 샹들리에 아래, 식탁 위에는 관이 놓여 있었다. 홈즈가 가스등을 밝히고 관 뚜껑을 열었다. 관 깊숙한 곳에는 뼈만 남은 형체가 누워 있었다. 머리 위 조명의 강렬한 빛이 노쇠하고 초

라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 어떤 잔혹한 고문이나 기아, 혹은 질병을 겪었다 해도, 이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이 여전히 아름다웠던 프랜시스 부인일 수는 없었다. 홈즈의 얼굴에는 경악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가 나직이 읊조렸다. “다른 사람이군요.”

“아, 설록 홈즈 씨, 이번에는 아주 큰 실수를 하셨군요.” 우리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온 피터스가 말했다.

“죽은 여자는 누구입니까?”

“정 그렇게 알고 싶으시다면 말씀드리죠. 그 여자는 제 아내의 옛 유모였던 로즈 스펀더라는 분입니다. 브릭스톤 구빈원 병동에서 발견했지요. 우리는 그녀를 이곳으로 모셔왔고, 퍼뱅크 빌라 13번지에 사시는 호섬 박사님을 모셔왔습니다. 홈즈 씨, 주소는 꼭 적어두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듯, 그녀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노환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물론 그건 의사의 소견일 뿐이고, 홈즈 씨가 더 잘 아시겠지만요. 장례는 케닝턴 로드에서 있는 스텐슨 상사에 맡겼고, 내일 아침 8시에 매장할 예정입니다.

자, 홈즈 씨. 이 말 중에 허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당신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으니,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시죠. 프랜시스 카팩스 부인을 기대하며 눈꺼풀을 들쭉다가, 고작 아흔 살 먹은 불쌍한 노

파를 마주했을 때 당신의 그 멍하니 벌어진 얼굴을 사진으로 찍을 수만 있다면 뭐라도 내놓을 텐데요.”

상대방의 조롱이 쏟아졌음에도 홈즈의 표정은 여느 때처럼 무심했다. 하지만 짝 켜 두 손이 그가 몹시 불쾌해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당신의 집을 살살이 뒤흔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말은 잘하시네요!” 복도에서 여자의 목소리와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오자 피터스가 외쳤다. “곧 진실이 밝혀지겠죠. 경관 여러분, 이쪽으로 오시지요. 이 사람들이 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도무지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들을 밖으로 내쫓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경사와 순경 한 명이 문간에 서 있었다. 홈즈는 케이스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냈다.

“제 이름과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친구인 왓슨 박사입니다.”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선생님. 저희도 선생님을 아주 잘 압니다만,” 경사가 말했다. “영장 없이는 이곳에 머무실 수 없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를 체포해!” 피터스가 외쳤다.

“이 신사가 필요해진다면 어디서 붙잡아야 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사가 위엄 있게 말했다. “하지만 홈즈 씨, 당신은 가보셔야겠습니다.”

“그래, 왓슨. 이제 떠나야 하네.”

잠시 후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왔다. 홈즈는 평소처럼 침착한 모습이었으나, 나는 분노와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경사는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홈즈 씨. 하지만 그것이 법입니다.”

“정확합니다, 경사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곳에 계셨던 데에는 분명 합당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경사, 실종된 부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저 집에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곧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일당들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홈즈 씨.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반드시 알려드리죠.”

시계는 겨우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는 곧장 추적에 박차를 가했다. 먼저 브릭스톤 구빈원 진료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확인한 사실은 이러했다. 며칠 전 자살가 부부로 보이는 이들이 찾아와, 한 정신 나간 노파가 예전 식모였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데려가겠다는 허락을 받

아난 것이 사실이었다. 그 노파가 그 후 사망했다는 소식에도 누구 하나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다음 목표는 의사였다. 그는 현장에 호출되어 노환으로 죽어가는 여성을 발견했다. 실제로 그녀가 숨을 거두는 모습까지 지켜본 그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망 진단서에 서명했다. “장담컨대 모든 과정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범죄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그는 집 안에서 수상한 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그들의 계층에 비하면 하인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의사가 파악한 내용은 거기까지였다.

마침내 우리는 스코틀랜드 야드에 도착했다.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에서 몇 가지 문제가 생겨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치안판사의 서명을 내일 아침이나 되어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홈즈가 아홉 시쯤 들르면 레스트레이드 경위와 함께 가서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다. 다만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우리를 도와주던 경사가 찾아와 한 가지 소식을 전했을 뿐이다. 저 거대하고 어두운 저택의 창문 곳곳에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지만, 집을 나가는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도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그저 인내심을 갖고 내일이 오기만을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설록 홈즈는 대화를 나누기엔 너무 예민해져 있었고, 잠을 청하기엔 너무 초조해 보였다. 나는 그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뒤로하고 물러났다. 질고 굵은 눈썹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

고, 길고 신경질적인 손가락은 의자 팔걸이를 툭툭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사건의 모든 가능한 해결책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는 중이었다. 밤사이 몇 번이나 그가 집 안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침내 아침에 내가 호출을 받고 일어났을 때, 그는 내 방으로 급히 들어왔다. 가운 차림이었지만, 창백하고 움푹 팬 그의 얼굴을 보니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모양이었다.

“장례식이 몇 시였지? 여덟 시였나?” 그가 다급하게 물었다. “지금 이 7시 20분이군. 세상에, 왓슨, 신께서 내게 주신 지혜가 다 어디로 가버린 건가? 어서, 어서 움직이게!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야. 살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백 배는 더 높다고. 만약 우리가 늦는다면, 난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걸세!”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한섬 택시를 타고 베이커가를 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빅벤을 지날 때 시각은 이미 8시 25분 전이었고, 브릭스턴 로드를 따라 속도를 높일 때쯤 8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우리만 늦은 게 아니었다. 정각에서 10분이 지났음에도 운구 마차는 여전히 저택 문 앞에 멈춰 서 있었다. 거품을 물며 달려온 우리 말이 멈춰 서자마자, 세 남자가 받쳐 든 관이 문턱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다. 흠즈가 재빨리 앞으로 달려 나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당장 돌려줘!” 그가 맨 앞에 선 자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외쳤다. “지금 당장 돌려달란 말이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묻겠네, 영장 가져왔나?”

분노한 피터스가 고함을 질렀다. 관의 저편 너머로 보이는 그의 커다란 붉은 얼굴이 형형하게 빛났다.

“영장이 발부되었으니 곧 도착할 걸세. 영장이 올 때까지 관은 집 안에 그대로 두어야 하네.”

홈즈의 목소리에 담긴 권위는 운반책들에게 즉각 효과를 발휘했다. 피터스는 순식간에 집 안으로 사라졌고, 나머지 사람들도 새로운 지시에 따랐다.

“서둘러요, 왓슨, 서둘러! 여기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관을 다시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그가 외쳤다.

“자, 당신 뒤통도 여기 있어요! 1분 안에 뚜껑이 열리기만 하면 소비린 금화 한 닢을 주겠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만 해요! 그렇지, 잘합니다! 하나 더! 또 하나! 자, 다 같이 당기세요! 이제 열립니다! 열리고 있어요! 아, 드디어 뒸군!”

우리는 힘을 모아 관 뚜껑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관 안에서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지독한 클로로포름 냄새가 훅 끼쳐 왔다. 관 안에는 시신 한 구가 누워 있었다. 머리 전체가 마취제가 듬뿍 젖은 솜뭉치로 뒤덮여 있었다. 홈즈가 그 솜을 걷어내자, 중년의 아름답고도 영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인의 조각 같은 얼굴이 드러났다. 홈즈는 즉시 그녀의 몸을 팔로 감싸 안아 앉은 자세로 일으켜 세웠다.

“그녀가 떠났나, 왓슨? 아직 불꽃이 남아 있나? 설마 우리가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그렇게 보낸 시간은 거의 30분이나 되었다. 실제로 숨이 막힌 데다 클로로포름의 독한 가스까지 더해지니, 프랜시스 영애는 의식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마저 넘어선 듯 보였다. 그러다 마침내 인공 호흡을 실시하고 에테르를 주입하는 등 과학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쓴 끝에, 생명의 미세한 떨림,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 입에 갇다 댄 거울이 살짝 흐려지는 것 등, 생명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나타났다.

그때 마차 한 대가 도착했다. 홈즈는 블라인드를 걷고 밖을 내다보았다.

“레스트레이드가 영장을 들고 왔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는 자신이 쫓던 새들이 이미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급히 다가오자 홈즈가 덧붙였다. “우리보다 이 영애를 돌볼 권리가 더 큰 분이 오고 있군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린 씨. 프랜시스 영애를 가능한 한 빨리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동안 장례 절차를 진행하시지요. 관 속에 누워 있는 가련한 노부인은 홀로 마지막 안식처로 떠날 수 있게 말입니다.”

“자네 기록에 이 사건을 남기고 싶다면, 친애하는 왓슨,” 그날 저녁 홈즈가 말했다. “아무리 평정심이 강한 정신이라도 일시적으로 눈이 멀 수 있다는 사례로 남겨두게나. 그런 실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저지르는 법이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바로잡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위대

한 사람이라네. 나 역시 그 정도의 공로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군. 밤새도록 어떤 단서나 기묘한 문장, 혹은 이상한 관찰 내용이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는데 너무 쉽게 무시해 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시달렸거든. 그러다 새벽녘의 희뿌연 빛 속에서 갑자기 그 말이 떠올랐네. 필립 그린이 전해준 장례식장 주인의 아내의 말이었지. 그녀는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보통 물건이 아니라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라고 했었네. 그녀가 말한 건 관이었어.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말은, 관이 특별한 치수로 제작되었다는 뜻일 수밖에 없지. 하지만 왜? 대체 왜 그랬을까? 그러다 찰나의 순간, 관의 깊은 옆면과 바닥에 놓인 작은 시신의 모습이 떠올랐네. 왜 그토록 작은 몸을 위해 그렇게 큰 관을 만들었을까? 다른 시신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기 위해서였어. 두 시신 모두 하나의 사망 진단서 아래 매장될 작정이었던 거지. 내 시야가 흐릿해지지만 앉았어도 모든 게 명확했을 텐데 말이야. 8시면 프랜시스 영애의 장례가 시작되네. 관이 집을 떠나기 전에 막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회네.”

“그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건 무모한 도박이었네. 하지만 결과가 증명하듯,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도박이었지. 내가 알기로 이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었네. 막판에 이르러 실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주저했을지도 몰라. 그녀를 어떻게 죽였는지 흔적도 남기지 않고 매장할 수도 있었고, 설령 나중에 시신을 파헤친다 해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도망칠 기회가 있었을 테니까. 나는 그런 사정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기를 바랐네.

자네도 현장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걸세. 위층에 있던 그 끔찍한 은신처를 봤지 않나? 가련한 여인이 그곳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네. 그들은 안으로 들이닥쳐 클로로포름으로 그녀를 제압한 뒤 아래로 옮겼지. 그리고 그녀가 깨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관 속에 클로로포름을 더 부은 다음 뚜껑을 꼭 조여 닫은 것이네.

정말 영리한 수법이야, 왓슨. 범죄 기록을 통틀어 내게도 생소한 방식이라네. 만약 우리의 전직 선교사 친구들이 레스트레이드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면, 앞으로 그들의 행보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네.”

죽어 가는 탐정

죽어가는 탐정의 모험

설록 홈즈의 집주인인 허드슨 부인은 참으로 인내심이 강한 여성이었다. 그녀가 세를 준 2층 거처에는 시도 때도 없이 기이하고 때로는 불쾌한 인물들이 몰려와 휘젓고 다니기 일쑤였다. 게다가 이 놀라운 세입자는 생활 방식마저 워낙 별나고 불규칙해서, 허드슨 부인의 인내심을 끊임없이 시험했을 것이 분명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지저분한 방 상태, 엉뚱한 시간에 음악을 연주해 대는 버릇, 가끔 실내에서 권총 연습을 하는 일, 기괴하고 악취를 풍기는 과학 실험, 그리고 그를 둘러싼 폭력적이고 위험한 분위기까지. 이 모든 점을 따져보면 홈즈는 런던에서 가장 최악의 세입자였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가 내는 방세는 아주 두둑했다. 내가 홈즈와 함께 지냈던 시절, 그가 지불한 방세를 따져본다면 아마 이 집 전체를 통째로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하숙집 여주인은 그를 경외하며, 그의 행동이 아무리 기이하고 상식 밖이라 해도 감히 참견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아끼기도

했는데, 그는 여성을 대할 때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다정하고 예의가 발랐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여성을 싫어하고 불신했지만, 적어도 대결할 때만큼은 언제나 신사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들 무렵, 그녀는 내 거처로 찾아와 나의 불행한 친구가 얼마나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야기했다. 그녀가 그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경청했다.

“그분이 죽어가고 있어요, 왓슨 박사님.” 그녀가 말했다. “사흘째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데, 오늘을 넘기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의사를 부르려는 저를 말리기까지 했으니깐요. 오늘 아침, 뼈만 남은 듯 앙상한 얼굴에 형형하게 빛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분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흠즈 씨, 허락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지금 당장 의사를 모셔 오겠습니다.’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왓슨을 부르게.’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한 시간이라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이리로 오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하실지도 모르니까요.”

그가 아프다는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기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가 서둘러 코트와 모자를 챙겨 들었다는 말은 굳이 덧붙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차를 타고 돌아가는 동안, 나는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물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 흠즈 씨는 로더하이트에 있는 강가 근처 골목에서 사건을 조사 중이셨는데, 그곳에서 이 병

을 옮겨 오신 모양입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침대에 누워 계신 뒤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계십니다. 벌써 사흘째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하셨습니다.”

“세상에! 왜 의사를 부르지 않았소?”

“그분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얼마나 완고하신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감히 거역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직접 대면하시는 순간 곧 알게 되시겠지만, 이제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다. 안개 낀 11월의 흐릿한 빛이 스며드는 병실은 침울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내 마음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침대에 누워 나를 응시하는 그 수척하고 야윈 얼굴이었다. 눈동자는 열병으로 번뜩였고, 양쪽 뺨에는 발열로 인한 홍조가 띠어 있었으며, 입술에는 검은 딱지가 눌러붙어 있었다. 이불 위에 놓인 가느다란 손은 실 새 없이 경련했고, 목소리는 쉼소리가 섞인 채 불규칙하게 끊겼다. 내가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으나, 나를 발견하자 그의 눈에 희미한 생기가 돌았다.

“이런, 왓슨. 우리가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맞이한 것 같군.”

그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말투에는 예전의 그 무심한 기색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보게, 친구!” 나는 그에게 다가가며 외쳤다.

“물러서게! 뒤로 물러서!”

그는 위기 상황에서나 볼 법한 날카롭고 위압적인 태도로 소리쳤다.

“왓슨, 만약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온다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하겠네.”

“하지만 어째서입니까?”

“그건 내 바람이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허드슨 부인의 말이 맞았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엄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가 겪고 있는 극심한 피로를 지켜보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웠다.

“그저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가 설명했다.

“정확해! 자네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걸세.”

“물론입니다, 홈즈.”

그는 엄격했던 태도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화가 나신 건 아니지요?” 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가엾은 사람, 내 눈앞에 저토록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었겠나?

“다 자네를 위해서 이러는 걸세, 왓슨.” 홈즈가 쉼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위해서라고요?”

“내 병이 무엇인지 알겠네. 수마트라에서 건너온 쿨리병이야. 네덜란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아는 병이지. 비록 그들조차 지금까지 거의 밝혀내지 못했지만 말이야.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병은 반드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전염성도 끔찍할 정도로 강하다는 점이라네.”

그는 이제 열띤 기운을 띠며 말을 이어갔다. 그러더니 나를 멀리 물러나게 하려는 듯, 길쭉한 손을 경련하듯 움찔거리며 휘저었다.

“접촉하면 옮는 걸세, 왓슨. 그래, 접촉이 문제야. 거리를 두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네.”

“세상에, 홈즈! 그런 사소한 일이 내 마음을 단 한 순간이라도 흔들 수 있을 것 같나?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영향도 없었을 걸세. 그런데 이토록 오래된 친구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하는 일을 내가 망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내가 다시 한 걸음 다가갔지만, 그는 격분한 눈빛으로 나를 밀어냈다.

“거기 서 있겠다면 이야기를 계속하겠소. 하지만 그러지 않겠다면 당장 이 방에서 나가야 할 것이오.”

나는 홈즈의 비범한 능력에 깊은 경의를 품고 있기에, 그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 언제나 그의 결정을 따랐다. 하지만 지금 만큼은 직업적 본능이 요동쳤다. 다른 분야에서 그가 나의 스승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환자가 누워 있는 병실에서만큼은 내가 그의 주인이어야 했다.

“흠즈,” 내가 말했다. “자네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아픈 사람은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으니, 나도 아이를 대하듯 자네를 돌보겠네. 자네가 좋든 싫든, 나는 자네의 증상을 살피고 치료할 거야.”

그는 독기를 품은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의사를 두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붙여 주시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저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자네와의 우정은 의심할 여지가 없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지, 왓슨. 결국 자네는 경험도 아주 부족하고 자격도 평범한 일반의일 뿐 아닌가. 이런 말을 하게 되어 괴롭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군.”

나는 뼈아픈 상처를 입었다.

“그런 말씀은 흠즈, 당신답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경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군요. 하지만 저를 전혀 믿지 못하시겠다면, 더는 도움을 드리려 참견하지 않겠습니다. 서 재스퍼 마이크나 펜로즈 피셔, 아니면 런던에서 내로라하는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오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건 제 결론입니다. 제가 당신을 직접 돕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불러오

지도 않은 채, 그저 여기서 당신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사람을 완전히 잘못 보신 겁니다.”

“자네는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겠지, 왓슨.” 병자는 흐느낌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뿔으며 말했다. “내가 자네의 무지를 직접 증명해 줄까? 자네는 타파눌리 열병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 검은 대만 부패병에 대해서는 또 무엇을 알고 있난 말일세.”

“둘 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동양에는 질병의 종류도 다양하고, 기이한 병리학적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네, 왓슨.” 흠즈는 문장마다 말을 멈추며 점점 떨어져 가는 기력을 추슬렀다. “최근에 범죄 의학 측면의 연구를 진행하며 많은 것을 배웠지. 그러다 이 병에 걸리고 만 것이라네. 자네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네.”

“그렇지도 모르지. 하지만 마침 내가 알고 있는데, 현존하는 열대병 권위자 중 최고인 에인스트리 박사가 지금 런던에 와 있네. 흠즈,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어. 난 지금 당장 그를 데려오겠네.” 나는 단호하게 문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토록 큰 충격을 받은 적은 없었다! 죽어가는 그 남자가 호랑이처럼 번뜩이며 순식간에 내 앞을 가로막았다. 열쇠를 비틀어 잠그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곧바로, 단 한 번의 폭발적인 기력을 쏟아낸 남자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탈진한 채 침대로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내게서 열쇠를 강제로 뺏으려 해도 소용없네, 왓슨. 자네는 이미 내 손아귀에 있네, 친구. 여기 있게나. 내가 허락할 때까지는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하지만 자네 뜻을 들어주지.”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고, 문장 사이사이마다 고통스럽게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자네가 나를 위하는 마음뿐이라는 건 잘 알고 있네. 물론 아주 잘 알고 있어.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겠네. 다만 내가 기운을 차릴 시간만 좀 주게나. 지금은 안 되네, 왓슨, 지금은 안 돼. 벌써 네 시군. 여섯 시가 되면 자네를 보내주겠네.”

“이건 미친 짓이야, 홈즈.”

“딱 두 시간뿐이라네, 왓슨. 6시에는 반드시 출발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군요.”

“세상에 아무도 필요 없네, 왓슨. 고맙지만 옷을 정리하는 데 도움은 필요 없으니, 그냥 좀 떨어져 있게나. 그리고 왓슨,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네. 자네가 도움을 청할 대상은 자네가 말한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목하는 사람이어야 하네.”

“물론입니다.”

“왓슨, 자네가 이 방에 들어온 뒤로 처음 내뱉은 제대로 된 말일세. 저쪽에 책들이 좀 있으니 읽고 있게나. 지금은 좀 지치는군. 전지가 부도체에 전기를 쏘아부을 때 어떤 기분일지 궁금하구먼. 왓슨, 6시에 다시 이야기하세.”

하지만 그 일은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재개되었다. 그리고 그 상황은 홈즈가 문을 향해 갑자기 뛰어오를 때 느꼈던 충격에 못지않은 커다란 충격을 내게 안겨주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미동도 없는 그를 몇 분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옷가지에 얼굴이 거의 가려져 있어서 그는 잠든 것처럼 보였다. 도무지 책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나는 천천히 방 안을 거닐며, 벽마다 걸려 있는 유명한 범죄자들의 초상화를 살펴보았다. 그러다 목적 없이 방을 배회하던 중 벽난로 선반 앞에 다다랐다. 선반 위에는 파이프와 담배 주머니, 주사기, 휴대용 칼, 리볼버 탄환 같은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 물건들 한가운데에 뚜껑을 밀어서 여는 작은 흑백 상자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아주 깔끔하고 정교한 물건이었다. 나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

그가 내지른 비명은 소름 끼칠 정도로 처절했다. 길 건너편까지 들릴 법한 날카로운 외침이었다. 그 끔찍한 비명 소리에 나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고 머리카락이 쭈뼛 곤두섰다. 고개를 돌린 순간, 경련으로 일그러진 얼굴과 광기에 어린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손에 작은 상자를 쥔 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그만 내려놓게! 당장 내려놓으란 말이야, 왓슨—지금 당장!”

내가 상자를 벽난로 선반 위에 다시 올려두자, 홈즈는 베개 위로 머리를 툭 떨어뜨리며 안도의 깊은 한숨을 내뿜었다.

“내 물건에 손대는 건 정말 질색이야, 왓슨. 내가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자네도 알지 않나. 자네가 안달복달하는 바람에 참을 수가 없

군.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릴 작정인가? 이보게, 좀 앉아서 나 좀 쉬게 내버려 두게나!”

그 사건은 내 마음에 매우 불쾌한 잔상을 남겼다. 이유 없는 격렬한 흥분, 그리고 평소의 부드러운 태도는 온데간데없이 터져 나온 거친 언사들. 그 모습은 그의 정신이 얼마나 깊이 무너져 내렸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모든 폐허 중에서도 고결한 정신이 무너져 내린 모습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 나는 약속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침묵 속에 깊은 낙담을 느끼며 앉아 있었다. 그 역시 나만큼이나 시계를 살피고 있었던 모양인지, 6시가 채 되기도 전에 그는 다시 이전처럼 열띤 기운을 띠며 말을 시작했다.

“자, 왓슨.” 그가 말했다. “주머니에 잔돈 좀 있나?”

“네.”

“은화는 좀 있나?”

“꽤 많습니다.”

“반 크라운짜리가 몇 개나 되죠?”

“다섯 개 있습니다.”

“아, 너무 적군! 너무 적어! 정말 안타깝네, 왓슨! 하지만 그거나마 회중시계 주머니에 넣어두게.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전부 왼쪽 바지 주머니

니에 넣고. 고맙네. 그렇게 해야 자네 몸의 균형이 훨씬 잘 잡힐 테니까.”

그것은 명백한 광기였다. 그는 몸서리를 치더니, 기침인지 흐느낌인지 모를 소리를 다시 한번 내뿜었다.

“왓슨, 이제 가스등을 켜게. 하지만 아주 조심해야 하네. 단 한 순간이라도 불꽃이 절반 이상 커지지 않도록 말이야. 제발 주의해주게, 왓슨. 고맙네, 아주 좋아. 아니, 블라인드는 내릴 필요 없네. 이제 내 손이 닿는 이 탁자 위에 편지 몇 통과 서류들을 좀 놓아주겠나? 고맙네. 자, 이제 벽난로 선반 위에 널브러진 잡동사니들도 좀 가져오게. 잘했네, 왓슨! 저기에 설탕 집게가 있군. 그걸 이용해서 그 작은 상아 상자를 좀 들어 올려주게나. 그리고 여기 서류들 사이에 놓아주게. 좋네! 이제 가서 로워 버크가 13번지에 사는 켈버턴 스미스 씨를 모셔오게나.”

솔직히 말하자면, 의사를 불러오려던 내 의지는 다소 약해진 상태였다. 불쌍한 흠즈가 너무나 명백하게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었기에, 그를 혼자 두는 것이 오히려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방금 전까지 그 사람을 만나기를 완강히 거부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제는 그 이름을 가진 이를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난 모습이었다.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아마 아닐 걸세, 왓슨. 놀랄울지도 모르겠지만, 이 질병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농장주라네. 켈버턴 스미스라는 인물은 수마트라의 유명한 거주자로, 지금은 런던을

방문 중이지. 의료 시설과 멀리 떨어진 그의 농장에서 이 병이 창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스스로 병을 연구했네. 그 결과 꽤나 광범위한 지식을 얻게 되었지. 그는 매우 체계적인 사람이라네. 자네가 6시 전에는 출발하지 않기를 바랐던 건, 그 시간에 그를 서재에서 만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만약 그를 설득해 이곳으로 불러올 수만 있다면, 이 질병을 조사하는 것을 평생의 취미로 삼아온 그의 독보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걸세. 그러면 분명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나는 홈즈가 남긴 말을 끊임 없이 하나로 묶어 기록하려 한다. 그가 고통에 겨워 숨을 헐떡이고, 고통을 이기지 못해 손을 움켜쥐며 말을 멈추었던 순간들까지 일일이 묘사하지는 않겠다. 내가 그와 함께 보낸 몇 시간 사이, 그의 모습은 눈에 띄게 나빠져 있었다. 얼굴의 열꽃은 더욱 짙어졌고, 눈가는 더욱 움푹 패어 그 속에서 눈동자만 형형하게 빛났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번들거렸다. 그럼에도 그는 특유의 경쾌하고 당당한 말투를 잃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숨을 내뿜는 순간까지도 언제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에게 내가 어떤 상태로 남겨졌는지 있는 그대로 전하게나.” 홈즈가 말했다. “자네 마음속에 떠오른 그 느낌 그대로를 전달해야 하네. 죽어가는 사람, 그것도 죽어가며 헛소리를 하는 사람 말일세. 참, 이 생물들이 어찌나 번식력이 좋은지, 바다 밑바닥 전체가 통째로 굴 덩어리가 되어버려도 이상할 게 없겠어. 아, 내가 탄소리를 하는군! 뇌가 뇌를 지배한다는 게 참 묘한 일이야. 왓슨,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

“컬버틴 스미스 씨에게 전할 지시 사항 말입니다.”

“아, 그래, 기억나는군. 내 목숨이 달린 일이야. 그를 설득해 주게, 왓슨. 그와 나 사이는 아주 나쁘다네. 그의 조카 말일세, 왓슨—나는 범행이 있었다고 의심했고, 그가 그 사실을 눈치채도록 내버려 두었지. 그 아이는 끔찍하게 죽었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 자네라면 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걸세, 왓슨. 간청하고, 빌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이리로 데려와 주게. 그만이 나를 구할 수 있어—오직 그 사람뿐일세!”

“그를 마차까지 직접 업어서라도 데려오겠습니다.”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말게. 그저 그를 설득해서 오게만 하면 되네. 그런 다음 자네는 그보다 먼저 돌아오게. 무슨 핑계를 대서든 그와 함께 오지는 말게. 잊지 말게, 왓슨. 자네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걸세. 자네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니까. 분명 저 생물들의 번식을 억제하는 천적들이 있을 테지. 왓슨, 자네와 나, 우리는 우리 몫을 다했네. 그렇다면 세상이 굴로 뒤덮여야 하겠나? 아니, 아니야. 끔찍한 일이지! 자네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전부 전하게.”

그 위대한 지성이 마치 어리석은 아이처럼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홈즈는 내게 열쇠를 건네주었는데, 혹여 그가 안에서 스스로 문을 잠가버릴까 싶어 좋은 생각이다 싶은 마음에 나는 그 열쇠를 챙겨 나왔다. 복도에서는 허드슨 부인이 몸을 떨며 울먹이는 채 기다리고 있었다. 집을 나서며 복도를 지나갈 때, 뒤편에서 홈즈의 높고 가냘픈 목소리가 마치 망상에 빠진 듯한 주문처럼 들려왔다. 길

아래로 내려와 마차를 부르려고 휘파람을 불고 있을 때, 안개 속에서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왔다.

“흙스 씨는 좀 어떠신가요?” 그가 물었다.

스코틀랜드 야드의 모턴 경위였다. 그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평상복인 트위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병세가 아주 위중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는 아주 기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만약 그 눈빛이 너무나 악랄하게 느껴지지만 앓았더라면, 문 위 창문에서 새어 나오는 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서 승리감에 도취한 기색을 읽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일에 대해 떠도는 소문을 좀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마차가 도착했기에 나는 그를 남겨둔 채 떠났다.

로워 버크 거리는 노팅힐과 켄싱턴의 경계 어딘가에 자리 잡은 근사한 저택들이 늘어선 거리였다. 마차를 세운 곳은 유독 눈에 띄는 집이었는데, 구식 철제 난간과 육중한 접이식 문, 그리고 반짝이는 황동 장식에서 자부심 넘치면서도 점잖은 품격이 느껴졌다. 집 안쪽, 분홍빛 전등 불빛을 등지고 나타난 엄숙한 인상의 집사 또한 그 집의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네, 컬버턴 스미스 씨는 안에 계십니다. 왓슨 박사님! 알겠습니다, 박사님. 명함을 가지고 올라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미천한 이름과 직함은 컬버턴 스미스 씨에게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한 모양이었다.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날카롭고 짜증 섞인, 귀를 찌르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지? 원하는 게 뭐야? 세상에, 스테이플스,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는 방해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나!”

집사가 부드럽고 차분한 어조로 설명을 이어갔다.

“스테이플스, 그를 만나지 않겠네. 이렇게 내 업무를 방해하게 둘 수는 없어. 지금은 자리에 없다고 전하게. 정 만나야했다면 내일 아침에 다시 오라고 말아야.”

다시금 나지막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좋아, 좋아. 그에게 전해라. 내일 아침에 오든, 아니면 아예 오지 말든 상관없다고. 내 작업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나는 흠즈가 병상에서 괴로워하며, 내가 도움을 줄 때까지 남은 시간을 초조하게 세고 있을 모습만을 생각했다. 격식을 차릴 여유 따위는 없었다. 그의 생사가 나의 신속함에 달려 있었다. 사과하는 기색이 역력한 집사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나는 그를 밀치고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한 남자가 화로 옆 안락의자에서 분노 섞인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거칠고 번들거리는 피부를 가진 커다란 노란 얼굴이 보였다. 두툼한 이중턱 아래로는 술이 많은 모래빛 눈썹 사이로, 나를 위협하듯 노려보는 침울한 회색 눈동자 두 개가 박혀 있었다. 높게 벗겨진 대머리 위에는 분홍빛 두개골의 한쪽 곡선을 따라 작은 벨벳 흡연용 모자가 멋을 부리듯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머리통은 엄청나게 컸지만, 내려다본 그의 체구는 놀라울 정도로 작고 왜소했다. 어깨와 등은 마치 어린 시절 구루병을 앓았던 사람처럼 뒤틀려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이렇게 불쑥 찾아오다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내일 아침에 보겠다고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내가 말했다. “사안이 급박하여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설록 홈즈 씨가—”

내 친구의 이름이 언급되자, 그 작은 남자는 기이할 정도로 격하게 반응했다. 얼굴에 서려 있던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신 그의 이목구비는 팽팽하게 긴장하며 날카로운 기색을 띠기 시작했다.

“홈즈에게서 오는 길인가?” 그가 물었다.

“방금 그를 만나고 나오는 길입니다.”

“홈즈는 어떨까? 잘 지내나?”

“그가 위독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남자는 내게 의자를 권하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가 몸을 돌리는 찰나, 벽난로 선반 위에 걸린 거울을 통해 그의 얼굴이 스치듯 보였다. 나는 분명 그가 악의에 찬 끔찍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저 찰나의 순간에 포착된 신경질적인 경련이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실제로 잠시 후 나를 돌아본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 소식을 들으니 유감입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홈즈 씨와 몇 차례 업무적인 일로만 알고 지냈을 뿐입니다만, 그의 재능과 인품만큼은 깊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병을 연구하듯, 그는 범죄를 연구하는 아마추어 전문가지요. 그에게는 범죄자가 연구 대상이고, 저에게는 미생물이 연구 대상입니다.” 그는 옆 탁자 위에 놓인 병과 유리병들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저 젤라틴 배양액들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범죄자들이 지금 형기를 채우고 있는 셈입니다.”

“홈즈 씨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 건 바로 당신의 특별한 지식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런던에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라고 생각했고요.”

작은 체구의 남자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는 바람에, 쓰고 있던 경쾌한 느낌의 흡연용 모자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왜 말입니까?” 그가 물었다. “홈즈 씨가 왜 제가 그분의 곤경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양의 질병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걸린 이 병이 동양의 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 중인데, 부두 쪽에서 중국인 선원들 사이를 누비며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컬버턴 스미스 씨는 유쾌한 미소를 지으며 담배 모자를 집어 들었다.

“아, 그런 일이었습니까?” 그가 말했다. “부디 상황이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병환이 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사흘 정도 됩니다.”

“그가 헛소리를 하는 건가요?”

“가끔씩 말이지요.”

“허, 이거 정말 심각한 모양이군요. 그의 요청을 외면한다면 그건 인간도 아닐 겁니다. 왓슨 박사, 나는 내 업무가 방해받는 걸 아주 싫어하지만, 이번 사건은 확실히 예외로 두어야겠어요. 지금 당장 같이 갑시다.”

나는 홈즈가 당부했던 말을 떠올렸다.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내가 말했다.

“좋습니다. 저 혼자 가겠습니다. 홈즈 씨의 주소가 적힌 쪽지를 가지고 있으니, 늦어도 30분 안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홈즈의 침실에 다시 들어섰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사이 홈즈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어 있었다. 안색은 여전히 창백하고 초췌했지만, 섬망 증세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목소리는 여전히 가냘팠으나, 평소보다 훨씬 더 명료하고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래, 그를 보았나, 왓슨?”

“맞습니다. 그가 오고 있습니다.”

“훌륭해, 왓슨! 정말 훌륭해! 자네는 최고의 전령이라네.”

“그분은 저와 함께 돌아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될 일이야, 왓슨. 명백히 불가능한 일이지. 그가 내 병세가 어떠냐고 묻던가?”

“이스트 엔드에 사는 중국인들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네.”

“정확해! 자, 왓슨, 자네는 친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네. 이제 자네는 이 현장에서 물러나도 좋네.”

“홈즈, 일단 기다리면서 그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소.”

“당연히 그래야지요. 하지만 그가 우리 둘뿐이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솔직하고 가치 있는 의견을 내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왓슨, 내 침대 머리맡 뒤쪽에 딱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거든요.”

“이보게, 홈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 왓슨. 이 방은 무언가를 숨기기에 적당한 곳은 아니야. 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다행이지. 의심을 살 일도 적을 테니까. 그래도 왓슨, 바로 저곳이라면 가능할 것 같네.”

갑자기 홈즈가 몸을 일으켰다. 수척한 얼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저 바퀴들이 있네, 왓슨. 어서, 친구! 제발 부탁하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움직이지 말게. 내 말 들리나? 절대 움직이지 말고, 말도 하지 말게! 그저 온 정신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게나.”

그러더니 순식간에 홈즈의 기운이 빠져나갔다. 위엄 있고 단호했던 목소리는 이내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환자의 낮고 모호한 웅얼거림으로 변해갔다.

내가 급히 몸을 숨긴 그 은신처 안에서,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와 침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뜻밖에도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 정적을 깨는 것이라고는 병자의 거친 숨소리와 혈떡임뿐

이었다. 방문객이 침대 곁에 서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내려다보고
있으리라 짐작할 뿐이었다. 마침내 그 기묘한 정적이 깨졌다.

“흠즈!” 그가 외쳤다. “흠즈!” 잠든 이를 깨우려는 듯 다급한 목소리
였다. “내 목소리가 안 들립니까, 흠즈?”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그가 병든 이의 어깨를 거칠게 흔든 것 같았다.

“스미스 씨, 당신인가요?” 흠즈가 속삭였다. “설마 오시리라고는 감
히 기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보게나, 내가
여기 있지 않은가. 불씨라네, 흠즈—타오르는 불씨 말일세!”

“정말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결한 마음씨를 가지셨군요. 당신의 특
별한 식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방문객이 킬킬거리며 비웃었다.

“그렇다네. 다행히도 런던에서 유일하게 그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네뿐이야. 그런데 자네,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나?”

“마찬가지입니다.” 흠즈가 말했다.

“아! 증상을 알아보시겠군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글쎄요, 흠즈. 놀랍지는 않습니다. 만약 정말로 상황이 같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아주 불길한 징조겠지요. 불쌍한 빅터는 아주 건강하고 활기찬 청년이었는데, 불과 나흘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당신 말대로 런던 한복판에서 그런 희귀한 아시아 질병에 걸렸다는 건 분명히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그 질병은 제가 아주 특별하게 연구해 온 것이기도 하고요. 참으로 기묘한 우연이군요, 흠즈. 당신이 그 점을 알아챈 건 아주 영리한 일이지만, 그것이 원인과 결과 관계라고 암시하는 건 다소 지나친 추측 같습니다.”

“당신이 그랬다는 걸 알고 있었소.”

“오, 그랬단 말이지? 그래, 어쨌든 증거는 없었지만 말이야. 그런데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더니, 막상 일이 터지자마자 나한테 기어 들어와 도움을 청하다니. 네 스스로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대체 무슨 식의 게임이지, 응?”

환자의 거칠고 힘겨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물 좀... 물 좀 다오!" 그가 헐떡이며 말했다.

“자네, 최후가 정말 코앞이로군, 친구. 하지만 자네와 한마디 나누기 전에는 보내고 싶지 않네. 그래서 물을 주는 거야. 자, 흘리지 말게! 그래, 됐네. 내 말 알아듣겠나?”

흠즈가 신음 소리를 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네. 지난 일은 다 잊기로 하지.” 그가 속삭였다. “그 말들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겠네. 맹세코 그러겠네. 그러니 제발 나를 고쳐주게. 그러면 다 잊어버릴 테니.”

“무엇을 잊으라는 말씀입니까?”

“자, 빅터 새비지의 죽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방금 당신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나 다름없군요. 하지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기억하든 잊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당신이 증인석에 서는 일은 없을 테니까. 하지만 홈즈, 장담컨대 당신이 서게 될 곳은 전혀 다른 모양의 상자가 될 거요. 내 조카가 어떻게 죽었는지 당신이 아는 건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 조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니까.”

“그래, 그래.”

“나를 찾아왔던 그 친구 말이야—이름은 잊어버렸네만—자네가 이 스트랜드에서 선원들 사이에 있다가 그 병에 걸렸다고 하더군.”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홈즈, 자네는 자신의 두뇌를 아주 자랑스러워하지? 스스로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자네보다 더 영리한 상대를 만난 거야. 자,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게, 홈즈. 이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나?”

“생각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제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죽기 전에 이 사실만큼은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통증을 좀 가라앉힐 수 있게 뭐 좀 가져다주게.”

“통증이 심한가요? 그렇군요. 예전에는 쿨리들도 막바지에는 비명을 지르곤 했지요. 제 생각에는 경련이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경련이 맞아요.”

“뭐, 어쨌든 제 말은 들으실 수 있겠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무렵, 혹시 인생에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보게.”

“생각할 기운조차 없을 만큼 몸이 좋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돕지요. 혹시 우편으로 온 건 없었습니까?”

“우편으로 보냈단 말인가요?”

“혹시 상자 같은 건 없었습니까?”

“정신이 아득해져요. 나, 쓰러질 것 같아요!”

“내 말 좀 들어보게, 홈즈!”

그는 마치 죽어가는 사람을 흔드는 듯한 소리를 냈다. 나는 숨어 있는 곳에서 간신히 몸을 가만히 유지할 수 있었다.

“내 말을 들어야 하네. 반드시 들어야만 해. 상자 하나를 기억하나? 상자로 만든 상자 말일세. 수요일에 배달되었지. 자네가 그 상자를 열었지 않나—기억나나?”

“그래요, 그래요, 내가 열었소. 안에는 날카로운 스프링이 들어 있었지. 무슨 장난이라도 치려고—”

“농담이 아니었어.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되겠지. 이 어리석은 놈, 네가 원해서 얻은 결과다. 누가 내 앞길을 막으라고 했나? 네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 결코 해치지 않았을 텐데.”

“기억났어.” 홈즈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용수철이야! 거기서 피가 흘러나왔어. 이 상자, 바로 탁자 위에 있는 이 상자 말이야.”

“정확해, 바로 그거야! 세상에! 차라리 그 물건을 내 주머니에 넣어 두는 게 낫겠군. 네가 가진 마지막 증거도 이제 사라졌다. 하지만 홈즈, 너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내가 널 죽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지. 넌 빅터 새비지의 운명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너도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해준 것이다. 홈

즈, 네 최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난 여기 앉아서 네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겠다.”

홈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속삭임으로 잦아들었다.

“그게 뭐니까?” 스미스가 물었다. “가스등을 올리라고요? 아,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군요. 알겠습니다. 당신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불을 밝히죠.” 그가 방을 가로질러 가자 갑자기 주위가 환해졌다. “친구여, 그 외에 내가 더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성냥이랑 담배 하나만.”

기쁨과 경악에 휩싸인 나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는 평소와 다른없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조금 힘이 없긴 했지만, 분명 내가 잘 아는 바로 그 목소리였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나는 컬버턴 스미스가 경악에 찬 눈으로 동료들을 내려다보며 말없이 서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마침내 그가 메마르고 쉰 목소리로 묻는 소리가 들렸다.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체가 되는 것이라네.” 홈즈가 말했다. “자네가 내게 물 한 잔을 따라줄 때까지, 지난 사흘 동안 음식은 물론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맹세할 수 있네. 하지만 지금 나를 가장 괴롭히는 건 담배라네. 아, 여기 담배가 좀

있군.” 성난 굵은 소리가 들렸다. “이제야 좀 살 것 같군. 어라! 이 발소리는? 친구가 오는 소리가 아닌가?”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고, 모턴 경위가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게 완벽하군. 바로 이 사람이 자네가 찾던 범인이야.” 홈즈가 말했다.

경위는 평소처럼 주의 사항을 일러주었다.

“빅터 새비지를 살해한 혐의로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그는 결론을 내리며 말했다.

“그리고 설록 홈즈를 살해하려 했던 미수 사건도 추가해 주시죠.” 내 친구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경위님, 환자에게 번거로움을 주지 않으려고 컬버틴 스미스 씨가 가스 불을 켜서 신호를 보내는 친절까지 베풀어 주더군요. 아, 참. 죄수의 코트 오른쪽 주머니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는데, 미리 꺼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라면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겠습니다. 여기 내려놓으시죠.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지도 모르니까요.”

갑자기 누군가 달려드는 소리와 몸싸움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쇠붙이가 부딪히는 찡깡 소리와 고통에 찬 비명이 뒤따랐다.

“그러다 당신만 다칩니다.” 경위가 말했다. “가만히 좀 계시죠, 네?” 수갑이 채워지는 달각 소리가 들렸다.

“아주 멋진 함정이군!” 날카롭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흠즈, 피고인석에 앉게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그가 나를 이곳으로 불러들인 건 자신을 치료해 달라는 부탁 때문이었어. 나는 그가 안쓰러워 응한 것뿐이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는 분명 거짓을 늘어놓겠지. 자신의 망상에 힘을 실어줄 만한 말을 내가 했다면 꾸며낼 게 뻔해. 마음대로 거짓말을 해 보라고, 흠즈. 내 말의 가치는 당신의 말만큼이나 신뢰할 만하니까.”

“세상에!” 흠즈가 외쳤다. “그를 완전히 잊고 있었군. 왓슨 박사, 정말 미안하네. 자네를 미처 챙기지 못하다니 말이야! 켈버턴 스미스 씨와는 이미 오늘 저녁 일찍 만났다고 들었으니, 따로 소개할 필요는 없겠군. 아래에 마차를 불러 두었나? 옷을 갈아입는 대로 따라가겠네. 역에서 내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필요했네.”

흠즈가 몸단장을 하던 중간중간 클라레 한 잔과 비스킷으로 허기를 달래며 말했다.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내 생활 습관은 불규칙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기행은 보통 사람들에게 비해 내게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네. 다만 허드슨 부인에게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실히 각인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네. 부인이 자네에게 소식을 전할 것이고, 자네는 다시 그에게 전해야 하니까 말이야. 왓슨, 자네는 서운해하지 않겠지? 자네의 수많은 재능 중에서도 ‘속임수’만큼은 도저히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 거야. 만약 자네가 내 비밀을 공유했다면, 스미스에게 그

가 당장 와야만 하는 긴박한 상황임을 설득하지 못했을 걸세. 그게 이번 계획의 핵심이었으니까. 그의 보복심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기에, 그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직접 확인하러 올 것이라고 확신했네.”

“하지만 흠즈, 당신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그 창백하다 못해 끔찍한 얼굴은 대체 무엇입니까?”

“왓슨,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미모가 살아나지는 않네. 그 외의 문제는 스펀지로 닦아내면 다 해결될 일이지. 이마에는 바셀린을 바르고, 눈에는 벨라돈나를 넣고, 광대뼈에는 연지를 바른 뒤 입술 주위에 밀랍을 덧바르면 아주 만족스러운 모습이 연출될 걸세. 궤병에 대해서라면 나중에 논문이라도 한 편 써볼까 생각 중이라네. 가끔씩 반 크라운이나 굴 같은 엉뚱한 화제로 말을 섞어주기만 해도, 정신이 혼미해진 듯한 효과를 아주 기가 막히게 낼 수 있거든.”

“하지만 전염될 위험도 전혀 없었는데, 왜 저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 겁니까?”

“어찌 그런 걸 묻나, 친애하는 왓슨? 내가 자네의 의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무리 기력이 없다 한들 맥박이나 체온이 오르지도 않은 사람을 죽어가는 환자라고 자네의 그 예리한 판단력이 그냥 넘어가 줄 리 있겠나? 4야드 거리라면 자네를 속일 수 있었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누가 스미스를 내 손아귀에 들어오게 해 주었겠나? 아니, 왓슨. 나라면 그 상자에는 손도 대지 않겠네. 옆에서 비스듬히 들여다보면, 상자를 열 때 독사의 이빨처럼 날카로운 스프링이 튀어나오는 게 보일 걸세. 이 괴물과 유산 상속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불쌍한

새비지도 아마 그런 장치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 테지.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내게 오는 서신은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나는 나에게 오는
소포라면 무엇이든 상당히 경계하고 있네. 어쨌든 그가 정말로 계획을
완수했다고 믿게 만들면 자백을 받아낼 수 있으리라는 건 분명했지. 나
는 진정한 예술가처럼 철저하게 그 연기를 해냈네. 고맙네, 왓슨. 코트
입는 것 좀 도와주게. 경찰서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심슨네 식당에서 영
양가 있는 음식이라도 좀 먹는 게 좋겠군.”

마지막 인사

8월 2일 밤 9시였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8월이었다. 후덥지근하고 정체된 공기 속에는 경외심마저 느껴지는 정적이 감돌았고, 무언가 막연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마치 타락한 세상을 향해 신의 저주가 무겁게 내려앉은 듯한 기분마저 들 정도였다. 해는 진 지 오래였으나, 멀리 서쪽 지평선에는 마치 벌어진 상처처럼 핏빛 선이 길게 그어져 있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밝게 빛났고, 아래쪽 만에는 선박들의 불빛이 어른거렸다.

두 명의 유명한 독일인은 정원 산책로의 돌 난간 옆에 서 있었다. 그들 뒤로는 지붕이 낮고 길게 뻗은 박공지붕 형태의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거대한 백색 절벽 아래로 넓게 펼쳐진 해변을 내려다보았다. 4년 전, 폰 보르크가 마치 방랑하는 독수리처럼 내려앉았던 바로 그곳이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댄 채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아래에서 올려다본다면, 그들이 피우는 시가 끝의 붉은 불빛이 마치 어둠 속에서 내려다보는 사악한 악마의 이글거리는 눈동자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폰 보르크는 참으로 놀라운 인물이었다. 카이저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요원 중에서도 그와 비견될 만한 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가 가장 중요한 임무인 영국 파견직에 처음 발탁된 것도 바로 그 뛰어난 재능 덕분이었다. 하지만 임무를 맡은 이후, 그의 재능은 진실에 맞닿아 있는 전 세계의 극소수 인물들에게 더욱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중 한 명이 지금 그의 곁에 있는 동료, 공사관의 수석 비서인 폰 헤를링 남작이었다. 남작의 100마력짜리 거대한 벤츠 자동차는 주인을 런던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기다리며 시골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사태가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니, 아마 일주일 안에 베를린으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비서가 말했다. “친애하는 폰 보르크, 베를린에 도착하시면 그곳에서 받게 될 환대에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 나라에서 이룬 업적을 최고위층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제가 마침 잘 알고 있거든요.”

비서는 체구가 거대한 사내였다. 어깨는 넓고 가슴은 두터웠으며 키도 컸다. 그는 말을 느릿하고 묵직하게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바로 그 말투 덕분에 정치 경력에서 큰 자산을 쌓을 수 있었다.

폰 보르크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을 속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이보다 더 고분고분하고 단순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잘 모르겠군.” 상대방이 생각에 잠긴 듯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기묘한 한계가 있어. 그 한계를 파악하는 법을 반드시 익혀야만 하

지. 겉보기에 너무 단순해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낯선 이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법이야. 처음에는 그들이 그저 유순하기만 한 줄 알게 되지. 그러다 갑자기 아주 완고한 면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자신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깨닫고 그 사실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걸 알게 돼. 예를 들어, 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섬나라 특유의 관습 같은 것들이 있거든.”

“‘품격’이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폰 보르크는 마치 온갖 고초를 다 겪은 사람처럼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영국인 특유의 편견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묘한 양상들을 전부 포함해서 말이죠. 제 실수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 실수를 이야기해도 괜찮겠지요? 당신은 제 성공 사례를 충분히 잘 알고 계시니, 제 실수 정도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테니까요.

그건 제가 처음 영국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장관의 저택에서 주최한 주말 모임에 초대받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오가는 대화들이 놀라울 정도로 경솔하더군요.”

폰 보르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수집한 정보를 베를린으로 요약해서 보냈지요. 불행히도 우리 총리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거칠게 행동하시는 바람에,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보내오고 말았습니다. 그 답변 때문에 결국 모든 단서가 저를

가리키게 되었지요. 그 일이 저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 할 겁니다. 당시 영국 측 호스트들의 태도가 결코 너그럽지 않았다는 점은 제가 보증하죠. 그 후로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는 데만 꼬박 2년이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당신은, 그 특유의 스포츠맨 정신을 내세우며—”

“아니, 아니네. 연기라고 하지 말게. 연기는 인위적인 것이지만, 이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네. 나는 타고난 스포츠맨이니까. 그저 즐길 뿐이라네.”

“그렇기에 더욱 효과적인 법이지요. 당신은 그들과 함께 요트를 타고, 사냥을 하고, 폴로 경기를 즐깁니다. 온갖 시합에서 그들과 맞붙고, 올림픽아에서는 당신의 사두마차가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죠. 심지어 젊은 장교들과 권투 시합까지 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요? 아무도 당신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말 좋은 친구’라거나, ‘독일인 치고는 꽤 괜찮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죠. 술을 즐기고, 밤마다 클럽을 드나들며, 거칠게 도시를 누비는, 앞뒤 재지 않는 혈기 왕성한 청년으로만 보인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당신의 그 조용한 시골 저택은 영국에서 벌어지는 온갖 소동의 중심지가 되고, 스포츠를 즐기는 그 신사는 유럽에서 가장 영리한 정보 요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천재성이예요, 폰 보르크 씨. 그야말로 천재성이라고요!”

“과찬이십니다, 남작님.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이 나라에서 보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그동안

제가 모아둔 작은 수집품들을 보여드린 적이 없었지요. 잠시 안으로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서재 문은 테라스로 바로 이어져 있었다. 폰 보르크는 문을 밀어 열고는 앞장서서 전기 스위치를 켰다. 그러고는 뒤따라 들어오는 거구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문을 닫았다. 이어 격자무늬 창문을 덮은 두꺼운 커튼까지 꼼꼼하게 갈무리했다. 이 모든 예방 조치를 마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뒤에야, 그는 햇볕에 그을린 매부리코 얼굴을 돌려 손님을 바라보았다.

“제 서류 중 몇 장이 없어졌습니다.” 그가 말했다. “어제 아내와 집 안 사람들이 플러싱으로 떠나면서 중요도가 낮은 것들은 챙겨갔습니다. 하지만 남은 서류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사관의 보호를 요청해야겠습니다.”

“귀하의 성함은 이미 (대사의) 수행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귀하와 수하물 모두 이동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예 떠나지 않아도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국이 프랑스를 그들의 운명에 맡겨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양국 사이에 구속력 있는 조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벨기에 쪽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벨기에도 포함해서 말이죠.”

폰 보르크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굴욕을 겪고 나면 그녀는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겁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녀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명예는 어찌고요?”

“아니, 선생, 우리는 실용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명예라니요, 그건 중세 시대의 관념일 뿐입니다. 게다가 영국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이겠지만, 우리는 5천만에 달하는 특별 전쟁세까지 걷고 있습니다. 《더 타임스》 지 1면에 대놓고 광고라도 한 것처럼 우리의 목적을 명백히 드러낸 조치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의구심 섞인 질문이 들려오곤 하죠.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제 업무입니다. 또한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 불만을 달래는 것 역시 제 일이고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작 중요한 핵심 사항들—군수품 비축, 잠수함 공격에 대비한 준비, 고성능 폭약 제조를 위한 체계 등—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어떻게 참전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아일랜드 내전과 창문을 부수며 날뛰는 광포한 여인들, 그리고 그 외에 도대체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모를 온갖 소란을 일으켜서, 영국의 시선이 온통 자국 내 문제에만 쏠려 있는 판국에 말입니다.”

“그녀도 자신의 앞날을 생각해야만 할 테니까요.”

“아,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국에 대해 세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당신이 가져올 정보가 우리에게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존 볼 씨, 즉 영국에게는 오늘이나 내일이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가 오늘을 택한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고, 내일로 미룬다면 준비는 더욱 완벽해지겠지요. 제 생각에 그들은 동맹군 없이 싸우기보다는 동맹군과 함께 싸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듯합니다만, 그것은 그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입니다. 이번 주는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한 주니까요. 그나저나, 아까 서류 이야기를 하고 계셨지요?”

그는 안락의자에 앉아 차분하게 시가 연기를 내뿜었다. 밝은 빛이 그의 넓고 벗겨진 머리 위로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커다란 참나무 패널로 벽을 두르고 서가로 가득 찬 그 방, 구석진 곳에는 커튼이 하나 드리워져 있었다. 커튼을 걷어내자 황동 테두리를 두른 커다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폰 보르크는 시계 줄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떼어냈다. 그는 한참 동안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더니, 이윽고 묵직한 금고 문을 활짝 열었다.

“자, 보게!” 그가 손을 휘저으며 한 발짝 물러나 말했다.

열린 금고 안으로 빛이 선명하게 쏟아졌다. 대사관 비서는 금고 안에 마련된 수많은 서류함 칸들을 낫을 잃은 채 유심히 살펴보았다. 칸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는데, 그는 눈길을 옮기며 그 목록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포드', '항만 방어', '항공기', '아일랜드', '이집트', '포츠머스 요새', '영국 해협', '로시스' 같은 제목들이 줄을 이었다. 그 외에

도 수십 개의 항목이 더 있었다. 칸마다 서류와 설계도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엄청나군요!” 비서가 말했다. 그는 피우던 시가를 내려놓으며 통통한 두 손을 가볍게 맞부딪혔다.

“그 모든 게 고작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남작님. 술과 승마를 즐기는 시골 지주치고는 꽤 괜찮은 성적이지요. 하지만 제 수집품의 정점은 이제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놓아둘 자리도 이미 마련해 두었고요.” 그는 ‘해군 신호법’이라고 적힌 글자 위쪽의 빈 공간을 가리켰다.

“하지만 이미 꽤 괜찮은 자료를 확보해 두셨군요.”

“시대에 뒤떨어진 쓰레기일 뿐입니다. 해군성이 어떤 식으로든 눈치를 챘는지 모든 암호를 바꿔버렸더군요. 남작님, 이건 큰 타격이었습니다. 제 작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뼈아픈 실패였죠. 하지만 제 수표책과 유능한 알타몬트 덕분에 오늘 밤은 모든 일이 잘 풀릴 겁니다.”

남작은 시계를 확인하더니, 실망감이 섞인 거친 소리를 내뱉었다.

“이제 정말 더는 기다릴 수가 없겠군요. 아시다시피 지금 칼턴 테라스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를 지켜야 하는 처지 아닙니까. 당신이 거둔 그 엄청난 성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타몬트가 정해둔 시간은 없었습니까?”

폰 보르크가 전보 한 통을 밀어 놓았다.

오늘 밤 반드시 갈 테니 새 점화 플러그를 가져오게. —알타몬트.

“점화 플러그 말인가요?”

“보시다시피 그는 자동차 전문가로 위장하고 있고, 나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지. 우리만의 암호 체계에서는 앞으로 나올 법한 모든 대상의 이름을 자동차 부품 이름으로 정해뒀어. 만약 그가 라디에이터를 언급하면 전함을 뜻하고, 오일 펌프라고 하면 순양함을 말하는 식이지. 점화 플러그는 해군 신호를 의미하고.”

“정오에 포츠머스에서 발송되었군요.” 비서가 봉투에 적힌 발신 표시를 살피며 말했다. “그나저나, 그에게 얼마를 주실 생각입니까?”

“이번 건만 따로 떼어 봐도 보수가 500파운드라네. 물론 월급도 따로 받고 있지.”

“탐욕스러운 악당들 같으니. 저런 배신자들이 쓸모는 있겠지만, 저들이 피로 얻은 돈을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리는군.”

“알타몬트에게 아까울 건 하나도 없네. 그는 정말 대단한 일꾼이야. 보수를 넉넉히 주는 만큼, 적어도 본인 표현을 빌리자면 ‘제 몫은 확실히 해내거든.’ 게다가 그는 배신자도 아니야. 장담컨대, 우리 중 가장 범독일주의적인 용커라 할지라도, 진짜 독한 아일랜드계 미국인에 비하면 영국에 대해선 한없이 순한 양일 뿐이라네.”

“아, 아일랜드계 미국인이었나요?”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의심조차 못 할 겁니다. 가끔은 저조차 그를 이해하기 힘들 정도라니까요. 그는 영국 국왕뿐만 아니라 영국어 자체와도 전쟁을 선포한 모양입니다. 정말 가야만 합니까? 그가 언제 이곳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아니요. 미안하지만, 제가 머물 시간이 이미 지났군요. 내일 이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크 공작 계단에 있는 작은 문으로 신호책을 전달받으면, 영국에서의 기록에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될 겁니다. 아, 이건 토카이 와인입니다!” 그는 쟁반 위에 높은 잔 두 개와 함께 놓인, 먼지가 쌓이고 밀봉이 단단한 병을 가리키며 말했다.

“떠나시기 전에 술이라도 한 잔 대접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치 축제라도 벌어지는 모양이군요.”

“알타몬트는 와인 취향이 아주 좋습니다. 제 토카이 와인에도 아주 마음을 빼앗겼더군요. 하지만 성격이 좀 까다로운 사람이라 사소한 일에도 비위를 잘 맞춰줘야 합니다. 정말이지 그를 파악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테라스로 걸어 나갔다. 테라스 끝자락에 다다르자, 남작의 운전사가 가볍게 조작한 대형 자동차가 엔진 소리를 내며 가볍게 떨렸다.

“저건 하리치 항의 불빛이겠지요.”

비서가 더스트코트를 걸치며 말했다.

“모든 것이 참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다른 불빛들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영국 해안도 지금처럼 평온하지만은 않겠지요! 만약 저 선량한 제플린이 약속한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하늘조차 지금처럼 평화롭지는 않을 겁니다. 그나저나,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 뒤로 불빛이 새어 나오는 창문은 단 하나뿐이었다. 창 안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고, 그 옆 탁자에는 시골식 모자를 쓴, 얼굴이 빨그레 하고 인자한 노부인이 앉아 있었다. 노부인은 뜨개질에 열중하며 몸을 숙이고 있었는데, 이따금씩 곁에 놓인 스톨 위의 커다란 검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손을 멈추곤 했다.

“저 사람은 마사예요. 이제 제게 남은 유일한 하인이지요.”

비서가 킬킬거리며 웃었다.

“그녀는 마치 브리타니아 여신 그 자체 같더군요.” 그가 말했다. “완벽하게 자기 세계에 빠져서, 아주 편안하게 졸고 있는 듯한 모습 말입니다. 그럼, 또 만납시다, 폰 보르크!” 그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고는 차 안으로 뛰어 올라탔다. 잠시 후, 자동차 헤드라이트에서 뿜어져 나온 두 줄기 황금빛 불빛이 어둠을 뚫고 달려 나갔다. 비서의 머릿속은 곧 닥쳐올 유럽의 비극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고급 리무진의 쿠션에 몸을 깊숙이 기댄 채, 차가 마을 길을 돌아 나갈 때 반대

편에서 오던 작은 포드 자동차를 거의 칠 뻔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자동차 전조등의 마지막 잔광이 멀리 사라지자, 폰 보르크는 천천히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며 그는 노집사가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넓은 저택에 감도는 정적과 어둠은 그에게 낯선 경험이었다. 한때 그의 가족과 가솔들은 매우 대가족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안도했다. 가족 모두가 안전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고, 주방에 머물던 노부인을 제외하면 이 넓은 저택을 온전히 혼자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재 안을 정리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며 작업에 몰두했다. 타오르는 종이의 열기 때문에 그의 날카롭고 잘생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를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다. 탁자 옆에는 가족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는 금고 안의 귀중품들을 아주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가방에 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민한 귀에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즉시 만족스러운 듯 감탄사를 내뿜었다. 그러고는 재빨리 가방 끈을 조이고 금고를 달아 잠근 뒤, 테라스로 서둘러 나갔다. 마침 작은 자동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승객이 그를 향해 빠르게 다가왔고, 회색 콧수염을 기른 체격 좋은 노년의 운전사는 마치 긴 밤을 지새울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차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폰 보르크가 방문객을 맞이하려 서둘러 앞으로 나서며 간절하게 물었다.

그 질문에 답하듯, 남자는 작은 갈색 종이 꾸러미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승리감에 도취한 몸짓을 보였다.

“오늘 밤은 저랑 기분 좋게 악수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그가 외쳤다. “드디어 제가 큰 건을 하나 해냈거든요!”

“신호 말입니까?”

“전보로 말한 것과 똑같네. 세마포어 신호, 등불 암호, 마르코니 무선 통신까지 전부 다 말이야. 아, 원본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게. 원본은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만 내용은 진짜니 그 점은 확신해도 좋네.” 그는 거칠고 스스럼없는 손길로 독일인의 어깨를 툭 쳤고, 독일인은 그 친근함에 움찔했다.

“들어오게.” 그가 말했다. “집에는 나 혼자뿐이라네. 마침 이걸 기다리고 있었지. 물론 원본보다는 복사본이 더 낫다네. 원본이 없어지면 그들이 내용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도 있으니까. 복사본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아일랜드계 미국인은 서재로 들어와 안락의자에 몸을 기대며 긴 팔다리를 쭉 뻗었다. 그는 예수 살의 키가 크고 수척한 사내였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짧은 염소수염을 기른 모습은 마치 잉클 샘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연상시켰다. 입가에는 반쯤 피다 젖어버린 시가 한 대가 매

달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성냥을 그어 시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건가?"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러다 커튼이 걷혀 속살을 드러낸 금고에 시선이 머물자 그는 덧붙였다.

"이보게, 설마 중요한 서류들을 저 금고에 보관하는 건 아니겠지?"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흰히 들여다보이는 물건에 말입니까! 그런데도 당신을 스파이라고 의심하다니요. 미국 사기꾼이라도 통조림 따개 하나 들고 달려들 판이군요. 내 편지가 그런 곳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닐 줄 알았다면,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바보 같은 짓은 애초에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금고를 강제로 열려고 한다면 어떤 범죄자라도 애를 먹을 겁니다.” 폰 보르크가 대답했다. “그 어떤 도구를 가져와도 그 금속을 뚫어 낼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자물쇠는요?”

“아니요, 이중 결합식 잠금장치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글쎄, 나야 모르지." 미국인이 말했다.

“글쎄요, 자물쇠를 열려면 숫자뿐만 아니라 암호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열쇠구멍 주위에 이중으로 배치된 원판을 보여 주었다. “바깥쪽 원판은 글자를 입력하는 것이고, 안쪽 원판은 숫자를 입력하는 겁니다.”

“허어, 이거 참 좋군요.”

“생각만큼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군요. 이걸 만든 건 4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어떤 단어와 숫자를 골랐을 것 같습니까?”

“내 능력 밖이군.”

“글쎄요, 단어로는 8월을 골랐고 숫자는 1914를 택했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군요.”

미국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역력했다.

“세상에, 정말 대단하군요! 아주 완벽하게 해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미 눈치챈 사람들도 몇 있었지요. 자, 여기 낱씨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을 끝으로 일을 접을 겁니다.”

“글쎄, 나도 당신이 좀 챙겨줘야겠어. 이 빌어먹을 나라에 나 혼자 남겨져 있을 순 없으니까. 내가 보기엔 일주일, 아니 그보다 더 빨리 존 불이 뒷밭로 일어서서 날뛰기 시작할 것 같거든. 차라리 바다 건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게 낫겠어.”

“하지만 당신은 미국 시민이 아니었습니까?”

“글쎄요, 잭 제임스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한들, 결국 포틀랜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국 경찰에게 당신이 미국인이라고 떠들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여기는 영국의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곳이다’라고 받아칠 뿐이죠. 그나저나 선생, 잭 제임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당신은 부하들을 보호하는 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모양이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폰 보르크가 날카롭게 물었다.

“자, 당신은 그들의 고용주 아닙니까? 그들이 쓰러지지 않게 보살펴야 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쓰러지고 말지요. 그런데 당신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제임스만 해도 그래요—”

“그건 제임스 본인의 잘못이었네. 자네도 잘 알지 않나. 그 친구는 이 일을 맡기에는 고집이 너무 셋어.”

“제임스는 머리가 나뻐. 그건 인정하지. 그리고 홀리스도 있었고.”

“그 남자는 미쳐 있었다.”

“글쎄요, 마지막에는 그 사람도 좀 정신이 혼미해지더군요. 아침부터 밤까지 연기를 해야 하는데, 주변엔 그를 경찰에 밀고하려고 눈을 부라리는 놈들이 수백 명이나 깔려 있었으니, 사람 미치게 만들 만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슈타이너가 있으니…….”

폰 보르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떨었고, 붉게 상기되었던 얼굴은 한층 더 창백해졌다.

“슈타이너는 어떻게 됐나?”

“결국 그가 붙잡힌 겁니다. 어젯밤에 그의 가게를 급습했거든요. 이제 그와 서류들은 전부 포츠머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떠나겠지만, 불쌍한 그 사람은 남아서 이 소란을 온몸으로 받아내야겠지요. 목숨이라도 건지면 다행일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떠나자마자 저도 서둘러 바다를 건너가려는 겁니다.”

폰 보르크는 강인하고 침착한 성품의 소유자였으나, 그 소식이 그를 얼마나 크게 흔들어 놓았는지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어떻게 슈타이너에게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말인가?” 그가 중얼거렸다. “이건 지금까지 중 최악의 타격이야.”

“글쎄요, 당신은 훨씬 더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머지않은 곳까지 저를 추격해 온 것 같거든요.”

“설마 진심은 아니시겠지요!”

“물론이죠. 플랫폼 길에 사는 집주인이 몇 가지를 캐묻길래, 아, 이제는 서둘러 움직여야 할 때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건 말입니다, 형사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알아내는 거냐는 겁니다. 내가 당신 밑으로 들어온 뒤로 벌써 다섯 명이나 잃었습니다. 슈타이너가 그 다섯 번째고, 내가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여섯 번째가 누구인지도 알게 될 판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부하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 보면서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폰 보르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어떻게 감히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선생님, 제가 겁 없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당신을 모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죠. 듣기로는 독일 정치인들은 요원이 맡은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그를 내치는 데 조금의 미련도 없다고 하더군요.”

폰 보르크가 벌떡 일어났다.

“지금 내가 내 정보원들을 넘겨주었다고 감히 주장하는 건가!”

“그건 못 참겠군요, 선생. 하지만 어디선가 밀고자가 있거나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당신이 직접 찾아내야 할 문제고요. 어쨌든 난 더 이상 위험을 무릅쓰지 않겠소. 난 곧장 네덜란드로 떠날 거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군.”

폰 보르크는 분노를 억눌렀다.

“승리의 순간에 이르러서까지 다투기에는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너무 길지 않소.” 그가 말했다. “당신은 훌륭하게 일을 해냈고 위험도 무릅썼으니, 나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

드시 네덜란드로 가시오. 로테르담에서 뉴욕으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을 것이요. 일주일만 지나도 다른 항로는 안전하지 않을 테니까. 이 책은 내가 챙겨서 다른 물건들과 함께 짐을 싸 두겠소.”

미국인은 손에 작은 꾸러미를 쥐고 있었지만, 그것을 건네줄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가 물었다.

“뭐라고요?”

“챙긴 돈 말이야. 보상금, 그러니까 그 500파운드. 마지막에 포병 녀석이 아주 고약하게 굴더라고. 그래서 100달러를 더 얹어주지 않으면 우리 둘 다 끝장날 판이었지. ‘절대 못 해!’라며 버티는데, 빈말이 아니었어. 하지만 마지막에 준 100달러가 통했지. 처음부터 끝까지 총 200파운드나 들었던 말이야. 그러니 내 뭇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서야 이걸 그냥 포기할 리가 있겠어?”

폰 보르크가 씩씩한 미소를 지었다. “내 명예를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 모양이군.” 그가 말했다. “책을 넘겨주기도 전에 돈부터 요구하다니 말이오.”

“글쎄요, 선생. 이건 비즈니스 제안입니다.”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죠.” 그는 탁자에 앉아 수표 한 장을 휘갈겨 쓴 뒤 수표책에서 뜯어냈다. 하지만 그는 수표를 동행에게 건네주지는 않았다. “알타몬트 씨, 어차피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된 이상,”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나를 믿는 만큼 나도 당신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어깨너머로 미국인을 돌아보며 덧붙였다. “수표는 탁자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돈을 챙기기 전에, 내가 먼저 그 꾸러미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죠.”

미국인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건네주었다. 폰 보르크는 칭칭 감긴 줄과 종이 포장지 두 장을 풀어냈다. 그러고는 눈앞에 놓인 작은 파란색 책 한 권을 멍하니 바라보며 잠시 동안 경악에 찬 침묵에 빠져들었다. 책 표지에는 황금색 글자로 '양봉 실용 지침서'라고 적혀 있었다. 일류 스파이인 그는 이 기묘하고도 뜬금없는 문구를 아주 잠깐 동안 노려보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강철 같은 손길이 그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몸부림치는 그의 얼굴 앞으로 클로로포름을 적신 스펀지가 들이밀어졌다.

“한 잔 더 하게, 왓슨!” 설록 홈즈가 임페리얼 토카이 와인 병을 내밀며 말했다.

테이블 옆에 자리를 잡고 앉은 체격이 건장한 운전사가 다소 열의를 보이며 잔을 앞으로 내밀었다.

“좋은 와인이군요, 홈즈.”

“정말 놀라운 와인이군, 왓슨. 소파에 누워 있는 우리 친구 말로는, 쾰른 궁전에 있는 프란츠 요제프 황제의 전용 지하 저장고에서 가져

온 것이라고 하더군. 실례가 안 된다면 창문 좀 열어주겠나? 클로로포름 증기가 입맛을 버리는 건 사양하고 싶어서 말이야.”

금고는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앞에 선 홈즈는 서류철을 하나씩 꺼내어 빠르게 훑어본 뒤, 다시 폰 보르크의 여행 가방에 정갈하게 챙겨 넣고 있었다. 독일인은 소파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었는데, 양팔과 양다리는 끈으로 묶인 상태였다.

“서두를 것 없네, 왓슨. 아무도 방해하러 오지 않을 테니까. 괜찮다면 벨 좀 눌러주겠나? 지금 집 안에는 노(老)마사 말고는 아무도 없네. 마사는 자기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지. 이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내가 직접 그녀를 이곳으로 불러들였다네. 아, 마사,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네도 기뻐하겠군.”

인자한 인상의 노부인이 문가에 나타났다. 그녀는 홈즈 씨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인사를 건넸지만, 소파 위에 누워 있는 형체를 보며는 다소 불안한 기색으로 눈길을 던졌다.

“괜찮아, 마사. 그는 전혀 다치지 않았단다.”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홈즈 씨. 주인님께서서는 본인 기준에서 보면 참으로 친절하신 분이셨습니다. 어제는 저더러 사모님을 모시고 독일로 함께 가자고 하셨지만, 그러면 홈즈 씨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야, 정말이라니까, 마사. 자네가 여기 있는 동안은 마음이 아주 놓였어. 오늘 밤엔 자네가 신호를 보내주기만을 한참 동안 기다렸대네.”

“비서였습니다,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차가 우리 차를 지나쳐 갔습니다.”

“그가 절대 떠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가 이곳에 있는 것이 선생님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거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 그저 당신의 등불이 꺼지는 걸 보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할 때까지 30분 정도 기다려야 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마사, 내일 런던에 있는 클라리지 호텔로 나에게 보고하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떠날 채비는 다 끝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편지를 일곱 통 부쳤습니다. 주소는 평소처럼 제가 다 적어 두었습니다.”

“잘했다, 마사. 내일 바로 살펴보마. 잘 자거라.”

노부인이 방에서 물러가자 그는 말을 이었다.

“이 서류들은 그리 중요한 건 아니네. 서류에 담긴 정보는 이미 오래 전에 독일 정부로 보내졌으니까. 이건 안전하게 국외로 반출할 수 없었던 원본일 뿐이라네.”

“그렇다면 아무런 쓸모도 없겠군요.”

“그 정도까지 말하진 않겠네, 왓슨. 적어도 그들이 우리 측에 무엇이 알려져 있고 무엇이 알려지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할 테니까. 이 서류들 중 상당수가 내 손을 거쳐 갔는데, 그 내용들이 전혀 믿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말은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알겠지. 내가 넘겨준 기뢰 설치 계획도에 따라 독일 순양함이 솔런트 해협을 항해하는 모습을 본다면, 내 저무는 노년이 꽤 즐거울 것 같군. 하지만 왓슨, 자네는—”

홈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오랜 친구의 어깨를 붙잡았다.

“자네 얼굴을 제대로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여전히 예전처럼 밝고 쾌활한 청년 같군.”

“스무 살은 젊어진 기분인데, 홈즈. 자네가 보낸 전보를 받고 하리치에서 차를 타고 만나자는 말을 들었을 때만큼 행복했던 적도 드물 거야. 하지만 자네는, 홈즈—그 끔찍한 염소수염만 빼면 예전 모습 그대로군.”

“이런 게 다 나라를 위해 치르는 희생이라네, 왓슨.” 홈즈가 자신의 머리카락 한 뭉치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내일이면 그저 끔찍한 기억으로 남겠지. 머리 모양을 바꾸고 겉모습을 몇 군데만 고치면, 내일이면 틀림없이 클라리지 호텔에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거야. 이 미국 녀석

들 때문에 고생하기 전의 모습 그대로 말이야. 아, 미안하네, 왓슨. 내 영어 실력이 영구적으로 오염된 모양이군. 이 미국 사건을 맡기 전의 모습 말일세.”

“하지만 홈즈, 당신은 은퇴했지 않습니까. 사우스 다운스의 작은 농장에서 벌을 치고 책을 읽으며 은둔자처럼 지낸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습니다.”

“정확해, 왓슨. 이게 바로 한가로운 여유가 만들어낸 결실이자, 내 노년의 역작이라네!” 홈즈는 탁자 위에 놓인 책을 집어 들더니 제목 전체를 소리 내어 읽었다. “『양봉 실용 지침서: 여왕벌 분리에 관한 고찰을 포함하여』라네. 이 모든 걸 나 혼자 해냈어. 보게나, 이 결실을. 예전에 런던의 범죄 세계를 관찰하던 그때처럼, 작은 일꾼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사색에 잠겼던 밤들과 고된 나날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아, 나 역시 그 사실에 자주 경탄하곤 했네. 외무장관 정도라면 혼자서도 버텨낼 수 있었겠지만, 수상(首相)까지 직접 이 누추한 곳을 찾아오다니! 사실 왓슨, 소파에 앉아 있는 이 신사분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라네. 그야말로 독보적인 존재지.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아무도 갈피를 잡지 못했거든. 요원들이 의심을 받거나 심지어 붙잡히기도 했지만, 배후에는 강력하고 은밀한 중심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있었네. 그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반드시 필요했지. 그래서 나에게 이 사

건을 조사해 달라는 강력한 압력이 들어왔다네. 왓슨, 이 일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결코 지루한 시간은 아니었어. 내가 시카고에서 순례를 시작해 버펄로의 아일랜드 비밀 결사에서 정식 단원이 되고, 스키바린의 경찰들에게 골칫거리가 된 끝에, 결국 폰 보르크의 하급 요원의 눈에 띄어 적임자로 추천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건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이해하게 될 걸세. 그 이후로 나는 그의 신임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계획들이 교묘하게 어긋나거나 그의 정예 요원 다섯 명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 나는 그들을 지켜보았고, 왓슨, 적절한 시기가 되어 결실을 맺을 때를 기다려 그들을 잡아냈네. 자, 선생, 부디 별일 없으셨기를 바라네!”

마지막 말은 폰 보르크 본인을 향한 것이었다. 폰 보르크는 한참 동안 헐떡이며 눈을 깜빡이다가, 조용히 누운 채 홈즈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격분하며 독일어로 거친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죄수가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동안에도, 홈즈는 서류들을 신속하게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음악적인 느낌은 없지만, 독일어는 모든 언어 중에서 가장 표현력이 풍부하군요.” 폰 보르크가 극심한 피로로 말을 멈추자 홈즈가 관찰하듯 말했다. “어라! 이것 좀 보게!” 홈즈는 설계도를 상자에 넣기 전, 도면 한구석을 유심히 살피며 덧붙였다. “이것만 있으면 놈을 확실히 잡겠어. 지불관이 이토록 악랄한 자인 줄은 몰랐군. 물론 오랫동안 눈여겨보고는 있었지만 말이야. 폰 보르크 씨, 당신은 책임져야 할 일이 아주 많겠어.”

죄수는 간신히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자신을 붙잡은 자를 향해 경악과 증오가 뒤섞인 기묘한 눈빛을 보냈다.

“반드시 네놈에게 되갚아 주겠다, 알타몬트.” 그가 느릿하고 신중한 어조로 말했다. “내 평생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네놈에게 되갚아 주고 말겠다!”

“그 오래되고 감미로운 노래로군.” 홈즈가 말했다. “지나간 시절에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몰라. 고인이 되어 참으로 애석한 모리아티 교수가 즐겨 부르던 노래였지. 세바스찬 모란 대령도 이 노래를 흥얼거린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런데 나는 지금 이곳 사우스 다운스에서 살아남아 벌을 치고 있군.”

“저주받을 놈, 이 이중 배신자 자식!” 독일인이 포효했다. 그는 결박을 풀려고 몸부림치며,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살기를 뿜어냈다.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 설명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시카고의 알타몬트 씨라는 인물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았습시다. 제가 그를 이용했을 뿐이고, 이제 그는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제가 누구인지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폰 보르크 씨, 당신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시니 말씀드리지요. 저는 당신의 가족분들과 이미 여러 차례 안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독일에서 사업을 꽤 많이 했기에, 아마 당신도 제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도 그것을 알고 싶군.” 프로이센인이 엄숙하게 말했다.

“당신의 사촌 하인리히가 제국 특사로 있을 때, 아이린 애들러와 보헤미아 국왕 사이를 갈라놓은 건 바로 나였네. 또한 당신의 외삼촌인 폰 운트 추 그라펜슈타인 백작이 허무주의자 클롭만에게 살해당할 뻔한 위기에서 그를 구해낸 것도 바로 나였지. 내가 바로—”

폰 보르크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 사람은 단 한 명뿐이야!” 그가 외쳤다.

“정확해.” 홈즈가 말했다.

폰 보르크는 신음하며 소파 위로 몸을 털썩 던졌다. “그 정보의 대부분을 당신을 통해 얻었던 말입니다!” 그가 울부짖었다. “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겁니까? 이제 내 인생은 영원히 끝장입니다!”

“확실히 조금은 믿기 어려운 정보군요.” 홈즈가 말했다.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당신에게는 그럴 시간이 거의 없으니 문제입니다. 제독께서 예상했던 것보다 신형 함포는 훨씬 더 커 보일 것이고, 순양함은 아마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를 겁니다.”

폰 보르크는 절망에 빠져 자신의 목을 움켜쥐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머지않아 밝혀질 세부 사항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하지만 폰 보르크 씨, 당신에게는 독일인에게서 보기 드문 아주 귀

한 자질이 하나 있군요. 바로 스포츠맨 정신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따돌려 온 당신이, 결국 자신마저 따돌림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도 나에게 악감정을 품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결국 당신은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나 또한 내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니,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쓰러져 있는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정하게 덧붙였다. “비열한 적에게 패하는 것보다는 이 편이 훨씬 나을 겁니다.”

“왔슨, 이제 서류는 다 준비되었네. 자네가 이 죄수를 좀 도와준다면, 지금 바로 런던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군.”

폰 보르크를 옮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는 힘이 장사였고, 막다른 길에 몰린 절박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결국 두 친구는 그의 양팔을 붙잡고 정원 산책로를 따라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불과 몇 시간 전, 유명 외교관으로부터 축하를 받을 때만 해도 그토록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걷던 길이었다. 짧고 격렬한 몸싸움 끝에, 손발이 묶인 그는 작은 자동차의 보조 좌석 위로 들어 올려졌다. 그의 소중한 가방도 그 옆에 억지로 끼워 넣었다.

“상황이 여의치 않겠지만, 그래도 편히 계시길 바랍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홈즈가 말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시가에 불을 붙여 당신의 입술 사이에 물려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친절도 분노에 찬 독일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설록 홈즈 씨, 당신도 알고 있겠지.” 그가 말했다. “만약 당신네 정부가 이런 처사를 묵인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यो.”

“그럼 당신네 정부와 이 모든 처사는 어떻고요?” 홈즈가 여행 가방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은 개인일 뿐입니다. 나를 체포할 영장도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은 명백히 불법이며, 도를 넘은 처사입니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독일 국민을 납치한 겁니다.”

“게다가 그의 개인 서류들까지 훔쳐 갔습니다.”

“자, 당신과 여기 있는 공범은 지금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겠지. 우리가 마을을 지나갈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소리라도 지른다면—”

“여보십시오, 폰 보르크 씨. 만약 당신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다면, 우리 마을 여관 두 곳의 간판을 새로 달아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매달린 프로이센인’이라는 간판을 내걸어야 할 테니까요. 영국인은 인내심이 강한 민족이지만, 지금은 다들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 폰 보르크 씨. 당신은 우리와 함께 차분하고 현명하게 스코틀랜드 야드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친구인 폰 헤를링 남작에게 연락을 취해 보십시오. 남작이 대사관 일행을 위해 당신의 자리를 비워두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다. 왓슨, 자네는 예전처럼 다시 복무를 시작한다고 들었으니 런던에 가는 길도 번거롭지 않겠군. 자, 나와 함께 여기 테라스에 서 있세. 어찌면 이것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마지막 평온한 대화가 될지도 모르니까.”

두 친구는 잠시 동안 옛 시절을 회상하며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사이 붙잡힌 자는 자신을 묶은 결박을 풀기 위해 헛된 몸부림을 쳤다. 두 사람이 차를 향해 몸을 돌렸을 때, 흠즈는 달빛이 비치는 바다를 뒤로 가리키며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저었다.

“동풍이 불어오고 있네, 왓슨.”

“그렇지 않을 것 같네, 흠즈. 날이 아주 더워.”

“자네는 정말 변함없는 나의 오랜 친구군, 왓슨!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자네야말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존재라네. 이제 곧 동풍이 불어올 걸세. 지금까지 영국에 불어본 적 없는 그런 거센 바람 말일세. 왓슨, 그 바람은 몹시 차갑고 매서울 것이며, 그 돌풍 앞에 우리 중 많은 이가 시들어버릴지도 모르네. 하지만 그 바람 또한 신이 내린 바람이라네.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햇살 아래 더욱 깨끗하고 훌륭하며 강인한 땅이 펼쳐질 테니까. 자, 이제 출발하세, 왓슨. 이제는 길을 나서야 할 때라네. 여기 500파운드짜리 수표가 있는데, 이걸 서둘러 현금으로 바꿔두어야 하네. 발행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람이거든.”